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2006 FIFA 독일 월드컵 4강기원
아이 ♥ 딕 아드보카트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6월 21일(음력 5월 26일) 수요일 (주간) 제 583 호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웰다잉' 삶의 새 코드로 부상…생사일여 정신 부합

봉은사 · 대원사 · 능인선원 등 죽음체험 · 강좌 인기

생사일여(生死一如).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예부터 불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단순명쾌한 정신이 웰빙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웰엔딩(well-ending),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가 바로 현대판 '생사일여'다. 웰빙(well-being)이 '참살이'를 뜻하는 말이라면 웰다잉은 어떻게 잘살까에 머물러 편안한 삶에 집착하던 수준을 훌쩍 넘어, 삶을 진솔하고 슬기롭게 꾸리고 죽음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하는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웰다잉 운동이 호응을 얻은 지 오래이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종 때까지 간호와 호스피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미국과 대만, 일본은 적법한 규정에 따라 호스피스 시설에 임종실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월 국립암센터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웰다잉 준비시대에 들어섰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연구과장은 "우리나라는 1년에 15만 명이 간경화와 암 등의 중병을 앓는다"며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치료와 정서적 지원을 통한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산출하고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돕는 데스 코디네이터(death coordinator), 데스 컨설턴트(death consultant) 등 신종직업도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약 27억의 장례비용을 쓰고 있지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웰다잉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불교계에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능인선원과 대원사, 관음사 등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불교적 윤회 · 생사관과 웰다잉을 접목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삽화 · 박구원

서울 능인선원은 죽음준비교육 수련회 '빛으로 태어나기'를 7월 중순 경 1박2일로 진행한다. 보성 대원사도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특별수련회를 매달 셋째 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수련회는 유언장 작성과 관에 들어가는 임종체험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대구 관음사는 영남불교대학 5층에 내생체험관을 마련해 놓고 극락과 지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대원사 특별수련회에 참가했던 정희연 씨는 "저승체험실에 들어가 관에 눕는 순간, 인생이 무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떠올리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계 웰다잉 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각 사찰이 진행하는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체험'과 '유언장 작성' 등에 집중돼있고, 일회적 · 이벤트적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타종교 호스피스 프로그램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불교적 웰다잉에 대한 강좌와 체험프로그램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개별사찰의 수련회 성격에서 벗어나,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6월 20일~8월 29일 10주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회향 웰다잉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봉은사 교육국장 선업 스님은 강좌 개설 이유를 "자아성찰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 모집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되고 대기자만 100명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인 '사(死)는 기쁨'을 운영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에 시작해 올해 11월까지 이어지는 '사는 기쁨'은, 인생회고, 임종의식, 호스피스, 생명나눔서약, 상장례 봉사, 사(死)축제 등을 통해 불교적 죽음에 대해 체험해나갈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단편적인 임종체험은 자칫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을 불러일으키거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사는 기쁨' 프로그램의 핵심은 죽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변과 나누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교적 웰다잉의 핵심이자 최상의 죽음 준비는 바로 '적선(積善)'이라고 입을 모으며, 지난해 열반한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불교적 웰다잉의 표본이라고 꼽았다.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시신을 기증한 후 화장(火葬)할 것을 유언했던 모습이 불교적 웰다잉의 귀감이라는 것.

최근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웰다잉 열풍을 불교계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학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된 다각적인 활동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생사학연구소장 오진탁 교수는 "기독교적 죽음관에 입각한 호스피스 교육이나 임종체험이 아닌 불교적 죽음준비교육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불교계 의료시설에서 임종실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유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참가문의= 봉은사(02)3218-4822~4, 대원사(061)852-1755, 대구 관음사(053)474-8228, 능인선원(02)577-5800, 서울 노인복지센터(02)739-9501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짬짬이 불교공부 "기대되네"

조계종 포교원 8월에 사이버불교대학 개설

조계종 포교원이 사찰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신도계층을 위해 '사이버불교대학'을 개설한다.

올 8월 정식 오픈할 사이버불교대학은 총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올해 구축되는 1단계 사업은 '신도기본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입문>을 웹상으로 유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총 24강으로 구성된 <불교입문>은 한 강좌 당 30분 강의로 제공된다. 교수진은 군포 정각사 화엄불교대학 학장 정엄 스님과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를 비롯해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종단 신도등록도 가능하다. 단 교육과정 중 종단에서 인정하는 수련회를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또 종단에서 인가받은 신도전문기관(불교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도전문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보다 과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강사를 구성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포교사 고시 및 직장직능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의 주요 뼈대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증대학인 '정규사이버대학' 설립이다. 이 기간에 전국의 신도교육기관과 네트워크화 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장마 시작…안전점검 '필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다. 산사태나 축대붕괴 등 사찰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분 6월 15일 새벽 2시 국립마산요양소 관해사 요사채에 지름 1.5m 높이 30m의 노송이 쓰러져 슬레이트 지붕과 창문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요사채에서는 주지 자운 스님 등 5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산=영민 서부경남 지사장

이번에도 그들의 잔치?

제3기 방송위원회 구성 눈앞… 교계 추천인사 '논의'

한 달 이상 표류됐던 3기 방송위원회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3기 방송위원회 추천과 관련한 6월 임시국회가 6월 19~30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5월 9일 임기가 끝난 2기가 3기 구성 때까지 임시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권한과 KBS 이사를 추천할 권한, EBS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 및 주요 방송 정책 총괄, 방송사 재허가 추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 인사들은 소외돼 왔다. 1기 · 2기 방송위원회에는 불자들이 거의 없었다. 지난 4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기독교방송(CBS) 등이 참여하는 '가칭(주)경인TV컨소시엄(대표 신현덕)'이 결정된 배경에는 불자 방송위원들이 부족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는 것이 불교계의 의견이다.

그 때문에 종교 편향적 방송정책 등이 생기지 않도록 3기 방송위원회에는 불자들이 좀더 포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불자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기 방송위원장에는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진대제 前 정통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추천하는 방송위원 후보군은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김동기 변호사, 성영소 전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추천인사로는 강동순 KBS 감사,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 송석형 한국방송기자협회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효란 스님(오봉사 조실)


시방세계 9면
해인사 행자들의 하루


도반의 향기 17면
선시 영역하는 헤이트씨

지혜경영자의 조건? 10면
장마철 건강관리 27면

의견광고

인류화합 세계평화 3방안 제시

Three plans of suggestions for world harmony & world peace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천 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심 못합니다. 더구나 테러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험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이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이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을 믿는 것은 시대 착오이요, 인류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미국 등 몇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지려 하므로 핵 확산 우려가 있고 통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UN 기구의 관리하에 두기를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용으로만 함께 사용하면 인류평화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나라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리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도덕적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이점이 많으므로 반듯이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순회계몽 및 강연**
- 연설제목 : 기독교의 신이 없음을 증명함

● **宇宙的 新 淨土法文**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비교설법

▶ 상기 강연과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응해 드림.
又, 日本 の方た も要請があれば其處に趣いて極樂世界と キリスト敎 の天國世界という題で設法して上げます.

2006. 6. 일

世界平和 淨土會 法天 鶴山 合掌

011-9230-2192(晝間 夜 8時半後 電話不可)

"공안 눈총 따갑지만 법회 즐거워"

도영스님 中서 법당 운영 한인불자들과 간담회
11일 광제사서 연합수계법회… 애로사항 점검

2004년 6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 만월사.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개원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법회가 시작되자마자 중국 공안 8명이 구둣발을 신은 채 법당에 들어와 법회를 방해했다. '주거지역 내 종교 활동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일명 '구둣발 사건'이다.

이 사건 후 2년여 지난 6월 9일. 도영 스님이 다시 베이징을 방문했다. 12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재중국 한인불자 연합수계법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방문 기간 도영 스님은 2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11일 만월사에서 베이징, 광조우(光州), 난징(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등 중국 내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불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인불자들은 "시시때때로 공안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종교 활동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합법적인 장소(상가나 오피스텔)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주거지역 내에서의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한인불자들이 운영하는 법당들은 재정이 열악해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다. 만월사도 아파트에 위치한다. 현재 공안국 외사처의 묵인 하에 법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올해 말까지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지난 3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6월 9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중국불교협회 장린 부비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상하이 반야성사도 최근 아파트 아래층 주민의 신고로 법당이 폐쇄될 위기를 맞았다. 광조우 불광선원, 난징 관음사, 위하이(威海) 호림정사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간담회에서 도영 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나 간담회를 계기로 종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불자들을 위로했다. 또 "중국불교협회와도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 장린(張琳) 부비서장도 9일 광제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내 한국불자들이 겪고 있는 종교집회 자유 등에 대해 중국불교협회가 나서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1일 광제사에서 열린 연합수계법회에서 류주열 주중 한국대사관 총영사도 "중국 당국과 중국불교계 스님들과 의논해 우리 사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당 마련과 함께 '지도법사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법당은 재가불자들만의 약식법회로 진행되거나, 유학생 스님들이 간헐적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및 신도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종교국이나 외사처와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관련 텐진 능인선원 분원 불광사 지도법사 덕윤 스님은 "종단 승가고시 제도에 해외 지원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 해외 지도법사에 지원한 스님들에게 자격을 주거나 승려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한다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만월사 지도법사 진명 스님 인터뷰 14면

글·사진=공동취재단

"자주 만나 통일이루자" 다짐

6·15 민족통일축전서 남북불교지도자 만나



6월 15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종교인 상봉모임'에서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다.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 민족통일 대축전에서 남과 북의 불교지도자들이 만나 불교교류와 평화통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정서정 서기장은 6월 15일 무등파크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종교인 상봉모임'에서 "민주열사의 고장 광주에서 불교지도자들을 만나 반갑다"고 인사하고 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불교교류 현황을 소개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남북의 불교인들이 자주 만나 통일시대를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북측 불교대표로 정서정 서기장과 리현숙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부회장이 참가했다. 남측에서는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명진(<민족21> 발행인) 스님과 진각종 포교부장 회성 정사 등 종단 관계자, 광민(광주 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행법(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스님, 이호준(광주시청불자), 윤해월성(여성불자회 광주지부) 회장 등 광주지역 불교인이 참석했다.

종교인 상봉모임에 앞서 14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은 축사를 통해 "민족의 분단은 우주만물의 분절이며, 천지만유의 고통이다"며 "서로 맞잡은 손으로 뜻도 마음도 함께 나누며 통일의 꿈을 실현해 공동의 행복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조불련,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interview 조선불교도연맹 정서정 서기장



"일제때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났고 5·18 민주열사가 묻힌 광주에서 불교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6·15 민족통일축전 북측 불교대표로 광주를 방문한 정서정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사진)은 "광주불자와 함께하는 심정으로 통일사업을 적극 벌여나가자"며 "북으로 돌아가면 북녘 분들에게 광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첫 광주방문 소감을 밝혔다.

정 서기장은 "조불련은 최근 유용선 위원장 취임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도조직을 정비해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쪽의 불교현황에 대해 "현재 북에는 60여개 사찰이 있으며 회비를 내고 정식 불교활동을 하는 불자가 4000여명이다"며 "그러나 불교는 오랜 전통이 있어 대부분 불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남북불교교류에 대해 정 서기장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신계사, 영통사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남쪽 불교계와 함께 불교전문교육시설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 서기장은 "스님들이 거주하고, 불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불교건물을 짓고 있으며 현재 11층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제21회 불이상에 지홍스님·석길암씨

복지활동·원효연구 인정… 7월 5일 시상식





제21회 불이상 수상자로 실천분야에 지홍 스님(서울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사진위), 연구분야에 석길암씨(동국대 강사)가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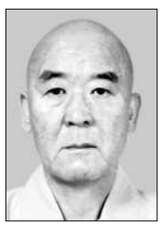
불이상 심사위원회는 "지홍 스님은 활발한 불교 포교활동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로로, 석길암씨는 젊은 소장학자로서 원효사상에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1974년 창립된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한국불교계 활성화와 여성불교 위상 정립을 위해 설립됐다. 불이회는 1985년 불이상 제정 이후 매년 연구·실천 분야에 걸쳐 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상을 수여해왔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2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노병철 기자

마곡사 주지에 진각 스님… 불국사 산중총회 무산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23대 주지에 진각 스님(사진)의 재임이 확정됐다.

마곡사는 6월 10일 선거인단 총 133명 가운데 121명이 참석한 산중총회에서 새 주지후보로 現 주지 진각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진각·대진·장곡 스님 등 3명이 주지후보로 나섰다.

일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진각 스님은 지정 스님과 월하 스님으로부터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전 고산사 주지와 마곡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6월 16일 치러진 불국사 산중총회는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조용수 기자

문화산업 지원센터 설계안 나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본설계안이 나왔다. 6월 15일 마곡사에서 열린 승가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에는 △국제간화선센터(약 300평) △교육 및 연수시설(약 950평) △숙박 및 후생시설(약 2000평) △연구 및 행정시설(약 430평)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종도 의견 묻는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제·개정 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는 6월 12일 종회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7월 경 주요 교역직 3500여명을 대상으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초위원회가 3월 임시종회 이후 5차례에 걸쳐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종회 종책모임들 간의 이견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초위원회가 종도들 여론을 바탕으로 종헌종법개정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추진되는 설문조사와 공청회가 끝나려면 빨라도 7월 말 이후여서 종헌종법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던 7월 임시종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설문조사는 △직선제 △선거인단 확대 △선거인단 축소 △추대 △현행에 보완 등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으로 2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전국 본·말사주지연수를 시작으로 교구 본·말사 주지, 종회의원, 강원·율원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牧牛堂 性悟大禪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스님의 영결식을 먼 길을 마다않고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조계종 원로 스님, 사숙스님, 종단과 각 본사의 소임자 스님, 본사 문도스님, 범어사 소임자 스님, 제방의 선원스님, 범어사·쌍계사 강원스님, 부산의 각 신행단체장 및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계, 관계, 법조계 및 각계의 인사님 등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결법회가 여법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운수사 신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우리 문도 일동은 화합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인사말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우당 성오대선사 추모재 일정

목우당 성오대선사 추모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 시	장 소
초재	6월 14일 (음 5월 19일)오전 10시	운수사
2재	6월 21일 (음 5월 26일)오전 10시	운수사
3재	6월 28일 (음 6월 3일)오전 10시	운수사
4재	7월 5일 (음 6월 10일)오전 10시	운수사
5재	7월 12일 (음 6월 17일)오전 10시	운수사
6재	7월 19일 (음 6월 24일)오전 10시	운수사
7재	7월 26일 (음 7월 2일)오전 10시	범어사

※문의처 : 운수사 (051)317-5671

金井山人 牧牛堂 性悟大禪師 門徒 一同

인니 지진피해지역에 조계종, 대형텐트 전달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은 6월 15~18일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역 족자카르타를 방문,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을 단장으로 구성된 파견단은 족자카르타지역의 각급 학교와 관공서에 2천만원 상당의 대형텐트를 전달했다.

파견단장 지현 스님은 "지진 발생지역의 교육시설이 대부분 파괴돼 학교 재건 전까지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텐트를 현지에서 요청해온 것"이라며 "구호품이 지진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진각복지재단 창립 8주년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이 법인설립 8주년을 맞아 6월 13일 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기념법회 및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행사는 5년 이상 근속한 총 23명의 직원에게 장기근속상을 전달하는 시상식에 이어 회정 정사의 격려사, 한성대 행정학과 황진수 교수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회정 정사는 "올해는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는 등 진각복지재단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해"라며 "초발심을 잃지 말고 더욱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이은비 기자

자원봉사 불교계 가장 충실

1인 연평균 33.6시간 … 참여자수는 3대종교 중 최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불자 수는 같은 기간 참여한 개신교, 가톨릭 자원봉사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은 불교계가 가장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05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이다.

지난해 전체 활동자원봉사자 34만5064명 가운데 무응답자를 제외한 자원봉사자 중에서 불자는 1만5528명으로, 개신교 2만7650명, 가톨릭 1만5775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2004년 불자 자원봉사자수에 비해 약 4천여명이 늘어난 수치이지만 전체 종교 봉사자의 19%로 제자리 걸음이다. 같은 기간 개신교는 1% 증가했고, 가톨릭은 1% 감소했다.

이는 타종교에 비해 불교복지시설이나 지역사찰과 신도 간의 연계, 지원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데에서 기인한다.

현재 불교계에는 약 100여곳 이상의 사찰 부설 불교대학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불교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론을 교육하고 있는 곳은 조계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의 불교대학에 불과하다.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찰 역시 극소수다.

이에 반해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다른 종교를 압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불자 자원봉사자들은 1명당 연평균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33.6시간으로,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높았다. 개인당 연간 평균봉사횟수도 9.46회를 기록해 가톨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조사결과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구체적인 봉사활동 현황도 파악됐다. 불자 자원봉사자들은 재가봉사나 지역봉사보다 복지시설에서 주로 봉사하고 있고, 주말보다 평일 오후 시간대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의정부사암연합회의 천수천안자원봉사단과 같이 지역 단위사찰과 연계해 교육과 훈련,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각 지역사찰을 대상으로 봉사단체 조직 및 기획, 활동계획 수립방안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모색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사리, 나폴레옹 송곳니와 동격?

삼성, 경매 사례들어 "유상취득정당" 주장

"나폴레옹 송곳니가 소더비 경매에서 거래됐듯 사리 유상 취득은 정당하다."

불교계 초미의 관심사인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사건번호 2005가합9777)과 관련, 피고 삼성문화재단 측의 입장이 6월 15일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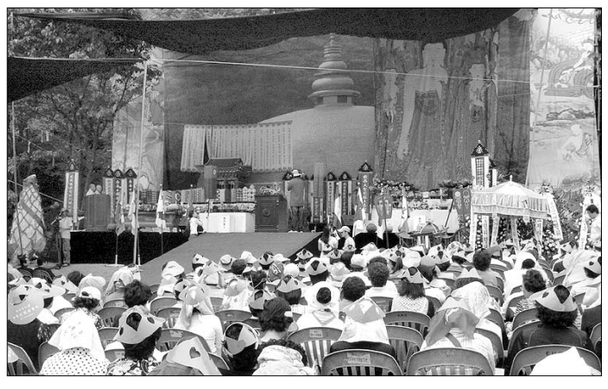
피고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제출한 준비서류에서 ▲서상복씨가 사리구를 도굴했다는데 대한 정황 증거 불충분 ▲사리 유상취득에 하자 없음 ▲선의 취득 등의 이유를 들어 반환을 요구하는 현등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준비서류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삼성문화재단측이 '나폴레옹의 머리카락과 송곳니, 베토벤의 머리카락 등이 1994년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고가에 팔렸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종교적으로 신성성을 띠고 있으며, 경배의 대상이기까지 한 사리와 '해외토픽'을 연관시켜 법적자료로 사용한 피고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한편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원심원사는 13일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를 개최했다.

"순국선열 호국정신 잇자"

원심원사 호국위령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3일 육군 5사단 포병대대 내에 위치한 원심원사에서 한국전쟁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대재가 봉행됐다.

복원 불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취지도 함께 포함된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속초 신흥사 주지 오현,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비롯해 김규배 연천군수, 전종기 5사단장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 천도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법회에 들어갔다. 내외 귀빈들의 헌화와 분향으로 문을 연 위령법회는 탤런트 김용림 불자의 영가 극락왕생 발원문의 낭독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1300여년 동안 당대 수승한 고승대덕들을 배출한 전법 수행도량이자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했던 이곳 원심원사는 국태민안을 위해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중부내륙의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였다"고 말했다.

원심원사는 20세기 초까지 천불전, 해장전 등 250여 칸을 갖춘 대규모 사찰이었으나 구한말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소돼 절터만 남았으며 이후 2004년 천불전(극락보전)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복원 불사가 시작됐다.

원심원사 주지 세민 스님은 "무수한 호국영령들이 산화해간 이곳에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원심원사 복원 불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 사진/연천=김주일 기자

템플스테이 어디로 갈까

사찰별 프로그램 특화 … 선택폭 넓어져

이글거리는 태양은 아스팔트를 후끈 달군다. 눅진해진 바람은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좀 더 시원한 곳을 찾아 산으로 물가로 피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사람열기로 가득하다. 뜨거운 여름 조용하고 시원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보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은 6월 14일 2006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여름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수행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탈피, △체험형 △수행형 △휴식형 으로 구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름 방학 및 휴가 기간 산사에서 일상의 시름을 놓아보자.

남동우 기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여름프로그램

지역	사찰명	유형	일정	특징	홈페이지
공주	갑사	체험형	매주말		www.gapsa.org
경주	골굴사	체험형	상시	선무도	www.golgulsa.com
서귀포	광명사	수행형	매주말	폭포아래 수행가능	
원주	구룡사	체험형	상시		www.guryongsa.or.kr
김제	금산사	체험형	매주	선프로그램진행	www.geumsansa.org
경주	기림사	휴식형	상시		www.kirimsa.com
서울	길상사	수행형	셋째주말		www.kilsangsa.or.kr
부안	내소사	체험형	매주말		www.naesosa.org
문경	대승사	휴식형	상시		http://dss.ismtv.net/
보성	대원사	체험형	매주말		www.daewonsa.or.kr
해남	대흥사	체험형	매주	다양한 수행방법 진행	www.daeheungsa.com
공주	마곡사	체험형	매주		www.magoksa.or.kr
서울	묘각사	체험형	상시		www.myogaksa.net
계룡	무상사	수행형	상시	안거일 집중 수행 운영	www.musangsa.org
해남	미황사	체험형	매주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www.mihwangsa.com
강진	백련사	휴식형	상시		www.baekryunsa.or.kr
장성	백양사	수행형	매주	수행전문프로그램	www.baekyangsa.org
금정	범어사	수행형	매주		www.beomeosa.co.kr
보은	법주사	수행형	매주말		www.beopjusa.or.kr
파주	보광사	휴식형	상시	외국인 5명 이상	www.bokwangsa.co.kr
서울	봉은사	체험형	매주목	무료, 오후2시 진행	www.bongeunsa.org
안동	봉정사	체험형	첫째셋째주말	15명이하의 정갈있는 운영	www.bongjeongsa.org
서산	부석사	체험형	매주말	야생화 관련 생태체험가능	www.busuksa.com
나주	불회사	수행형	매주		www.bulhoesa.org
동해	삼화사	휴식형	매주		www.samhwasa.or.kr
순천	송광사	수행형	매주		www.songgwangsa.org
예산	수덕사	수행형	매주		www.sudeoksa.com
평택	수도사	휴식형	상시		
여주	신륵사	체험형	첫째셋째주말		www.silleuksa.org
남원	실상사	휴식형	상시		www.silsang.net
서귀포	약천사	체험형	상시	서각체험가능	www.yakchunsa.org
강화	연등국제선원	휴식형	상시		www.lotuslantern.net
공주	영평사	체험형	상시	백련차 만들기	www.youngpyungsa.org
완주	완주송광사	휴식형	매주말		www.songkwangsa.org
양평	용문사	휴식형	상시		www.yongmunsa.org
화성	용주사	체험형	둘째넷째주말	효를 주제로 운영	www.yongjoosa.or.kr
진부	월정사	휴식형	상시		www.woljeongsa.org
유성	자광사	수행형	상시		www.jakwangsa.org
강화	전등사	휴식형	상시		www.jeondeungsa.org
서울	조계사	체험형	넷째주	템플라이프가능	www.jogyesa.net
논산	지장암	체험형	둘째넷째주말		www.jiang.net
김천	직지사	휴식형	상시		www.jikjisa.or.kr
양산	통도사	수행형	매주		www.tongdosa.or.kr
밀양	표충사	휴식형	매주말		www.pyochungsa.or.kr
합천	해인사	수행형	매주		www.haeinsa.or.kr
금정	홍법사	체험형	둘째넷째토		www.busanbuddhism.com
구례	화엄사	수행형	매주		www.hwaeomsa.org
고양	흥국사	체험형	첫째셋째주말		www.heungguksa.or.kr

'불교란 무엇인가' 여름 대설법

동산반야회, 7월 1일부터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불교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불자가 얼마나 있을까.

불교를 믿으면서도 정작 불교의 진면목을 물으면 머뭇거리게 되는 불자들을 위해 동산반야회가 '불교란 무엇인가?(What is Buddha teaching?)'라는 주제로 불교여름대설법을 개최한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과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前 전국신도회장 박완일 교수 등의 법사가 7월 1~29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불교회관에서 법회를 연다.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불교의 생활화, 셋째 주는 불교의 정토화, 넷째 주와 마지막 주는 불교의 대중화에 대한 설법이 펼쳐질 예정.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지 어언 160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불교의 진면목은 무속, 민속, 기복불교에 가려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 정법을 세우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2)732-1206

이은비 기자

목탁소리

가사불사 독점?

지난주 조계종 가사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간 후 기자는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조계종이 가사원을 통해 가사불사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이 섞인 목소리였다.

종단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사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고, 법계에 맞는 승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명분을 떠나 조계종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 우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사원 직영이 종단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총무부 관계자조차 "승복집에서 종단으로 자본의 이동이라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고백할 정도다.

수십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도 없이 추진하면서 '윤달에 맞춰 어차피 사찰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가사불사하고 있어 이를 가사원이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발상도 안이하다.

더구나 종단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호법부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총무부의 발표도 납득이 가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조계종은 최근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한 수많은 정책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반발이 예상되는 종책을 무책임하게 강행하기보다, 늦더라도 구체적으로 종도들의 합의와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진행한 뒤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경봉대종사 제24주기 추모법회

경봉대종사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50년 6월 22일(음. 5. 27)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

불기 2550년 6월

통도사 경봉문도회 회주 원명 합장

055)382-7083

2006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06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박사 2명	정도 정암
석사 2명	성해 용수 선본 보경 도안 성구 자원 인해
학사 24명	성래 현광 천주 기탁 태암 광석 무위 범일 용문 도계 효일 지용 혜월 귀종 신견 인월 종백 종수 상문 용제 성조 보근 돈성 홍제
통도사강원 8명	
선원 3개소	극락선원 보광선원 서운암선원

※ 선발된 장학생은 꼭 추모법회에 참석하여 **직접 장학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

종교 · 민간 단체, 환수운동 적극 펼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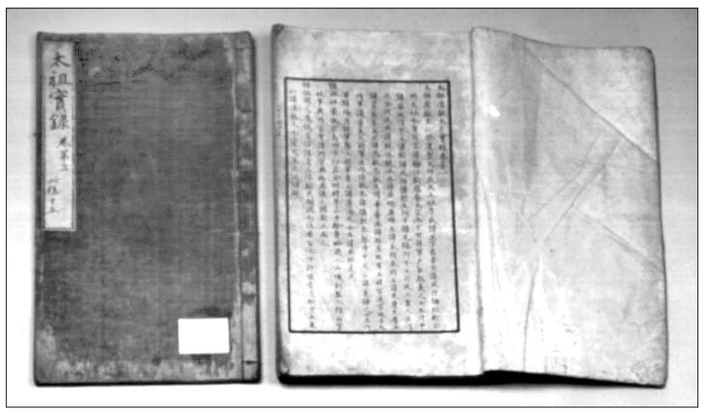
해외유출문화재 환수 대책 없나

'총성 없는 전쟁'.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오는 7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1세기 만에 일본 도쿄대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본에 의해 강제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을 되찾을 수 있었던 구심점에는 불교계 문화재 환수단체인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회장 정념 · 철안)'의 노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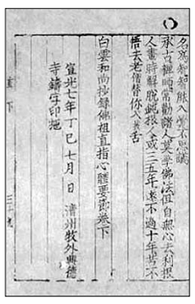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약 7만 5천여 점. 이 중 불교 관련 문화재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록반환 건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환수위 외엔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단체는 전무한 상태.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반환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관이 적극적으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운동을 펼친다면 적지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명분만 내세우다 실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것이니 무조건 내놔라' 식의 1차원적 접근으로는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해외 유출 문화재의 현황과 환수 대책을 살펴봤다.


현재 도쿄대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 사고본 47책. 7월초 서울대 규장각으로 기증될 예정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하권이 소장돼 있다.

유출 현황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약 7만 5천여 점. 일본 3만 4,331점, 미국 1만 6,964점, 영국 7천189점, 독일 5천246점, 러시아 3천350점, 프랑스 1천519점, 덴마크 1천470점, 중국 1천434점 등 20여 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반출 문화재의 종류와 수는 극히 일부이며 적어도 15만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국내 도난 문화재의 해외 밀반출도 계속되고 있다. 1984년부터 도난 · 도굴당한 불교문화재는 316건에 총 453점.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7점에 불과했으나 비지정 문화재는 429점으로 9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건수는 1997년과 1998년 두 해 동안 2천여점이 도난 · 도굴된 반면 1999년에는 60점에 그쳐 감소 추세로 나타났으나, 밀반출 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일본. 전체 유출 문화재의 절반에 가까운 3만4천157점이 국립도쿄미술관과 덴리대(天理大) 도서관, 민예관 등에 있으며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1천여점이 넘는다. 이들 대다수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반출된 것들이다.

그중 도쿄 네즈미술관은 한국의 부도, 국보급 불화 '아미타여래도(阿彌陀如來圖)', 고려청자 등 한국과 아시아에서 약탈하거나 사들인 문화재 7,000여점이 소장돼 있다.

또 일본 덴리대와 모아미술관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고려시대 불화인 '수월관음도'를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일본 다음으로 우리 문화재가 많은 곳은 미국으로 스미소니언박물관과 보스턴미술관, 호놀룰루미술관 등에 1만 5천여점이 있다.

보스턴미술관에는 신라시대 걸작품인 '금동약사여래입상'과 11세기 은제도금 주전자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는 국립파리도서관은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소장하고 있다.

영국 국립박물관과 네덜란드 국립암스테르담박물관에 있는 고려시대 나전국화문경상 또한 진귀한 문화재 중 하나. 조선말 빼어난 풍속화가 기산 김준근의 작품 1천여점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지의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환수 대책은?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경로는, 정부간 협상(일본과의 문화재 반환협정 등), 외국 정부의 기증(1993년 한 · 불 정상회담), 민간인들의 기증 그리고 외국 경매시장에서의 구입 등으로 분류된다.

이는 유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해외의 문화재 반환 사례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3년 한 · 불 정상회담 시 외규장각 고서 1점을 상징적,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에 되돌려 준다고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국가 간 회담이나 정부 부처간 외교 시 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환매조건부 외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목원대 김정동 교수는 "우리 문화재는 일본에서 버려지거나 숨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출 문화재는 창고에 수장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힘들다. 따라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투자 △국가 간 외교협상 △개인 소장 문화재에 대한 전략적 접근 △현지 시장에서 매입 △현지 홍보관 설치 등이 있다.

日-美-英 順 20개국에 7만5천점 빠져 나가

절반이 일본에 소장… 국보만 1천점 넘어

밀반출 문화재 소재 · 가치파악 등 어려워

국가간 협상 시간 오래 걸리고 타결 어려워

정부, 민간단체에 재정 · 전문인력 지원해야

개인소장 문화재 '기증' 방안 모색도 중요

해외 유출 문화재 중 1/3정도가 불교관련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불교계 단체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불교계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재정적인 투자와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과 자연스러운 환수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략인 것이다.

또 불법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위해 2007년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불법문화재 반환추진 정부간 위원회 국내유치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개인이나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도쿄 국립박물관의 오쿠라 컬렉션은 일본군납업자였던 오쿠라가 우리나라의 고분, 석탑, 석상, 고서 등을 약탈해 소장하고 있던 1,000여점의 문화재를 1982년에 도쿄대에 기증한 것으로 그중 상당수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쿠라 컬렉션 이외에도 일본에 있는 문화유산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소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라면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연스러운 기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958년 한 · 일 정부간 회담으로 '창녕 교동고분군 출토품' 106점을 시작으로 1996년 일본 야마구치여대의 '데라우치 문고' 경남대 기증과 지난해 10월 '북관대첩비', 올 2월 후지즈카 아키나오 교수의 추사 김정희 유적품 기증 등의 사례가 있다.

1996년 데라우치 문고를 반환받은 경남대 박재규 총장은 "정부차원의 환수사업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 및 기관간 교류에 의한 자연스러운 기증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외 유출 문화재 중 상당수는 외국의 박물관에서 적절한 조사나 평가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전시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유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외국박물관에 한국 문화재 홍보관 설치를 유도하고,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훼손되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협력으로 이를 수리해 주인의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자는 것이다.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세계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의 문화적 역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반환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며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 세계적인 박물관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현지의 시장과 경매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출 문화재 기금'을 설립해 세계적인 경매장에 출품되는 중국 고미술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물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1년 예산이 100억원 정도로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해외 유출 문화재 반환에 대해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종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해외로 유출된 불교 관련 문화재를 찾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간사 혜문 스님은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방안은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하고, 반환 회수 운동은 정부와 민간이 다양하게 접근하되 민간이 전면에서 나서고 정부는 각종 제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스님은 또 "우리 것 돌려달라는 식으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단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등이 유기적인 정보네트워크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종도들은 영축총림 통도사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 큰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자장율사의 개산 이래 그 법맥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심각한 내홍과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월하대종사의 열반 이후 임회와 산중총회를 거쳐 새로운 방장 큰스님을 모신 바 있지만 중앙종회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방장 후보 큰스님의 뜻과 상관없이 '방장 후보 사퇴'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혼란이 가중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총림의 혼란을 책임져야할 주지 스님이 임기를 다하고도 무리하게 직무대행을 이어가면서 통도사 대중들과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한국불교를 대표해온 영축총림 통도사를 더욱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대중의 일원이자, 수행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누를 수가 없으며 사부대중께 가슴속 깊이 참회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사부대중께서 주지하고 있듯이 종헌?종법 상 총림의 주지는 방장 큰스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나, 월하 대종사 열반 이후 방장을 추대하지 못한 통도사의 경우 총무원장 스님이 주지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총무원에서 임명되는 주지직무대행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스님이 선임되어 대중의 공의를 모아 산중의 갈등을 중재해야합니다. 또한 대중의 의견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해야합니다.

그러나 통도사 문제는 주지 임기를 다한 현문스님에게 총무원에서 직무대행을 세 번이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습되기는커녕 갈등은 증폭되고 내부 혼란은 가중되어 총림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현문스님의 개인적 자질을 떠나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통도사 다수 대중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대 지난 1일 총무원은 통도사 대중의 여론과 달리 종단 내 이해관계에 천착하여 현문스님에게 네 번째 주지직무대행 소임을 맡김으로서 통도사 대중의 갈등은 심화되고 그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위기가 장기화 될수록 한국불교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좀 더 냉정하고 대승적인 상황 판단이 있었다면, 통도사 원로 스님들을 비롯하여 중진스님들의 공의를 모아내는 진지한 과정만 거쳤다면 이와 같은 소모적인 갈등과 위기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원장 스님과 통도사 원로스님, 중진스님 그리고 통도사 대중스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번째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비공개로 전해야할 만큼 통도사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불신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이 시점일수록 어느 때 보다 냉정한 성찰과 진지한 고민이 모색되어야할 시기입니다.

한 개인의 책임이나 허물을 탓하기보다 자정하지 못한 지난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지고 위기를 딛고 화합할 수 있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총무원장스님과 통도사 원로스님들께 총림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간청 드립니다. 이모임을 통해 방장 추대와 주지 문제 등을 종도들의 입장에서 논의해주시길 호소하며, 총림을 정상화시킨다는 대승적 판단 아래 중지(衆智)된 의견에 대해 겸허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수많은 시련을 대중의 지혜로 극복해왔듯이 현하 통도사의 해결을 위해 좋은 방안과 의견이 있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부디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국불교의 큰 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통도사 원로스님들과 대중스님들은 수희 동참하시어 경책해주시길 호소합니다.

불기 2550년 6월 9일

통도사 종회의원 도문, 인산, 정호, 정안 합장

상생 일깨우는 문화의 場 되길

지율 스님, 카페 '공간초록' 7월 중순 문열어

'도롱뇽 소송'이 끝이 났다. 그러나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사랑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을 맞고 있다. 지율 스님과 천성산 지키기 운동을 함께 해온 이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초록의 공명>을 울러 퍼지게 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공간초록(가칭)'. 빠르면 7월 중순경 문을 연다. 부산교대 앞 한옥을 회원들이 직접 수리해 꾸민다.

그동안 천성산 운동을 함께 해온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터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화의 장이 도심 한가운데 문을 여는 것이다.

천성산 터널 관통을 반대하면서 지율 스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개발 반대론이 아닌 생명의 가치였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성과 순수한 감성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스님은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람들이 천성산 운동의 실패를 얘기할 때, 오히려 이 운동의 확산을 꿈꾸며 공감과 교류의 공간을 열 생각을 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부산의 거처를 정리하고 영덕의 토굴로 들어갔던 스님은 '공간초록' 준비를 위해 다시 부산에 왔다. 아직도 단식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뜻을 함께 하는 운영위원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많은 이들이 흔쾌히 동참했고 앞으로 월 1만원의 회비를 낼 회원도 모집한다. 생명의 가치, 자연의 가치를 알려내는 공간의 주인을 찾는 셈이다.

천성산 사진展 등 자율 프로그램 운영
홈피도 정비, 일반인 위한 쉼터 될 전망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이 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지만 카페의 진정한 주인은 일반 시민들이다. 앞으로 이 카페는 천성산 지키기 운동에 함께 해 왔던 사진작가, 영상전문가, 교사, 교수, 화가, 환경운동가 등 많은 이들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에게 선보이며 공간을 개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상영, 천성산 사계 사진전, 지율 스님의 운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사진에 담아온 사진작가 이희섭 선생의 사진전 등 벌써부터 알찬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는 공적 개념의 이 카페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언제든 찾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 도심 한가운데 마련되는 '공간초록' 카페와 함께 스님이 또 한 가지 공을 들여 준비중인 공간이 있다. 바로 온라인상에 마련될 초록의 공명 카페(http://www. chorok.org). 천성산 홈피에서 천성산 운동 경과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천성산 유량조사단 활동과 스님의 영덕 토굴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스님이 직접 파괴되고 있는 국토의 현장을 가본 후 쓴 '길에서 쓰는 편지' 등으로 천성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삶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섰던 시간동안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천성산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공간이 우리 사회가 아파하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남성중창단 '청공'

금산사 후원 창단연주회



6월 1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젊은 불자 성악가들로 구성된 청공(晴空) 남성중창단(단장 정성민)이 드디어 창단연주회를 가졌다(사진). 2004년 1월 출범했으니 2년 6개월만이다.

이날 창단연주회의 주제는 '대중 속으로'. 지은아 부산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친근한 해설과 피아노 김연주 씨의 피아노 반주로 오페라, 찬불가뿐 아니라 '눈물 젖은 두만강' '빈대떡 신사' '마징가 Z' 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선곡과 톡톡 튀는 무대 구성으로 객석을 압도했다. 이 밖에도 대행스님 선시의 '공놀이' '대장부' 강연화 작사 작곡의 '기원', '발원문' 등 최근 작곡된 찬불가를 선보여 불교음악의 대중화에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산사 주지 무유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찬불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불교음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닿는데 까지 후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홍순원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올 5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이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개방됐다.

9층 옥상에 울산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용 망원경을 설치하고 8층에는 카페를 만들어 차를 마실 수 있게 꾸며놓았다.

또한 6월 5일 문을 연 20평 남짓한 추억만들기 코너에는 연한이 다한 경찰차와 싸이카를 어린이들이 경찰제복을 입고 직접 조작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꾸몄다. 경찰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까지 만들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불어온 이 바람은 모두 홍순원(58)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생긴 변화다. 경찰청 개방을 결심한 이유는 경찰청의 위치가 너무 좋아 혼자만 누리기엔 시민들에게 죄송해서란다. 홍청장의 평소 지론인 '시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울산 경찰이 되자'는 구호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경찰청내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울산 경찰 조직 내에도 자연스럽게 전달돼 "부정과 인권유린을 했던 선배들의 업보가 후배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늘이 감동할 수 있는 정성 치안' '장인의 혼이 담긴 사건 수사'로 시민에 보은하자"는 홍청장의 말에 힘이 실리며 울산 경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심 돈독한 불자인 홍 청장은 "종교나 경찰의 공통점은 사회가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릇된 길로 가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홍 청장은 불교 현장에서 뛰지는 않지만 불교에서 펼치는 복지나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다.

부임한지 2개월 남짓한 시점에 치러진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봉축 기간동안에는 울산지방경찰청 역사상 처음으로 울산시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대형 연등 두 개가 출입구에 불을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 내에 마련된 법당에서는 200여 명이 모여 합동 법회도 열었다.

경찰청 옥상에 설치한 포토존 인기 만점
봉축 기간 연등 걸고 시민들과 함께 법회도

또한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무료 급식을 돕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나들이에는 싸이카로 안전한 여행을 선도하기도 한다. 이는 '대한노인회'의 명칭을 '대한어르신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해온 홍청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어디든 부임하면 제일 먼저 경로당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할 정도.

홍청장은 "종교나 경찰이나 수직적 조직보다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횡적 연대를 펼쳐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늘 새기며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불심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흔들리지 않는 일념으로 정진"

범어사 지장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입제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6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리는 지장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입제법회를 6월 1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입제법회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구름이 해를 가리듯 인간의 욕망이 불성을 가리고 있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욕망을 걷어내고 불성을 보려면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일념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이미 부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끊임없는 정진으로 한국불교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오전 10시 지장기도를 시작으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의 인사말,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의 입재 법문 순으로 봉행됐다.

고승대법회는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의 입재 법문에 이어 6월 23일에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의 초재 법문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씩 봉행된다.

암도 스님(7월 3일),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7월 13일), 미륵사 주지 백운 스님(7월 23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8월 2일),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8월 12일),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8월 22일),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9월 1일),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9월 11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9월 22일)이 법문한다. (051)508-3636 이은아 기자

日 차법시연, 명차품평대회 등 다채

부산국제차문화대전 벡스코에서 14~18일

부산 국제차문화대전추진위원회 주최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차문화대전 2006'이 14일 오후 3시 개막식을 가졌다.



부산 국제차문화대전 참가자들의 시음 모습.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예능보유자인 송순섭 선생의 판소리 공연과 해운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부산국제차문화대전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차인들로 성황을 이뤘다.

대회장 여연 스님은 대회사에서 "한국차와 차문화가 차인들에서 더 나아가 일반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국제차문화인들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 차문화 발전에 새로운 획을 긋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현채 추진위원회 본부장의 헌향, 김대철 상임추진위원장의 헌화와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정영호 한국다도협회 이사장의 헌다로 이어진 헌다의식에 이어 내빈 33인 진다례 의식과 삼성궁 전통무예 시범으로 개막식을 마쳤다.

부산국제차문화대전은 18일까지 사생대회, 차례 시연, 세계명차품평대회, 차 만들기, 가루차 시연, 김성녀의 작은 음악회, 차문화 특강 '차와 예절', 일본 15대심수관가 차법시연, 일본 오모데센께 차법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9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6월 9일 고심정사 2층 불교대학 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고심정사 주지 원택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제1부 창립 총회는 경과보고, 회칙 확정 및 임원단 선출 및 소개, 축사, 회장인사,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동균 공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중심도시라고 자부하는 부산에서 창립된 학회이니 만큼 더욱 내실 있는 학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5월 26일 전체 임원단 회의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던 강동균(동아대) 교수, 김용환(부산대) 교수, 일본 스에키 후미히코(동경대) 교수, 중국 웨이 따오위(북경대) 교수가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장성욱(인제대) 교수는 총무를 맡아 학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이어 열린 2부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불교와 근현대사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천미희 기자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여시아문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간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몽골에 희망 심다

한몽불교협, 현지서 불교유치원 기공식


한몽불교교류협 이사장 지성스님(맨 왼쪽)이 몽골 울란바토르시 3000평 대지에 들어서는 몽골 최초의 한국불교계 유치원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제공=한몽불교교류협회

1000여명에 의료봉사도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와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행회인 영불회(회장 이동철) 회원 40여명은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몽골 현지를 방문해 몽골 불교의 재건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돌아왔다.

국경을 넘어선 우리나라 불자들의 자비실천행은 몽골건국 800주년을 맞은 해에 부처님오신 날(몽골에서는 6월 11일)을 앞두고 펼쳐져 의미를 한층 더했으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이다.

특히 영남대학병원의 교수 6명을 포함한 34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영불회의 무료의료봉사활동은 몽골의 중앙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몽골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몽골불교총무원장 초이참츠 스님까지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다.

영불회의 의료봉사활동은 내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치과 등 분야별로 진행됐는데 이틀간 1000여명이 넘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몽골 의료진이 함께 진료에 동참해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보고 익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의료봉사활동 둘째 날에는 의료기술이 앞선 한국 의료진의 특별진료를 받기 위한 일반 고소득 주민까지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다. 영불회는 이틀간의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3개월 전부터 몽골대학의 한국어과 학생 15명을 섭외해 통역을 준비하고, 몽골지역주민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의 유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의약품 1500만원 어치를 준비하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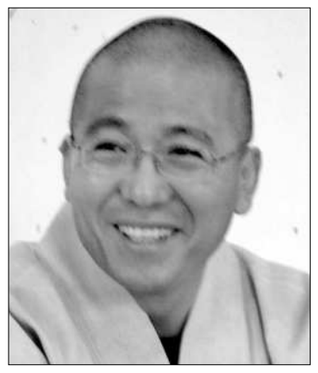
한편 한국불교계가 건립하는 몽골 최초의 불교유치원 기공식은 한몽불교교류협회 이사장 지성 스님과 윤완묵 부회장 몽골불교 총무원장 초이참츠 스님, 울란바토르시 바트바야르 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자이산 국립공원 내의 3000평 대지 위에 들어서는 불교 유치원은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의 지원을 받아 원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몽골의 대표사찰 간단사가 운영하게 된다. (사)한몽불교교류협회는 건축성과에 따라 1차 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점차적으로 지원하고 건립 후 운영을 위한 유치원교사의 파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한몽불교교류협회 이사장 지성 스님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몽골불교에 큰 희망을 주고 왔다"며 "유치원 건립공사를 위해 500만원을 찬조해 준 석우회원 스님들께 특히 감사드리고,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화합을 원칙으로 최선"


17일 취임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interview

"동화사내 여러 문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적승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운영이 어려울수록 원칙을 갖고 대중의 합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를 품고, 100여개의 말사를 거느린 교구본사에 40대의 젊은 스님이 수장으로 오른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불교계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6월 17일 진산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교구운영에 있어 화합과 원칙 그리고 합의가 키워드임을 강조했다.

허운 스님은 합의 추대를 이루지 못한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며 또 "후유증을 해소할 길은 공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사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화사의 총림 지정에 대해서는 "동화사의 총림요건은 형성됐다, 시절인연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으며, 교구내 특별사찰을 지정해 운영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 교구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색을 꾀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찰을 수행과 전법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나눠볼 때 동화사는 수행공간이 많은 반면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수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말사 중 주변 환경과 역사, 위치 등이 좋은 곳을 특별사찰로 지정해 특색있게 운영함으로서 동화사의 기능을 분산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은 "템플스테이처럼 농촌, 명상, 종교,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둔다면 불자들의 많은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운 스님은 교구분담금 운영에 대한 방안도 밝혔다. "말사의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교구분담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교구분담금을 다시 그 지역 불교를 활성화하는데 환원하고 있는 해인사의 운영형태를 따르거나 교구를 위해 재투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또,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 신행단체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임기로 인한 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하기 어렵다는 공찰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공과를 분명히 해서 가람수호의 역할이 인정될 때 문중에 상관없이 말사의 운영 기회를 주는 것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상 쉽지는 않지만 구역마다 포교당을 늘려 지역 포교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젊은 스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동화사 교구 운영에 대한 기대가 교계 안팎에서 증가하고 있어 매일 곶감을 빼먹는 기분으로 산다"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은 허운 스님은 "진산식 이후 시간을 갖고 지역불교의 중심사찰로, 지역민과 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찰로 차근차근 다져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애정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수행 · 전법기능 효율적 운영…총림요건 충분"

특별사찰 지정, 50여 신행단체 활성화 모색

장기적 계획보다 주민 위한 알찬 방안 구상

"지혜 · 자비 화두로 종단 발전 이룰 것"

경묵 스님 태고종 초대 대구교구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대구교구 초대종무원장 경묵 스님(사진 오른쪽) 취임식이 6월 14일 대구 진석타워에서 거행됐다. 대구교구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등 지역 각 종단 대표, 태고종 대구교구 스님과 신도 250여명이 참석했다.

경묵 스님은 취임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긴 것은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며 종단의 발전과 종도간의 화합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묵 스님은 1960년 대구 통천사에서 사미계를, 1969년 파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파계사 3하안거를 성만하고, 선암사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1972년에 대구 견불사 주지로 취임한 후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종회의원, 감사위원, 총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 중앙사정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한편, 경북교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경북왜관복지회관에서 법운 스님의 종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내가 직접 지키겠다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나선 전국의 문화재 지킴이 250여명이 경주에 모였다.

'제2회 1문화재 1지킴이 전국대회'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주최, (사)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 주관으로 열린 것이다.

이들은 초 · 중 · 고등학생과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내 고장 문화재 알고, 찾고, 가꾸기' 활동의 으뜸을 가려 뽑는 '으뜸 문화재지킴이 대축제(기간:2006.6.10~9.10)' 선포식을 갖고,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한 안동대 임재해 교수의 특강과 우수활동사례발표 등을 통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경험과 성과, 과제를 논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외국인노동자 쉼터 마련

11일, 대구 보현의 집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 보현의 집이 법사 소바나 스님의 요사채 겸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로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 6월 11일 조촐한 집들이행사를 가졌다.

소바나 스님의 건의에 따라 마련된 쉼터는 25평 남짓한 규모지만 스님이 거처할 요사채 1칸과 방1칸, 거실, 공양간, 세면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제든 스님을 찾아와 상담을 나누고, 쉬었다 갈 수 있게 됐다.

배지선 기자

공불련, 해인사서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는 제6차 합동수계법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해인사에서 개최했다.

제13차 성지순례를 겸해 모인 공무원불자회는 10일 입제식을 갖고 저녁9시부터 보광전 철야정진기도에 들어갔다. 500여명의 공무원불자들은 11일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대적광전에서 수계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위한 정보화교육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정보화 교육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급과정으로 열리는 컴퓨터 기초는 7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워드프로세서 중급은 7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포토샵 7.0 교육과정도 있다. 장애가족(비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며, 6월 27일 접수 마감한다. (054)633-6415

배지선 기자

건학 100주년 기념 수계법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법혜)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14회 수계대법회를 6월 8일 문무관에서 봉행했다. 경하 현성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열린 수계법회에는 교직원과 학생, 일반인 1800여명이 참여해 재가오계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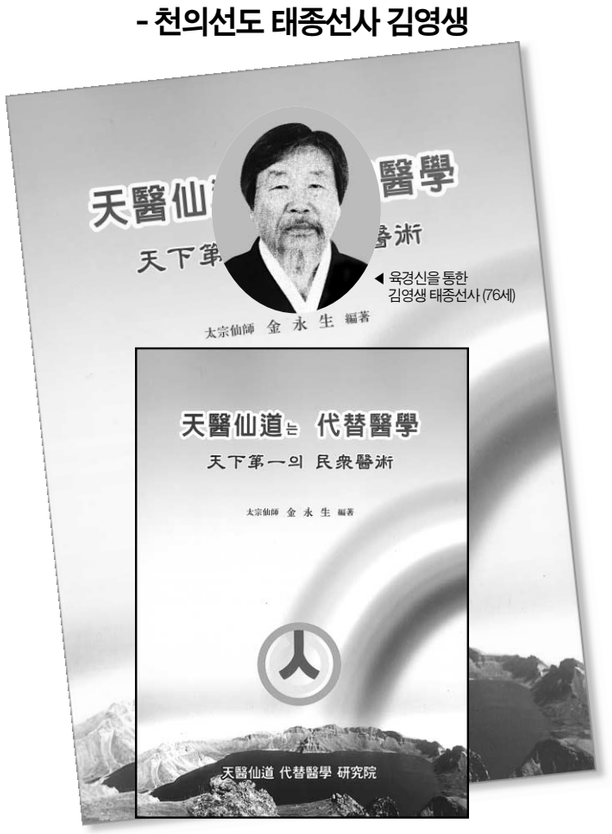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화)가 6월 9일 남구 이천동 센터 내 교육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지도 스님과 이신학 남구청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결혼이민자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대구여성의전화 이두옥 대표 외 5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053)475-2324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광주 전남 불교계

남북 민간교류 앞장

북녘 어린이돕기 · 친환경 농법 지원 등
몽산 · 현지 · 광민 · 행법 스님 등이 주축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6월 12일 친환경 농업기자재를 북한에 보냈다. 환송식 모습.

광주에서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 · 전남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을 맞아 6월 9일부터 옛 전남도청 전시실에서 '북녘어린이 그림전'을 열고 있는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공동대표 행법 스님, 정의행. 이하 불교연대)는 4년째 북녘어린이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6 · 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법 스님은 "당시 북한은 식량난이 어려웠던 때로 어린이들의 배고픈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6차례에 거쳐 어린이 분유 10톤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불교연대는 매주 일요일마다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광장에서 등산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북녘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펴고 있으며, 오는 7월경 콩 우유제조 기계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cafe.daum.net/peacebuddhapia)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상임대표 몽산 스님(대흥사 주지)도 6월 12일 전남대 대강당 앞에서 '키틴분해 미생물제' 등 친환경 농업 기자재 5톤을 화물차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키틴분해 미생물제는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이 2003년 바닷가에 버려진 게 껍질더미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개발한 것으로, 설탕과 섞어 물에서 배양한 뒤 벼, 토마토, 배추, 복숭아, 배 등에 뿌리면 농약을 쓰지 않고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

이날 몽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해남에는 게 껍질이 풍부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북한의 친환경 농법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062-361-8061)

매년 북한에 못자리용 보온비닐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도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지 스님은 지난 4월 3일 광주 전남지역 시도민이 참여해 마련된 통일쌀 55톤과 못자리용 보온 비닐 43톤을 북녘에 보냈다.

현지 스님은 2000년 북한에 못자리보내기 운동에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하면서 북녘동포 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본부 설립을 주도했다.(062-431-0035)

이밖에 광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도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를 맡아 민간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062-363-8200)

이같은 광주 전남 지역 스님들과 불교계의 활발한 남북 민간교류 활동에 대해 정의행 불교연대 공동 대표는 "나눔과 더불어 사는 삶은 불교의 근본이다"며 "불교계에서 더 많은 남북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 전남지부 백혈병 투병 지원금 전달



장기기증과 수술비 지원으로 생명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 · 전남지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6월 12일 화순 전남대병원 원장실에서 '투병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김영진 원장에게 성금 500만원과 학습도구를 전달했다(사진).

이 성금은 지난달 무등산 입구에서 문빈정사와 증심사 신도회가 생명나눔 바자회와 모금활동을 펼쳐 적립된 기금이다.

이날 김영진 원장은 "투병기금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양우석(19세) 군 치료비로 쓰겠다"고 밝혔다.

금년 들어 세 번째 투병기금을 전달한 현장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생명나눔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백혈병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양군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전북포교사단 사업계획 확정

전북포교사단(단장 김혜수)은 6월 10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당에서 '2006년도 총회 및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에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미래불교와 포교사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포교사는 자기수행과 포교를 병행하는 수행자이다"며 "정진하는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수 단장도 인사말에서 "지역적으로 불교세가 약하지만 실천하는 포교사가 되어 지역불교를 일으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포교사단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불교 단체간 교류확대 △월1회 포교사 법회봉행 △포교사 및 가족 수련대회실시 △불우청소년 장학금지급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빛고을 도심포교 원조 원각사

중창불사 회향



대웅전 · 원각루 등 완공
1250佛 부조 장엄미 '일품'
월 100여회 법회 개최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도 심장격인 금남로. 이곳에 자리한 원각사(주지 도제)가 도심 포교 100년을 앞두고 6월 13일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웅전 낙성식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각 사암 스님, 박광태 광주시장, 유태명 동구청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보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빛나는 고을 광주(光州)에 찬란한 금당이 들어섰다"고 증명하고 "법을 전하고 듣는 이 모두가 무위진인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원각의 도량이 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원각사 중창불사는 대웅전(40평), 원각루(70평), 요사채(20평) 건립과 극락전(12평), 솟을문(15평) 복원 등으로 가람을 일신했다.

도심 빌딩 숲 사이에 전통 사찰의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외3포 내5포 팔작지붕으로 근래 보기드문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웅전에 이용된 목재는 서울 조계사에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들어서면서 해체된 덕왕전을 옮겨온 것으로 도심 포교의 정신을 잇고 있다. 내부는 부처님 재세 당시 제자들의 구법정진을 상징하는 1250불을 부조로 장엄했다.

이에 앞서 2년 전 건립된 원각루는 2층 누각으로, 원각사 일주문, 불교회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옛 법당(극락전)과 일주문 역할을 해오던 솟을문을 복원했다.

송광사 광주분원 원각사는 1914년 민가의 재실을 옮겨 도심포교당으로 창건됐다. 12평 작은 법당으로 출범한 당시는 용성, 만해 스님 등 선지식들이 저자거리에 나와 포교에 혼신을 다하던 때였다. 중심가에 위치한 원각사도 자연스럽게 근, 현대 호남불교의 중심이 되어왔다.

원각사 법당에서는 구산 스님을 비롯해 전국의 선지식이 사자후를 토했고,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다. 청년회에서 배출한 불자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원각사는 가히 '불자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 5 · 18 광주민주항쟁 때는 시민군 보호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청년불자들의 민주화 시위활동 거점역할을 했다.

현재 원각사에는 어린이회, 중고등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보현원각봉사단, 합창단, 경전반, 문화교실반 등 각종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월 100여회에 이르는 법회와 강좌가 열리고 있다. (062)223-3168.

"교육 · 신행의 새바람 불 것"

interview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



"도심 포교당은 '포교 발전소'입니다. 우리 신도를 확보하기보다 광주 불교에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찰 문턱을 낮추고, 초심자들을 교육시켜 각자의 재적사찰로 보내 광주불교 전체적인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광주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이 주장하는 도심포교당의 역할론이다. 4년 전 원각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새벽부터 철야정진에 이르기까지 포교 전방에 나섰고, 한편으로는 도량불사에 전념했다.

중창불사를 통해 도심에 나온 이가 쉽게 법당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올곧은 교육과 신행활동으로 실천하는 불자 양성에 힘쓰고있다.

1차 중창불사를 마친 도제 스님은 "광주 금남로에 아시아문화수도 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원각사는 세계적인 불교문화 중심이 될 것"이다며 "세계를 향한 포교를 위해 2차 불사를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충북불교총연합회, 도정발전 기원법회

"한글 배우고 문화 느껴봐요"

화성 용주사, 외국인 근로자에 무료한글교육



경기도 남부의 대표적 사찰인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용주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2만 5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효행교육관에서 무료 한글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후 11시부터 30분간 한국문화강좌도 개설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주사는 한글교육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로 교육강사를 구성했다.

교육강사는 덕본 스님(용주사 포교국장), 권중서(불교문화재 해설 전문포교사)김수희(국제포교사), 홍창화(화성시청 문화홍보과), 이정민(화성시청 건설도시과), 정경숙(서울대 사범대 한국어 지도자 과정), 정수연(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이종숙(문학도)씨 등이다.

참가하는 외국인 근로자교육생에게는 용주사에서 점심 제공 및 만남의 공간도 제공할 방침이다. (031) 234-0040

김원우 기자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는 6월 16일 청주 선프라자 대연회실에서 충북도정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삼귀의례에 이어 공로패 및 표창 수여, 주요 도정보고, 기원문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공 스님이 공로패를, 충북불교총연합회 연복흠 사무국장 등 3명은 도지사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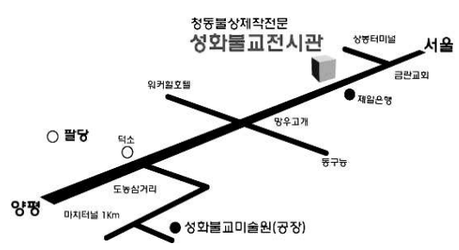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총지종 교세 확장 '올인'

종단특별기획단 발족 … 종책 재정비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종단 특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종단 중흥과 교세 활성화 작업에 팔을 걷어 붙였다.

총지종은 올해로 창종 35돌이 된다. 그러나 총지종의 교세는 창종 당시에 비해 반으로 현격히 줄었다. 이에 총지종은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중앙 통리원과 별개의 독립기구인 종단특별기획단을 6월초 발족했다.

신도 눈높이 맞게 다양한 법회 개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종헌종법 개정
논란 많은 불상봉안 문제 탄력적 운용
승직자 대상 정기 단일집체교육 구상

기획단은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불사법요개정위원회, 종헌종법개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포교홍보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불상봉안문제, 획일화된 법회의식 개정화 작업, 밀교중심의 교리이론에서 벗어나 범불교적인 교리 확대, 예비스승 교육의 체계화, 종도교육의 현대화, 요양원 건립 및 납골당 건립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세 확장을 위해 기획단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불사법요와 종헌종법의 개정이다. 현재 총지종의 법회는 시기나 목적, 용도에 상관없이 똑같은 법요 식순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법회에서는 절이나 법구 사용을 생략한 채 보통 두 시간에 걸쳐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하는 등 획일화된 법회진행으로 신도들에게 다소 지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총지종은 신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법회 개발과 함께 각 법회마다 목적에 맞는 특화된 불사법요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에 꾸려진 불사법요개정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종헌종법과 제반규정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단 발전을 위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했는데 창종 당시 종헌종법을 사용하다보니 법령이 상충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많다. 예를 들면 '이혼자녀나 서출의 자녀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법조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총지종은 기획단의 교육포교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불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총지종 승직자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원체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는 1년에 수차례씩 단일 집체교육을 구상중이다.

일반 교도들의 신행교육도 그동안 너무 어려운 밀교 교리 위주에서 탈피해 신도들의 근기에 맞는 범불교적이고 쉬운 교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할 계획이다.

종단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불상봉안 문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새롭게 건립되는 김해지역 사원에 첫 야외불상을 모시는 방안을 기획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효강 종령은 "총지종은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종단 중흥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몇 년 전부터 기획단 발족을 준비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했다"며 "기획단은 종단중흥과 교세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단특별기획단장에는 우승 통리원장, 지도위원 및 불사법요 개정 위원장에 법공 정사, 지도위원 및 종헌종법 개정위원장에 지성 정사, 지도위원 및 사회복지지도위원에 원송 정사, 지도위원 및 교육, 포교 위원장에 화령 정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주일 기자

캐나다 평화사 7월 1일 개원
천태종 두번째 해외포교당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의 두 번째 해외포교당인 캐나다 평화사(주지 김세운)가 3년간의 긴 불사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개원법회를 갖는다. 천태종은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지는 평화사 개원법회 참석을 위해 6월말 종정 김도용 스님과 주정산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의 임원급 스님 30여명이 토론토를 방문할 예정이다.3년 전 리치먼드힐에 주택을 구입한 평화사는 지난해 말로 개 · 보수작업을 마쳤다. 평화사는 5만여 평의 대지에 180여 평 규모의 법당 건물과 50여 평 규모의 요사체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건물외관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단장해 전통사찰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경기도 일산 황룡사
종단 등록 취소 · 승적 박탈

태고종은 최근 무속행위와 관련해 최근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황룡사에 대해 6월 7일자로 종단 등록을 취소하고 승적을 박탈했다.

또한 태고종은 6월 15일 신촌 봉원사에서 전국종무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종단에 등록된 전국 사찰을 재정비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단행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체계와 감사 등을 통해 황룡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
토지브로커 김모씨 기소

서울 서부지검이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인 신촌 봉원사 토지를 불법 매매해 조계종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최근 서부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고소된 조계종 측 前 주지 성국 스님은 무혐의 처리했다.

조계종은 2월 3일 서대문 봉원사 인근의 봉원동 42-17번지 294평이 불법으로 매매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계종측 현 주지 법안 스님 명의로 성국 스님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에 고소한 바 있다.

조용수 기자



호국 수심사 이전 못해 발동동


부대 진지 구축으로 강원도 양구의 호국 수심사가 헐릴 위기에 처했다.

부대 진지구축, 10월 법당 헐려
예산부족으로 사라질 위기

호우주의보가 내려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6월 14일. 강원도 양구군 원당리에 위치한 산악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한상국 상사가 급하게 영내 법당인 호국 수심사를 찾았다. 법당 건물이 50년 가량 되었고 보수를 못해 천장에 비가 새는 등 관리가 필요해서다. 법당에는 대대 군종병 변상경 상병과 포대 군종병 최종희 상병이 먼저와서 요사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양동이로 받고 있었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겪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텐데…"

군종병들과 인사를 나눈 한 상사는 그나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상단 위 천정이 새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호국 수심사는 1960년 5월 10일 당시 부대장과 간부불자들의 원력으로 당시 취사반으로 쓰던 건평 45평 규모의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대급 법당이라 군법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군종병조차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 추가 업무로 법당 관리를 하고 있어 건물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은 한상국 상사와 일부 간부 불자들이 군종병들과 함께 법회를 보며 법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수 공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부대에 신형 무기가 도입되면서 진지 구축 관계로 올 10월까지 법당이 헐릴 위기에 처해 매주 법당을 찾고 있는 50여 불자 장병은 실의에 빠졌다. 비가 세고 노후화가 된 법당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변상경 군종병은 "일요일이 되면 전우들이 먼저 법당에 가자고 말 할 정도로 법회 시간을 기다린다"며 "그나마 비가 세고 노후화 법당이지만 불평 한번 안하고 법회를 보아왔는데 앞으로 어디에서 법회를 보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부대의 배려로 법당 이전 부지를 선정했고 50평 규모의 법당을 신축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문제는 예산. 공병대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 6천만원은 있어야 법당을 새로 지을 수 있지만 화주자가 없어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앉아 있을 수만 없어 한 상사와 군종병이 주말을 이용해 화주를 다니고 있지만 일반 사찰에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상국 상사는 "수원 정혜사, 서울 삼보정사, 이교재 법사님, 양구 심원사, BBS 교통통신원 등에서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어 겨우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대급 법당이라 사단이나 연대 법당보다 더 열악하지만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에는 더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후원을 당부했다.

매월 4째주 법회 지원을 하고 있는 3군단 김민제 법사는 "장병들의 맑은 눈을 볼 때면 빨리 법당이 신축되어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도 모연을 하고 있지만 뜻있는 불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 201475-01-001421 우체국 호국 수심사 문의 : 010-507-6625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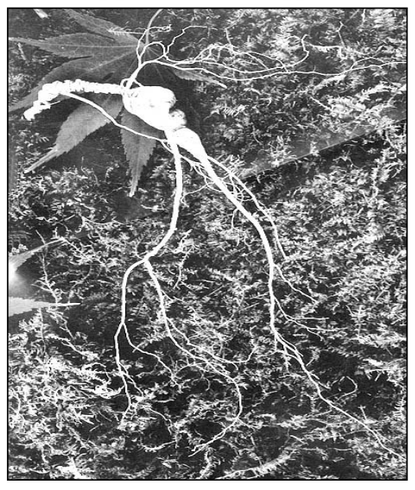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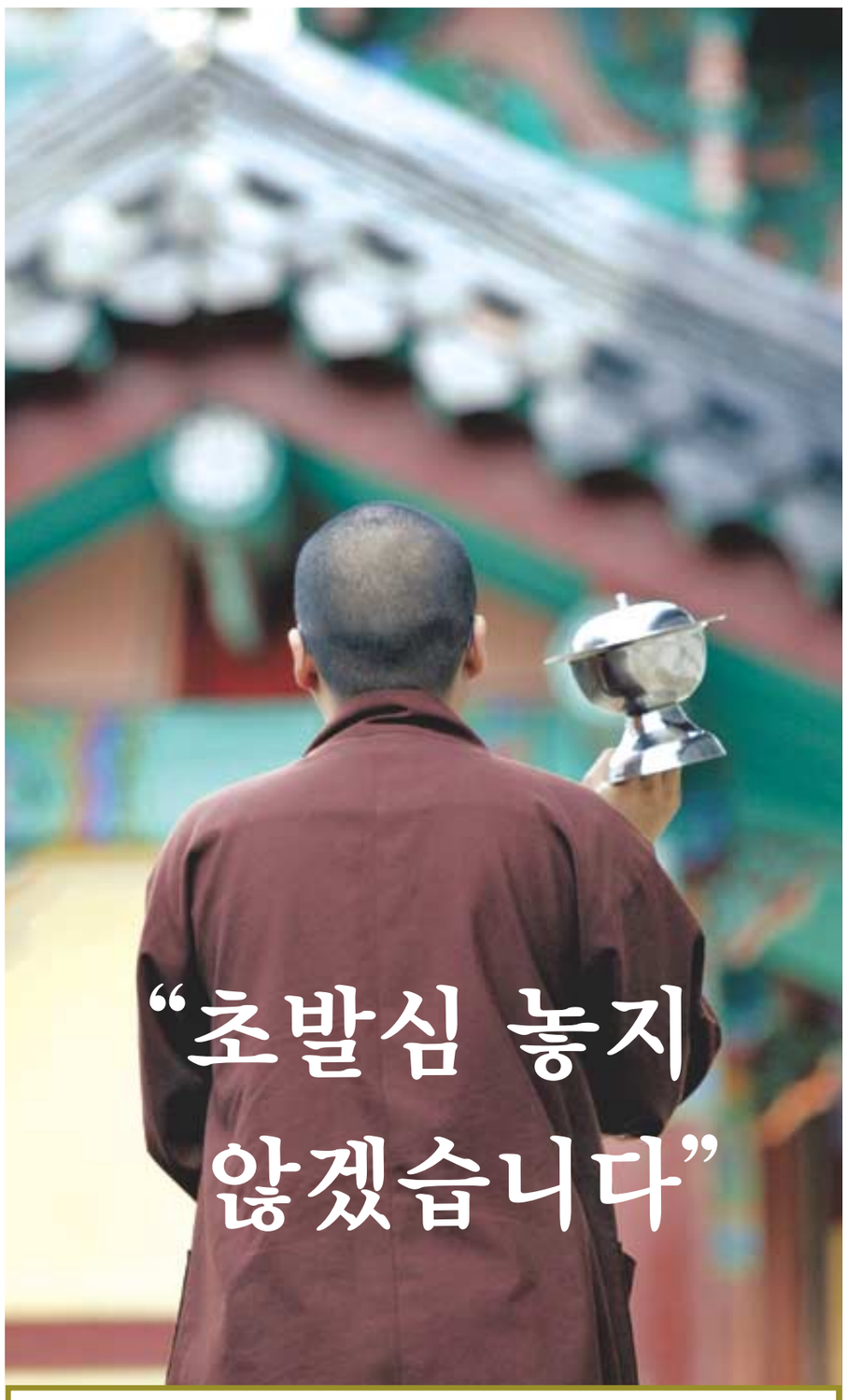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초발심 놓지 않겠습니다"

해인사 행자들의 하루

"둥둥둥-"

온통 바깥세상은 독일 월드컵 열기로 한창인 6월 15일 오전 3시30분, 경남 합천 해인사 행자교육원. 새벽예불을 알리는 스님의 법고 소리가 어두컴컴한 경내에 장엄하게 울려 퍼진다.

곧이어 17명 행자들의 행렬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보경당으로 향한다. 해인사 행자교육원 행자들이다. 새벽 예불을 시작으로 엄격하고 고된 행자교육 일과가 시작된다. 예불이 끝나자마자 행자들은 곧바로 후원(공양간)으로 달려가 대중스님들과 참배객들의 공양을 준비 한다. 이외에도 행자들의 오전 일과는 보통 울력과 자율정진, 점심공양 준비로 채워진다. 오후에는 주로 자습과 휴식이 이어진다. 이후 본격적인 교육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는 태극권과 문화강좌, 시청각 교육, 큰스님 초청법문 등 주로 운동과 교양과목이 짜여져 있다. 또 저녁예불이 끝난 오후 6시부터는 주요교과목인 사미(니)율의,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염불실습 등을 교육한다. 강사스님들도 해인사 출신의 해당과목 전문가 스님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오후 첫 강의는 시청각 교육이다. 도서관에 모인 행자들은 인도불교사를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공부했다. 나른한 오후인데도 행자들의 눈과 귀는 칠판에 걸어놓은 대형 스크린에 고정돼 있었다.

두번째 강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신라 전반기에는 당에서 가장 융성했던 유식 · 화엄 · 밀교가 전래됐지만 후반기가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바로 당나라 중엽 8세기경에 중국선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사 강의를 맡은 각성 스님은 행자들에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그러다보니 졸려도 졸 수가 없다. 언제 질문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도 행자들의 향학열은 최고조에 오른다. 이렇게 8시30분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간단한 세면 후 9시 잠자리에 든다. 행자들이 소화하기엔 빡빡한 일정이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출가자에게 있어 처음 불법 공부의 마음을 냈을 때가 공부를 완성한 깨달음의 자리라는 의미다. 그런데 초발심을 내는 때는 바로 행자시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 일부러 어렵고 고된 일정을 잡는다고 행자교육원 관계자들은 귀띔한다.

출가한 스님은 누구나가 행자 시절을 거치게 된다. 아무리 큰스님들이라 할지라도 시집살이처럼 맵던 행자 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웬만한 노 스님들에게 행자시절을 물으면 청솔가지로 불을 지펴 밥을 짓던 일, 한겨울 뼛속까지 시려오는 계곡물에 걸레 빨아 법당 마루 닦던 일, 서너시간만 자고 용맹정진하던 일 등을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렵던 시절, 환경은 열악했지만 도를 향한 열정만은 무섭게 타오르던 선배 행자들의 얘기는 오늘날의 한결 편해진 여건의 후배 행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정신력과 인내심을 강조한 과거의 스파르타식 행자 교육도 분명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뀐만큼 행자교육도 현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

새벽 3시30분 예불 알리는 법고 소리로 하루 시작
오전엔 공양준비 · 울력, 오후엔 신체단련 · 교양 쌓기
저녁 무렵 사미율의 · 기초교리 배우고 염불실습

해인사 행자교육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행자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이곳의 교육과정은 행자들이 꼭 이수해야 할 주요 기본과목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되 기본 소양 및 교양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인지 해인사 행자교육원 출신 행자 대부분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과정을 쉽게 통과한다. 이런 입소문 탓에 봉선사 등 다른 교구본사에서도 행자 위탁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다. 현재 해인사 행자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행자 17명중 7명이 타본사나 산내 암자에서 온 위탁 교육자들이라는 점이 그 증거다.

속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이병길(48) 행자도 "행자생활은 분명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만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엄격한 가운데서도 강사 스님들의 부드러움과 세심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해인사 행자교육원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녹록지 않은 행자 생활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들의 의욕적인 그 마음자리가 퇴색되지 말고 수행자로서 회향하는 그날까지 깨달음을 향한 구도열정이 계속 어어지길 기대한다.

해인사/글 =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석 예불을 하거나 사시 공양을 올리는 등 장소를 옮겨 습의의식을 치를때마다 행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줄지어 이동한다.



하루 세 차례의 공양준비는 행자들의 몫이다.



행자들이 저녁 예불 후 경전 강의를 듣고 있다.



하루일과 중 가장 즐거운 '도반과의 차담 시간'



하루일과를 마친 오후 9시 행자들은 잠자리에 든다.

수행 · 절생활 기본 배우기

■조계종 행자교육은?

행자(行者)란 스님이 되기 위해 사찰로 출가해 불교의 기초교리와 절생활 등을 익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6개월 이상을 하게 되는 행자 기간에는 각자의 사찰에서 예불 드리는 법에서부터, 도량 내 각종 울력 체험, 초발심자경문, 부처님의 생애, 불교 기초교리 등을 배운다.

6개월 이상의 행자 교육기간이 끝나면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조계종은 90년 이후 1년에 두 번(3월, 9월경)씩 각각 23일간 행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친 행자들은 사미(니)계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해인사가 상설 행자교육원을 만들어 운영하며 행자교육의 체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interview 해인사 행자교육원장 **종본 스님**

"전문강사진 확보, 교육과정 체계화"



"종단의 미래는 올바른 행자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도 불교 전반에 걸쳐 행자들이 참된 수행자로 훌륭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2대 해인사 행자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종본 스님(조계종 종회의원 · 사진)은 행자교육도 현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우선 학력수준이 고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수행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교구본사에 행자교육원이 설립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있는것과 없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인사도 행자교육원 설립이전에는 전문 분야와 상관없이 국장급 스님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했고, 교육도 거의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과과정에 맞춰져 있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종본 스님은 행자교육원이 생긴지 1년밖에 안됐지만 해인사가 한국불교 행자교육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구성하는데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혜안과 배려’ 최고 경영자의 기본

지혜경영연구소 ‘지혜경영자 선정 및 지녀야 할 덕목’ 설문조사



■ 지혜경영이란?

지혜경영연구소는 ‘지혜경영’을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으로 정의한다.
지혜경영은 초심경영, 변화경영, 관계경영, 중도경영, 겸양경영, 수신경영, 문화경영, 도덕경영, 나눔경영, 한마음경영을 모두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경영이다.
손기원 대표는 지혜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손을 움직일 때는 잠재능력의 20~30%를, 머리를 움직이는 지식노동자로 양성하면 40~50%의 잠재능력을, 마음까지 움직인다면 100~120%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02)766-9455~6 www.onwisdom.com

지식경영에서 지혜경영으로 패러다임 변화

스티븐 코비의 말을 빌리자면 21세기는 지혜의 시대이다. 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에서 육바라밀의 여섯 번째 덕목인 지혜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고 단언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분야는 이미 ‘지혜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성품과 철학을 우선시하는 동양적 사고, 그 중에서도 불교철학이 21세기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는 경영커뮤니티연합 회원 211명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지혜경영자 선정 및 지혜경영자가 지녀야할 덕목’에 대한 설문

지혜경영자-잭 웰치 前 GE 회장, 안철수 의장 順
“일부 기업, 불교사상 등에서 새 경영원리 찾아”

결과를 6월 11일 발표했다. 경영커뮤니티연합은 삼성경제연구소 포럼, 커리어포럼, M&A포럼 등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경영관련 11개 커뮤니티이다.

설문 결과, 국내·외 최고 지혜경영자로는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과 잭 웰치 前 GE(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꼽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미 고인이 된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 유일한 前 유한양행 회장, 서두칠 동원시스템즈 부회장이 뒤를 이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스티브 잡스 애플 회장도 ‘베스트 10’ 명단에 올랐다.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잭 웰치 前 GE 회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과 기술보다 인간을 중시한 경영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안철수 의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비전 창출, 미련 없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양 등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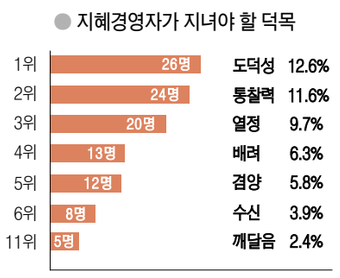
이건희 회장은 인재를 중시한 경영과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前 정주영 회장은 도전정신과 열정, 위기와 시련의 극복, 前 유일한 회장은 사회환원과 나눔 실천, 노사관계 정립 등의 업적이 주된 이유였다.

무엇보다 경영커뮤니티연합 회원들은 ‘베스트 10’ 지혜경영인이 공통적으로 미래예측이 뛰어난 혜안과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배려, 겸양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주관식으로 물은 지혜경영자가 갖춰야할 덕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혜안)이 11.6%(24명)로 2위에 랭크됐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배려) 4위(6.3%), 겸양(겸손) 5위(5.8%), 수신(자기계발) 6위(3.9%) 등 상위 10개 덕목에 포함됐다.

12.6%를 차지한 도덕성은 지혜경영자가 지녀야할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경영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 깨달음(진리)도 5명의 추천을 받아 1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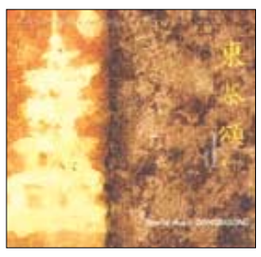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지혜경영연구소는 생산성을 중시하던 경영이 지식경영으로 진화해 온 것처럼 지혜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쟁자에게 이겨야 한다는 경쟁전략과 성장전략으로 일관했던 기업들이 이제 수신과 공동체정신, 도덕과 진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동양사상에서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받는 추세라는 것이다.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는 “서양의 기업 중에서 이미 명상경영을 도입하거나 불교사상 등에서 새로운 경영원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지혜의 시대에 발맞춘 변화”라며 “경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치관과 생활양식, 생존의 법칙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지혜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음반 ‘동다송’



차의 대가 초의선사가 쓴 시집 <동다송>을 음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불교와 함께 시작된 차의 역사를 담은 음반 ‘동다송’은 해금, 대금, 거문고, 장고 등 전통악기와 어코스틱기타, 일렉트릭기타, 신디사이저 등 서양악기가 화음을 이룬 경음악 CD입니다. 음반회사 ‘유라시아의 아침’이 제작한 ‘동다송’은 차맛을 돋구어줄 것입니다. 음반의 자켓은 무송 김장건 화백의 작품.

가격: 12,000원

분다의 경제학 (10)

‘개처럼 벌자’ 주의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는 그 의미를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듣기에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승같이 쓴다’는 말로 ‘개처럼 버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데 이 말이 악용되고 있는 듯해서 씁쓸하다.

물론 개처럼 번다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만 쓰인다면 무슨 문제가 있으랴. 다만 개처럼 번다는 것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태도를 말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떻게 돈을 벌더라도,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바람직한 곳에 돈을 쓴다면, 그 돈을 버는 과정의 모든 비윤리적 행동을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장하다고 박수까지 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들은 돈을 버는 과정에 잘못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좋은 목적으로 쓰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중시하는 현실
이웃에 상처주지는 않았나 생각해야
정승처럼 쓰겠다는 마음, 善業 짓는 것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정승처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번 돈의 양에 만족하고 쓰기 시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돈을 벌고 나서부터 돈을 쓰게 될까?

참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벌만큼 벌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벌만큼 벌었다고 해도 정승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소주 한잔을 마시기 위해 만원을 쓰기는 쉬워도, 불우이웃 돕기에 만원 내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든가?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상처주고 힘들게 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얼마의 자선 행위(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개처럼 돈 버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말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기만해 왔는지. 우리 모두는 개처럼 돈을 벌려는 많은 사람들과 매일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다. ‘개처럼 번다’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표상이다.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 ‘개처럼 벌자 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정승처럼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을 버는 과정이 개처럼 될 수가 없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약 없는 내일의 사랑을 위해 오늘 이웃과 사회를 힘들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처럼 번 사람은 개처럼 쓸 수밖에 없고 정승처럼 번 사람만이 정승처럼 쓸 수 있다.

개처럼 벌더라도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하는 사고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개처럼 번 사람은 결코 정승처럼 쓸 수 없다. 정승처럼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개처럼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작 그 일의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설법하셨다. 우리는 뜻으로 업을 짓는다. 정승처럼 쓰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굳건히 있는 한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과정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비록 많이 못 벌어서 이웃에게 해줄 것이 정작 없더라도 우리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선업(善業)을 짓는 것이다. 정승처럼 일해서 정승처럼 쓰자.

■구병진(경영학 박사)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액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임대하고, 파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 화지에 24K 관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된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타림 산중에 계실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외도를막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빨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 허리,어깨,목,무릎
짝다리, 탈골(만성고질통증), 체형교정사주, 작명, 풍수지리
빙의 (신들림) 출장가능
활법, 기공최면, 전생, 급방 천도 **전문 해결사**
02)835-2399
011-817-3387

신기한 - 약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은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스님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외 각종의식교육)
055)381-1199
055)383-6676

어렵게 사찰불사 창건 하시는 스님께 안내
후불목탱, 신중목탱, 칠성목탱을 스님 사정이 어려워 아직 준비가 안되신 스님은 답사하시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반 값도 안되는 가격에 인연 바람
목탱 평수는 대작임
010-3166-8483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립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공양주보살님 및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 함께 가능합니다
055)381-1199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충남서해안바닷가사찰
041)673-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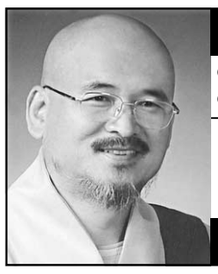
기도스님(비구니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1)293-4569
011-889-1559

조계종 고찰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에서 내집처럼 몸담고 신심있게 살림 맡아볼 40~50대의 공양주 속히 구함
그리고, 본종 비구승과 비구니 스님 40~50대의 수행하며 운영관리할 인연있는 비구, 비구니스님 찾습니다
경북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778-0408

수행 불자 모집
1. 백일기도 혹은 천일기도를 원하시는 불자 및 발심출가하여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불자 남녀 49세 이하 약간명
2. 참선, 염불, 경전, 주력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불자 남녀 약간명
3. 수행하며 공양주, 법당화주도 하고 정진하실 불자 49세 이하 약간명
대구 팔공산 신라천년 고찰 국보성지도량
011-9176-4403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 의 010-7302-00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악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연수원 매각 공고
◈ 위치 :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소재
◈ 면적 : 부지 9만3천평, 대지 2만평, 건평 2500평
◈ 가격 : 85억
◈ 교통 : 경부고속도로 목천IC에서 15분거리
중부고속도로 진천IC에서 18분거리
신행정수도에서 20분거리
충주공항 25분거리
서울한남IC에서 1시간30분거리
◈ 특징 : 뒷산 경관이 아름답고
등산로 산책로로 활용가능
뒷산에 각종 암자, 기도원, 10개 건축 가능
◈ 용도 : 각종 연수원 사찰, 기도원, 실버타운,
요양병원, 대학설립 가능
현 청소년수련시설 및 연수원으로 활용중
◈ 1차 전화상담후 현지방문가능



상담전화 : 011-402-7565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독일 월드컵 기간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합니다
한국선수들의 승리를 위한 성원으로 대불정능엄신주를 독송기도하오니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동참하십시오.
대불정능엄신주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 야 기 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치매예방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 · 김해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 ● 위치 : 경북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법당 : 15평 ● 법당 : 18평
● 요사 : 80평 ● 요사 : 30평 ● 요사 : 25평
● 부지 : 650평 ● 부지 : 130평 ● 부지 : 195평
● 가액 : 3억5천 ● 가액 : 1억3천 (즉시법회,도심속산사) ● 가액 : 4억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2.서대문포교당45-월110
3.봉천동포교당40평-월85
4.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5.강남GB 500평부지-14억
6.운영필요한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 10분거리)
● 법당1. 칠성각1. 산신각1. 요사채2 전 500평 포함
● 가액 : 2억5천(절충가능)
011-9029-7113

포교원안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경남산청 (진주1시간, 서울3시간반)
● 임야15000여평, 부지1000여평
● 법당과 황토선방과 현대식 요사채4동, 전기 도로연결, 청정계곡과 소나무들이
● 선풍을드날리는 참선기도도량 4억2천만원
011-312-2936
010-3852-57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33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55평 ● 요사 : 30평
● 가액 : 9억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5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디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에서 10분거리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3천만원
● 6월말까지 인수하실분
019-692-2222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충남 온양(터미널 부근)
● 평수 : 대지60평
● 건물25평 방2개 법당
● 가액 : 합 2500만원 (전세1700만원, 시설비800만원)
010-8519-0853
041)533-0853

사찰, 포교당 적지 안내
● 위치: 종로구 평창동
● 평수 181평, 건평 120평
● 3층건물 엘레베이터 有 정자, 주차시설 가능
※현재까지 양로원으로 사용하였으나 확장이전 관계로 안내함
● 가액 : 18억원
011-441-1966
02)3216-0572

위치	부지	가액
• 서울	80평	4억
• 경남	100평	3억2천
• 양평	약 2천평	13억
• 경기	약 2천평	18억
• 서울국립공원내	약 6백평	5억
• 부산구포	50평 3층 도심포교 최고임	3억2천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700평(종교용지)
● 법당: 20평(목조,단청)
● 요사: 40평 ● 기타: 석탑,석등
● 가액 : 2억9천만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역사깊은 전통사찰임
● 위치: 포항시
● 법당 : 35평 (3포,7포,목조,단청)
● 요사 50평
● 가액 : 6억원
● 특징 : 전통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상가건물 3층건물에 3층
● 건평 50평
● 주방 기구 및 사무집기 시설일체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결정)
010-6244-9111

사찰안내
● 위치: 강릉 IC부근
● 천혜의 소나무 자연조경
● 부지: 5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노천 미륵법당,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2억2천만원(전세可)
011-452-8374
033)644-314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중심가
● 대지 : 203평 현 거래시가 평당 250~260만원정도
● 법당30평,요사채25평,7층탑,5층탑
● 100년이상된 고목 두그루있고 포교적합도량
● 화장실 수세식 4칸,주차 7,8여대 가능
● 주인직접
● 가액 : 사정상(4억3천만원)
010-3133-0018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35평, 4층건물중 3층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 가능
010-8676-692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오곡동 사찰(양옥)
● 신축 5년 법당 26평, 산신당 17평, 요사채 10평
● 아름다운 정원과 좋은 약수물 있음
● 가액 : 3억 6천
011-424-3252 / 042)271-3251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주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센터, 단식원 최적지
● 가액: 2억 2천만원
011-606-1976

포교당안내
● 위치: 전남 해남
● 대지: 150평 건평 30평
● 가액: 5천3백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61)533-9046
011-631-2954

암자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여평
● 건물 5동
● 법당,산신각,주지실, 요사2동,심야보일러
● 가액 : 2억7천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1억4천만원(가격절충가)
010-9405-928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서산 서산 IC 5분거리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980평
● 건물 : 대웅전 명부전, 요사2채
● 가액 : 8억 5천만원
016-342-7777

사찰안내(임법당)
● 위치 : 경기 포천시 대진대학교 옆
● 대지 200평, 법당 60평 시설비 무 방 5칸(공양간 포함) 등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
011-9307-880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로 5분거리
● 대지: 241평 공양간 1층 30평, 법당, 2층 30평, 요사1층 20평, 2층 20평, 3층 창고 15평. 방1개 조립식창고 10평, 임야 1400평
● 가액: 4억 8천(임야포함) 절만 인수시 3억 5천
055)852-2518
011-571-455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선원 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 5층건물 시내 최고 조건
● 건평: 약 2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가격 조정可)
051)293-4569
011-889-155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평수: 15,000평
● 대지 453평
● 석불 3불, 소담집 50평 1동
● 가액 : 7억
016-9559-8889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동
● 4층건물 중 3층(60평)
● 가액: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천5만원(별도) 몸만 오시면 바로 운영 (법회)할수 있습니다
053)981-4439
018-525-7758

사찰 안내 및 임대
● 위치:경북 포항 시내
● 가액: 5억8천만원 전세 3억
011-9572-3735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토지700평,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앉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최고의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구 범1동 진시장 앞
● 평수 20여평방1,법당,공양간 큰욕실 겸 화장실(실내)
● 약사여래불 소불 100불 봉안,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 27만원, 시설비 2100만원
018-293-7075

사찰 안내
● 위치: 정선군 임계면
● 산세수려, 물1급수
● 대웅전 20평, 행랑채,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차고, 총 2312평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 융자포함 3억 5천
033) 562-3053
011-9793-70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평수: 80평
● 5층 건물 중 4층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1) 333-5536
010-2582-533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요사채. 황토방
● 국도 2차선 100미터 밑 계곡 옆 옆산 사용가
● 정원수 및 각종 유실수 옆에 7천 그루 총 3,700평 실버 및 사회 복지,보시원 가능함
● 가액: 평당 6만 5천원
017-813-9126

구합니다
사찰, 암자
전세나 월세
▷ 지역 관계 없음
010-8828-300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 건평 200평, 방2개 입식주방, 기름 및 연탄보일러 겸용
● 창고, 텃밭 150평
● 가액: 1천 5백만원
054) 632-9311
054) 552-66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불교대학 하시고 싶은 분도 아주 적합한 위치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토굴 안내
● 위치: 경북 구미 우보면
● 대지 169평, 건평 20평
● 인법당. 마을 끝집, 집뒤 야산 비구니스님 공부터로 적합
● 가액 : 3천 3백원
010-6399-5012
054) 383-8553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서구 상업지역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20년된 사찰
● 가액 : 답사 후 결정 1억 5천만원짜리를 인연있는 분께 싸게 드립니다.
010-7777-85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대지: 235평
● 법당 20평, 요사 18평
● 현대식건물 법당 동향, 요사채 남향 (요사채 가전제품 완비) 언제나 오셔서 법회 가능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1-879-75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원평동
● 법당 2층 건물 2층(9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
010-8646-4899

조용한 촌집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115평
● 법당: 17평
● 가액 : 3천 8백 만원
054) 974-0456
018-543-0108

조그만 암자나 시골집과 교환하고 싶습니다
(차가 없어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 위치 : 부산시 서대신동
● 연립 3층, 방3개, 2층
● 가액 : 5천 5백만원 (웃돈 있습니다)
011-9529-7424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055)232-7151
011-599-8476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도심 포교원 (최고의 시설)
● 위치: 부산 온천동 시장 앞 2층 건물 중 2층
● 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611-0384
051) 582-0384

좋은 因緣을 찾습니다
● 위치: 경남 고성 시내에서 10분거리 (녹차 100평 10년 수령) 백두대간 남해바다에 핏줄은 300만평 숲속
● 내용: 종교부지 300평 (법당 30, 요사채 30평 기타 건평 8년) 그 외 1,000여평, 봉황이 알을 품은 정남향 명당) (자연경관 흐름따라 황토, 태백산 적송으로 지음, 조경 잘됨) (산책로, 1급 지하 샘물, 산수, 병풍같은 뒷산과 앞산거리 4km
● 바램: 禪院 및 기도처, 수양 요양처로 최적 (고도 250m 뒷산 450m, 앞산 100~600m)
● 가액 : 5억 (상황 따라 절충 가능)
055)674-2202
010-2245-4862

사찰 안내
● 위치: 지리산 중산리 방면
● 실평수 400평, 사용평수 800평, 총평수 1200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2동 (방 5개) 산신각, 용왕당, 건물 5채, 나한전, 주차장 有 산세 수려하고 물 항상 흐름 집기일체
● 가액 : 4억 5천 (절충가능)
011-863-0622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광주 생활권
● 면적: 약 700여평
● 건물 : 법당 1동 20평 (증기 50년 됨)
● 주지실 8평(흙집), 요사 방3개
● 연혁: 약 80여년된 아담한 산속의 고찰 토굴 차 진입 가능
● 가액: 1억
011-288-6668
※ 장난전화하지 맙시다

사 찰 안 내
● 교통 관광 경남일대 최고의 위치
● 위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사천공항에서 20분거리)
● 부지: 약1200평 주차장100여평 잡500여평, 田280여평 매실나무 70여 그루
● 특징: 도로 1.5km 사찰소유 100% 포장 버스운행가능
● 건물: 65평 입법당, 방7개, 부엌2개, 원 황토방, 사찰 뒤 8부 등선 200평 토굴집, 창고2, 비닐하우스
● 가액: 1억8천만원 협값 매매 (주지 교통사고로 운영 불가능)
055)884-0208
011-866-7372

사찰(초암)안내
● 위치: 대구시 논공
● 대지: 400평, 건평: 100평
● 법당: 25평(지장 108, 관음 108)
● 토지임대: 일년사글세 350만원
● 기타시설: 요사채, 토굴(스님방)1채, 석불 12자 석등, 석탑2, 단청, 탱화, 기타완비
● 이전사유: 초하루법회 참가신도가 100명, 총신도가 500명 이상으로 3년만에 대작불사후 확장이전한 영험도량임
● 시설비: 보증금 無/ 초기 시설비는 1억정도이나 인연되시는 스님께 최고 3500만원 미만으로 보시함
● 토지임대사용기간(법당): 무제한 가능함
010-9511-4963

예불문에 불교핵심 담겨 있나?

한국종교학회 주최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학술대회



"현행 예불문은 올바른 인생 교육시스템으로서의 불교 본래 의미를 지닌 새로운 예불문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 교수(사진)는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6월 11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전반기 학술대회에서 예불의 전통적인 내용과 방법을 통한 중층적 접근을 시도해 관심을 모았다.

김종명 교수는 '현대 한국예불의 의미와 구조'란 논문을 통해 '예불의 시공간적 구조' '예불의 내용 구조' '예불의 불교적 · 기능적 · 실천적 의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불교사상과 교리 분야에 예불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양산 통도사의 새벽예불을 중심으로 모색했다.

김 교수는 예불의 실천적 의미 분석을 통해 "현행 예불은 예불문의 암송으로만 이루어질 뿐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응답 및 토론의 기회는 승 · 재가를 막론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통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불은 사회통합기능을 가진다'는 통설에 대해 △예불 참가자 수 △예불진행 방식 등의 실례를 들며 반론을 펼쳤다.

예불의 사회통합기능이란 심성과 규율, 내면과 외면, 개인과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고자 하는 불교의 깨달음을 위한 상징적 의례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전체 인원이 300명에 가까운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대형 사찰에서도 예불에 참가하는 수는 대략 30~50명 미만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예불 본 의례보다 오히려 예불 전 의례에 소요된 시간이 3배 이상 많았고 예불에 참석하는 인원도 노전, 학승, 행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현행 예불의 시간 구성과 그 인적구성으로 볼 때 예불이 한국 승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불교학, 중국 · 일본 종교, 기독교 등 종교를 매개로한 문화콘텐츠 개발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컸다

김종명 교수 '예불은 사회통합 기능한다' 통설 비판

구미래 연구원 "齋物은 종교-민간 역동적 만남의 상징물"

특히 김 교수는 "불교의 핵심사상은 연기설, 사성제, 삼법인 등으로 대표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불문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예불문과 축원문이 대승불교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중생구제와 보살행에 대한 내용보다는 불보살의 가호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해인사 보경당 새벽예불에서의 축원은 망자 축원, 가족 건강, 소원성취 등 신도들의 기원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축원에 소요된 시간만도 20분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윤원철 교수는 "불교의 사상과 교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한 예불문의 해석적 비판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지만 글의 전개에 있어서 현대 한국사찰 전체를 통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일부 사찰에 국한된 자료조사에 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교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물론 예불에 대한 현재의 논쟁들과 각국의 예불문의 특성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었던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교의례 재물(齋物)의 중층적 의미'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은 종교의례에 쓰이는 재물의 유형과 상징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구 연구원은 "재물은 신적 존재에게 바치기 위해 재단에 올리는 공물로 종교와 민간의 역동적 만남을 가능케 하는 상징물"이라며 "이는 의례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재를 올리는 사람의 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례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허남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종교다문화적 특성이 강한 편인데 종교적 진리와 종교의례를 올바로 융합 · 접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의식은 '인간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조선불화 양식-中 수륙화 접목 삼장보살도 탄생

"삼장보살도는 조선시대 불화 양식과 중국의 수륙화가 접목된 독창적 불화임과 동시에 억불숭유 정책 속에서도 불교를 전파시킬 수 있게 한 매개체였다."

서울역사박물관 김정은 연구관은 6월 1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35회 동악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기원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중국 원 · 명시대의 수륙화와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비교 · 분석을 시도했다.

삼장보살도는 지장보살, 천장보살, 지지보살을 한 폭에 담은 불화로 특히 지장보살 신앙을 심화 · 확대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도사, 천은사, 동화사 등의 삼장보살도가 대표적 예다.

노병철 기자

문화재 보존 · 관리 규제대상 18건 관련법 개정 24일 시행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 보존 · 관리에 따른 규제대상 18건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국보 · 보물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을 할 때에는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월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자, 문화재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과 관련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3>

고령화 사회

2020년을 바라보며 국가적으로, 범인류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슈로 고령화사회를 들수 있다. 연령대별 인구분포가 전통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장독대, 혹은 팽이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 즉, 연령 대 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의 수가 많았지만 미래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쪽의 인구분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그리고 20%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 내에 100명 중 10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 환경 그리고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65세 이상이면서도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퇴직 후 30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노는 노인이 생기게 된다.

생물학자들은 노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자에 노화를 기억하는 장치 때문일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생각한다.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의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세포가 분열할 때 마다 짧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세포 유전자는 같은 나이의 사람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짧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세포의 노화를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유해 산소 흡수, 내분비 계통 노화 등도 노화의 원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서 노인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기도 했고 생산적이지 못한 천덕꾸러기로 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은 질병이나 안전 그리고 정체성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과 싸워왔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류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건강하고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사회에 가르침과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사회에 귀감되는 삶의 모델로 만들어야

<반야심경>에서는 무노사, 무노사진이라고 가르친다.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없음도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고령화 사회에 어떠한 길잡이가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늙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공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야 말로 늙음을 사회의 아름다운 지혜의 본질로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6. 23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수료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일주문



조계종 중진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6월 22~23일 도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승랍 30년 이상 대상 중진주지연수를 실시한다. (02)2011-1807~8



문수산악회 6월 산행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25일 문수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소금강 노인봉으로 6월 산행을 떠난다. (033)332-6664~5



제3차 참살림 수행결사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6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봉은사 지장전에서 제3차 참살림 수행결사에 들어간다. (02)3218-4801



새만금 후원의 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공동대표 수경 스님은 6월 26일 오후 4시 대학로 퓨리안에서 '새만금 환경모니터링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선남선녀 인연맺기' 템플스테이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선남선녀 인연맺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초청해 6월 24~25일 보은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043)732-5560



'박물관 탄생' 주제 특강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관장은 6월 24일 오후 2시 박물관 소강당에서 이기동 교수를 초청, '한국 근현대사와 박물관의 탄생' 주제 특강을 연다. (02)2077-9000



신봉승 작가 초청강연회 개최

동국포럼 정재철 이사장은 6월 21일 오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봉승 작가 초청강연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개최한다. (02)734-7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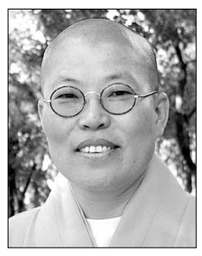


국제포교를 위한 후원의 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김봉래 회장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국제포교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2-2206

"중국포교의 선율 기대하세요"

베이징 한국법당 만월사 첫 지도법사 진명 스님



불교방송에서 7년 간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 편안한 목소리로 불자들의 인기를 모았던 진명 스님(사진)이 이제는 중국에 한국불교를 꽃피우기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

6월 11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열린 합동수계법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베이징 만월사 지도법사에 임명된 진명 스님은 "내 인연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명 스님은 종단이 중국에 파견하는 첫 정식 지도법사. 이번 위촉은 외국인에 대한 종교집회 규제 정책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행생활을 해 왔던 재중 한인불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진명 스님은 우선 거사회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사님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파악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만월사는 조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만월사는 베이징 한인불자들의 '개미역사'로 만들어진 곳"이라며 "내 힘은 미약지만 만월사 불자들의 개미역사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명 스님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도 한국불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월사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더불어 "한인불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현지인을 찾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서 보시사상을 실천하는 참 보살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공동취재단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마련할 터

불교상담개발원 초대 사무총장 권경희씨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에는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공간이 있지만 불교계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비의전화'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초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권경희씨(사진)의 포부가 당차다.



6월 14일 임명된 권 사무총장은 "'자비의 전화' 상표등록과 네트워크 조직,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상담인력 양상을 위한 상담불교대학 설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BBS '거룩한 만남' 새 진행자 지언 스님



"항상 환우 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도와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하며 방송하지요."

지난 5월부터 새롭게 BBS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의 진행을 맡은 지언 스님(사진). 스님은 매회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 "제가 가진 힘은 작고, 도와야 할 상대는 너무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힘은 작지만 나누면 큰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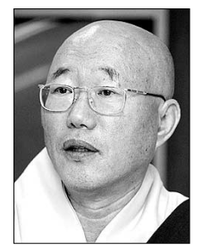
그럴 때마다 스님은 스님이 맡고 있는 일을 상기한다. 경기도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한 지언 스님은 "복지관에서 만나왔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떠올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나눠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한다"고 밝혔다.

지언 스님이 '거룩한 만남'을 담당한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일도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제휴해 매달 한 명의 환우를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추천받아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5월 19일에는 2급 시각장애인이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정태진(22)씨를 첫 환우로 소개했다.

이은비 기자

원택 스님 영상제작 솜씨 '세계적'

UNICA 페스티벌서 '한국서민…'으로 대상 수상



"큰스님께서 정진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배운 촬영기술이 영화제에서 대상까지 받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원택 스님(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사진)이 6월 3일 구리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열린 UNICA(세계비상업영화기구) KOREA 페스티벌에서 '한국 서민들의 옛집'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초가집과 너와집 등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 담긴 의미와 예술적인 미를 서정적인 영상으로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잊혀져가는 한국 전통문화인 초가집, 토담집 등을 영상 속에 오롯이 재현했다"며 "올해 UNICA 영화제가 남긴 또 하나의 귀중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택 스님은 2005년 UNICA 벨기에 대회에서 '신라토기'라는 작품을 선보여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스님이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은사인 성철 스님을 시봉하면서였다.

"신도들이 큰스님의 정진 모습을 담아두면 좋겠다며 비디오 카메라를 사줬습니다. 이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독학으로 촬영기법을 배웠습니다."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아름다운 전통 가옥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을 가졌던 스님은, 이를 영상물로 남겨놓기 위해 전국 곳곳으로 발품을 팔았다. '한국 서민들의 옛집'은 올 8월 말 대구와 경주에서 열리는 '2006 UNICA 세계영화제'에 우리나라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는 원택 스님은 "이제 사찰에 담겨 있는 전통미와 예술미를 보여주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은평구사원련 호국기원대법회



서울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 삼천사 주지)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소속 은평구청불심회(회장 김은혜)는 6월 15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제18회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보훈단체 자녀 20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독거노인 등에게 공양미 1000kg(25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용인 대원사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



대한불교해동종 용인 대원사(주지 송산 · 해동종 총무원장)는 6월 3일 약사여래대불 점안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대원사 주지 송산 스님은 "모든 불자들의 염원으로 대원사에 세계 최대 약사여래대불을 조성해 매우 기쁘다"며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12가지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실천했던 약사여래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기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지산,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 가산,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약사여래대불은 높이 15m의 좌불로,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기본 모델로 현대적 양식을 가미했다.

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 허경만씨 등 조직 구성





허경만 前 전남도지사(위 사진)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아래 사진)가 6월 14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불교인재개발원은 또 박윤흔(前 환경부장관)씨를 상임고문으로, 허달(SK케미컬 상임고문) · 김동건(前 서울고등법원장)씨를 지도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 7월 13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진각종 원로스승 보인정 종사 입적

6월 12일 총인원서 종단장



진각종 원로스승 보인정(寶印定 · 사진) 종사가 6월 6일 새벽 1시 14분 열반에 들었다.

1927년 경남 밀양군에서 출생한 보인정 종사는 1962년 원대심인당 화도로 임명되면서 진각종에 입문했다. 보인정 종사는 1969년 진각종 제 1기 강원수습단기과정을 수료한 뒤, 대구 희락심인당, 서울 탑주심인당과 관음심인당, 수원 유가심인당 등에서 교화를 담당했다. 1994년 종사 행계를 품수했다.

영결식은 12일 서울 총인원에서 종단장으로 봉행됐다.

보인정 종사는 진각종 교법부장 무외 정사, 선상신 불교방송 보도국장의 어머니다.

김주일 기자

주지스님, 창건주 보살님, 모든 스님께 알립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정녕 -
부처님의 가피를 모든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베풀어야 할
모든 업보를 어깨에 멘 부처님의 살아있는 육신이란 말인가?

본인은 1946년 (음)1월 13일 모친이 금강산에서 100일 기도 끝에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12살 이후 아버님 뜻에 따라 「옴마니 반메훔」을 외우기 시작한 지난 40여 년간 꿈속에 거의 매일 스님들과 수행, 시험을 거치는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20여년 전 부터는 일반 대중들과의 사업 거래를 끊고 오로지 모든 사찰의 부처님전에만 본인 손으로 직접 제작한 마이크, 스피커를 설치하며 모든 스님들이 보다 맑고 편안한 소리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모든 불자님들에게 설법을 펴도록 아무리 먼 山寺라도 달려가 소리 보시, 공양을 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2002년 6월 10일 밤 꿈속에 부처님을 처음 친견한지 4년만인 지난 2006년 5월 19일 꿈속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시어 "海月아- 이제 나가거라, 그리고 전하고 너를 보여 주거라 -"하시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본인 주변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들, 몸소 체험하고 주위가 놀란 불가사의한 여러 현실 등이 부처님이 본인의 몸을 통해 세상에 직접 보여주라는 계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찰의 주지스님, 그리고 창건주, 모든 스님들께 부처님을 대신하여 가피를 드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각 사찰 강연 친견 시간은 2시간 입니다.

海月합장

海月 김문화는 • 학력 : 서울 동성 고등학교 졸업, 한양공대 전기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
• 현재 : 유코불교음향연구소 대표소장, 서울 성북구 「생활영어회화」 전문 강사 강의중
• 저서 : 「나 영어 술술 잘 한다」「아무추어 교신영어」「음향설비이론」「불교음향이야기 연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를 직접 체험하실 사찰, 신청요령

- 신청대상 : 모든사찰, 포교원, 선원
- 신청방법 : 희망일자, 시간, 참석인원 등을 희망일 10일 이전에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게시판)으로 신청바랍니다.
- 신청조건 : 최저 50인 이상의 불자가 모여야 하며, 강의 당일 가족이 큰 수술을 앞둔 분, 어려움에 처한 분 들이 부처님을 대신하여 본인으로 부터 직접 가피를 받도록 참석을 권합니다.
- 신청방법 : 팩스 02)2601-8284
  이메일 hl1acu@hanmail.net
  인터넷 www.yukosound.com
  (게시판을 이용 하실 것)
- 주소 : (158-823)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300호) 유코불교음향연구소

신청 순으로 검토 후, 月 사찰 4곳만 선정하며, 귀 사찰의 불자님 들에게 가피를 베푸는데 대한 개인별로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아니하며, 이는 오직 부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海月 김문화 합장
011-335-2695 / 02)2697-9976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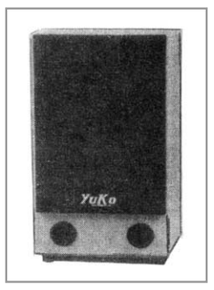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자 세상보기

노 귀 남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우리의 6월과 월드컵

결전(!)의 날에 내게도 승전을 기원하는 문자 메시지가 배달되었다. 뒤풀이로는 중국에서 축하 메일이 2통이 날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토고와 경기에서 져도 좋다고 생각했다. 온 국민이 축구에 희망을 걸었을 나라…'라고 답장 문자를 보냈다. 사활이 걸린 듯이 응원열기가 신록 짙은 유월의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데, 무슨 망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친구가 충고를 해준다.

방송이 온통 도배를 하고, 스포츠 황금산업에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지, 다른 한 친구는 '아 다시 달맞이꽃 피누나/ 공 하나에 미쳐 버린 조국이여!/ 환장할 시인이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누구든 한마디 거들고 있으니, 월드컵 마술에 걸린 것 같다. 캄보디아의 텝 봉 스님은 경기를 조용히 명상하듯이 봐야 하며, 스님이 흥분하면 파계한 것이라 하셨단다. 수행 차원의 말씀이지만, 표면 현상을 다스려서 깨달음이 올까. 또는 스님이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응원한다고 풀죽은 서민경제의 기가 살까.

가만히 보면, 모두 잘살려고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잘살고자 하는 욕망, 애국적 물결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부추기고 있는 경쟁과 경쟁심의 모순을 외면하고, 도리어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를 한다.

잘 사는 일과 잘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왜 잘살고 있는 나라가 더 이기려고 불을 켜는가. 명예와 영광과 당당한 승리를 위해 책정했을 상금, 16강 진출 시 1인당 1억, 8강 2억, 4강 3억, 우승은 5억 원,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환산하면 '물경 115억 원의 상금'도 너무 적겠다.

그런데 작은 일에 눈이 어두우면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자꾸 경쟁하다보면 좋고, 옳고, 맞고…. 선호와 시비와 분별을 낳는다. 그러다가 선택의 폭과 관계를 좁혀, 무한히 열려있는 자연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진다.

요새 유행하는 '비호감'이란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는, 젊은이들의 취사선택 방법이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가. 경쟁, 선악, 시비 논법으로 따지는 일이 극도로 피로해져, 이제 머리가 고도의 직관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만….

안타깝게도 직관은 편견에서 나오지 않는다. 널리 성찰하는 데서 나온다. 토고와 경기를 하면, 토고의 문화도 보면 좋을 터. 다짜고짜 이겨야 한다는 한마디로 배경과 역사를 묵살한다. 토고 특집방송이라도 내놨더라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눈을 얻었을 것이다.

새로운 인식에 따라 역사는 바꿀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낳았던 군사 독재와 정치적 탄압, 부패와 가난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듯이, 그런 종류의 모순이 우리 분단 속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6 · 15의 정신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당에 6 · 25전쟁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안경호 북측 대표단장의 '전쟁' 발언처럼 감당 안 되는 이북을 '비호감이야' 하고 무시할 수도 없고….

원한과 모순이 깊지만, 승자와 패자, 호감과 비호감, 이런 경쟁과 이분법의 논리를 뛰어넘는 눈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통이 크기에 드러나는 문제와 아픔과 못남을 배척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로 포용하면서 살펴본다면, 거기에 눈물이 있고, 해원과 인간애의 아름다움이 살아나리라.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선진국을 규정하는 잣대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님은 자명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보면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자연 재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타행, 자비행, 보살행을 굵은 가치로 삼는 불교계의 봉사활동이 분발을 요하는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05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불자는 1만5528명이다. 개신교 2만7650명, 가톨릭 1만5775명이다.

봉사자 1명의 연간 봉사시간은 불교 33.6시간, 개신교 25.6시간, 가톨릭 31.8시간이다. 1인당 연평균 봉사회수는 불교 9.5회, 개신교 7.1회, 가톨릭 10.5회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봉사활동 참여자 수는 불교 810명, 개신교 583명, 가톨릭 955명이다.

봉사를 생활의 일부로

봉사는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반듯하게 완성시켜가는 방편이다. 얻는 즐거움보다 베푸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느낀다.

세간 속설에 '종교인이 더 인색하다'는 말이 있다. 사랑, 자비를 입에 달고 살면서 말 따로 몸 따로 라는 질책이다.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산다는 것을 실감한다. 감자를 씻을 때는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벅벅 문지르면 된다. 서로 부딪쳐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뽀얀 얼굴이 된다.

미국의 대학입시, 회사 취업, 결혼 등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인격과 실력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상승되고 있다. 문제는 단발성이 아닌 영속성이다. 봉사는 신명날 때 한판 벌이는 축제가 아니다.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은 더욱 아니다. 보시의 으뜸은 무주상보시다.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나의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고마운 대상은 많은데 다가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할지 머뭇거릴 뿐이다. 교계 지도층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이우상(대진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장마철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미국 정부가 지난해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구호금 중 16%에 달하는 14억 달러(약1조3500억원)가 고급 휴양지 휴가비, 이혼수속 비용, 성전환 수술비용, 스포츠 관람료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지급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태평양 건너, '남의 집' 일이기만 할까?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태풍 나비의 피해 복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 지역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마산의 경우, 피해 예방 시설물이 설치된 비율이 50%가 넘지 못한다고 한다. 예산 부족이 이유란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자연재해는 차라리 절망이다. 떠날 곳도, 떠날 돈도 없으니 간신히 부서진 집을 매만져 살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겐 예방은 고사하고 피해 수습도 벅차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 탓만 한다. 해마다 '상습' 침수구역은 침수되고, '상습' 피해지역은 예외 없이 피해를 입는 이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맛비는 국지성 호우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올해는 제발 '인재(人災)였다' '예고된 자연재해였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길 바랄 뿐이다.

■ 여수경(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불교인재양성에 총력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교인재개발원을 설립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점인데 우리 불자들이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소수를 빼고는 안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한국불교는 기복불교라는 오명, 치마불교라는 그릇된 이미지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자 가운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불교를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 스님 중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들 한다.

일은 사람이 한다. 아무리 부처님 법이 훌륭하다고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특히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다면 퇴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하연(붓다뉴스)

"교리강좌는 무료로 해주세요"

조계종이 사이버 불교대학을 개설한다고 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이제야 개설한다니 늦은 감은 있지만 포교 방법으로서, 또 신도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기초 교리강좌는 무료로 서비스했으면 좋겠다. 전법을 위해서 종단에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기존신도들이야 보시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무료 교육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사이버'가 대세다. 인터넷을 신도 교육과 포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법(붓다뉴스)

'일산 황룡사 종단 등록 취소' 환영

태고종은 최근 무속행위와 관련해 최근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황룡사에 대해 종단 등록을 취소하고 주지 혜안의 승적을 박탈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태고종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종단에 등록된 전국 사찰을 재정비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gi(붓다뉴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 조사

최근 발표된 2005년 종교인구조사 결과는 불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10년 사이 종교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인구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불교계 내부에서는 포교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붓다뉴스는 포교전략 수립시에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독자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기간: 2006.6.1~13, 총 참여자: 57명)

포교 전략을 세울 때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은?

포교 방법 다양화	5명(9%)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강화	19명(33%)
도심포교 강화	9명(16%)
포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명(16%)
스님들에 포교마인드 고취	15명(26%)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월드컵 열리는 독일, 불교는?

월드컵 열기로 온 세계가 달아오르고 있는 6월. 세계인의 시선은 지금 그 축제가 열리고 있는 독일로 모아지고 있다. 철학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독일. 하지만 독일이 종교교육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정도로 종교가 독일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국교는 개신교이지만 개신교인과 가톨릭 신도가 각각 40%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독일. 그 속에서 불교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으며, 독일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명상·수행 인구 급증 불교단체만 600여개

뇌 연구자 · 핵물리학자와 경험 교류
가수 · 배우 등 유명스타 불교에 흠뻑
일부 학교 불교 교과목 채택해 가르쳐

독일의 불교 신도수는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0년대 초 15개에 불과하던 불교단체 수가 현재는 600개 이상이나 된다. 스리랑카, 태국 그리고 미얀마의 '테라바다(Theravada-남방불교)'는 물론이고, 한국 중국 일본의 '선', 또한 몽골과 부탄의 '티베트불교'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인들은 이제 이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불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불교연합회'는 독일인 불교신자가 20만 명 이상이고, 이들과 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10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부르크 시내의 상 파울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 예전의 조선소를 정신센터로 개축하였으며, 그 곳에서 40여명이 명상 등의 수행을 하고 있다. 또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불교센터에서는 매일 저녁 100여 명의 독일인들이 명상을 한다. 이들 가운데에는 의사와 회사 중역 등 유력인사들도 적지 않다.

또한 함부르크의 티베트 사원에서는 7년 과정의 불교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베를린의 학교에서는 불교를 교과목으로 채택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뮌스터에서는 유럽적인 '선-아카데미 센터'가 건립되었다.

독일 불교도들은 뇌 연구자와 핵 물리학자들과도 그들의 경험에 관하여 토론을 하기도 하고, 베트남 승려인 틱낫한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심리학자와 의사들은 린포체의 지혜로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베트의 책 <티베트 사자의 서>는 54개국어로 출판될 정도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업무상 파티나 접대를 위한 대화의 소재로 순수한 가르침이 종종 거론된다. 이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불교를 믿는 유명인들에게서 불교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가수 니나 하겐, 안냐 크루제의 경우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배우 랄프 바우어, 호워드 카펜달 그리고 우줄라 카르벤 등은 새로 입문한 사람들이다. FC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선수 메메트 숄은 그의 팔 위쪽에 부처의 문신을 새겨두고 있으며, 희극배우 하페 케르케링은 선-수도원에서 힘을 얻는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모순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현지인 포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찰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지원 어린이부 2명이 '독일월드컵 환영사절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사진위) 지난해 10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출판박람회에서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사진아래).

불교가 독일에 첫발을 디딘 지는 겨우 100년 남짓하다. 1903년 라이프찌히 출신의 칼 자이덴슈튁커가 '불교도 포교연합'을 세우면서 시작됐으며, 곧 이어 안톤 귀터가 독일 최초의 승려가 되었다. 그 당시 독일의 불교도들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감명을 받고 있었다. 1854년에 쓴 <기독교의 몰락>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장차 인도의 지혜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함부르크의 인도학자인 한스 그루버는 "불교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독일인들은 많은 종교가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만능열쇠와 같은 해답을 지니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적인 평정을 이룰 수 있는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불교를 찾는 사람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임영식 통신원

인도 불교성지 대대적 개발
관광객 유치위해 인프라 구축

인도가 해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교성지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인도의 뉴스매체인 'PBI'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광부는 일본 정부와 협력해 모든 불교 유적을 관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한편, 올해 부처님 탄생 기념행사를 개최키로 하는 등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반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기반시설 개발은 도로 및 공항뿐만 아니라 휴식과 오락시설, 세미나 및 연회장과 같은 시설물 설치에도 초점이 맞춰지며, 명상센터, 박물관, 여행센터 등도 건립된다. 이와 함께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위해 각종 기념비도 세울 계획이다.

또 쾌적한 관광을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기간 도로망을 확충해 관광객들이 성지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관광국은 특히 이번 개발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불교성지 22곳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월드컵 축구와 계율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 축구 대회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월드컵 축구를 시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선다.

4년 전의 열기가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높다. 대회 개막 훨씬 전부터 여러 방송사들은 '뉴스'를 독일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까지 '월드컵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에게 '탈속(脫俗)'의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스님들도 이런 세속의 열기를 어쩌지 못한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스님이 빨간 응원복을 입고 북한산을 오르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장면이 공영 방송의 중요 시간대 뉴스에 나오고, 도심의 주요 사찰들에서도 '응원 법회'를 연다. "성인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다(聖人從時俗)"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곳이 있다. 까다롭다고 여겨질 정도로 '철저한 계율 준수'를 요구하는 남방 상좌부 승단에서는 이번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이해서 '규율'을 정해 시행하면서 '차분함'을 강조하고 있다.

6월 7일 중국의 신후아(新華)통신이 인용한 <캄보디아 데일리(The Cambodia Daily)> 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승단에서 '감정의 자제'를 전제조건으로 스님들에게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

수도 프놈펜의 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농 응에(Non Nget) 스님은 '중계방송 시청 허용'의 조건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스님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만, 조용하게 보아야 한다. 화난 얼굴로 소리를 질러대거나 환호하는 것은 길거리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사찰 안에서 크게 웃거나 소리를 질러대는 일은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계율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혹시 경기 결과를 놓고 내기를 하는 스님이 있으면 절에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에게는 '보수적'이라고 느껴지는 농 응에 스님의 이런 조치가 캄보디아의 일부 스님들에게는 오히려 '세속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몇몇 주지스님들은 "농 응에 스님의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기 시청을 불허하였다. 이 스님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스님들이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다"며, 스님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허용하는 일은 "계율 규정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한다.

'보수적'인 노스님들뿐만이 아니다. "TV는 오직 뉴스를 보거나 교육용으로만 활용해야지 오락용 도구가 될 수 없다"며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속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거부하는 젊은 스님들도 많이 있다는 보도로 보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정심'을 잃지는 않은 모양이다.

캄보디아 일부 스님들 경기시청 거부
"계율이 아직 살아있구나! 신선하다"

'승가법(僧伽法)'에 따라 스님들의 일상을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에서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캄보디아나 태국 승단에서도 스님들이 요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 조치가 나왔을 수도 있다.

스님들이 빨간 응원복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쳐대고 심지어 목탁 반주(伴奏)까지 하는 우리나라와 '묵언을 조건으로 시청을 허용'한 태국과 캄보디아를 단순 비교하여,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온 세상을 휩싸고 있는 '열기'를 식혀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계율이 아직 살아있구나! 신선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 나로서는 캄보디아와 태국 스님들에게 기대를 갖게 된다.

■ 자유기고가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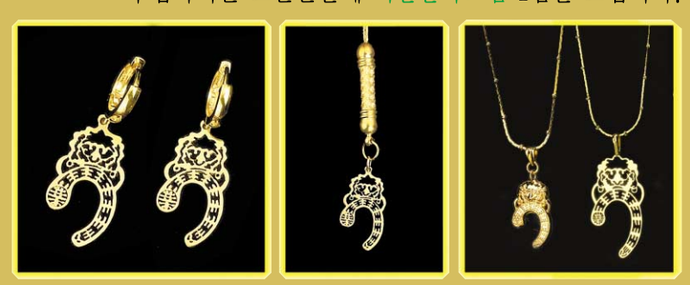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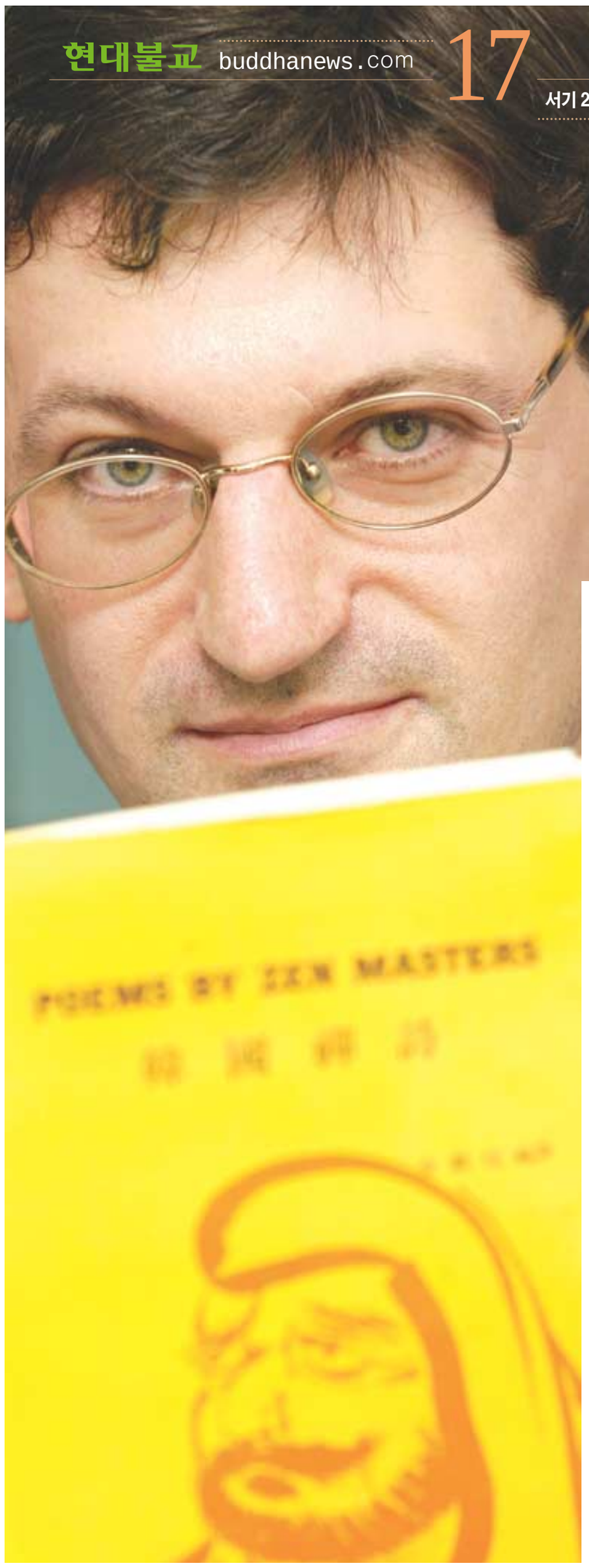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아·름·다·운 삶·사람
/category/bosal.asp

한국 고전·선시 영역하는
이안 헤이트

원작자 마음 느껴질때 행복

황도반의 기

허난설헌 詩 접하고 감동 받아 '동다송'·허균 시 200수도 영역 철저한 채식과 하루 세 번 명상 어릴때부터의 꿈 '깨달은 사람'

이안 헤이트(Ian Haight). 39살의 그는 분명 미국인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것들은 국적을 분간키 어렵다.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가 한국에 산 기간은 15년 남짓이지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정서에 매료돼 있기 때문이다.

헤이트씨는, 조선시대를 살다간 천재적인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시세계를 이해하고 초의 선사의 시를 즐겨 읽는 몇 안 되는 외국인이다.

그는 "성철 스님의 시나 말씀은 그 어떤 시보다 더 훌륭한 시"라고 감탄하기도 한다.

헤이트씨는 부산외국어대 국제통상지역원 교수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의 고전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다.

우리 고전문학을 제대로 영어로 번역하는 외국인은 드물다. 그만큼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고전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분야다.

헤이트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허난설헌이 두 아이를 잃고 지은 시를 처음 대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여인의 감정이 시어(詩語)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국의 미시간대학에서 영문학과 시를 전공하고 어린시절 시인을 꿈꾸기도 했던 그였기에 허난설헌과의 인연으로 알게 된 한국의 고전문학은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내면이 요동쳤다. 그렇게 고전문학 번역 작업은 시작됐다.

그에게 번역은 소통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은 단순히 이국(異國)의 문학이 아니라 그것을 쓴 인간의 마음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돼 주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글을 쓴 저자의 내면을 느끼려했고 그것을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다. 한국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느낌과 정서는 그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에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헤이트씨가 번역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그 작품을 썼던 사람의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평소 번역 작업을 지켜보며 자료 수집 등을 돕고 있는 한국인 부인 황정선(39)씨는 완벽을 기하는 그의 번역 작업 때문에 애를 먹는 장본인이다.

"뭐든 대충하는 게 없어요. 초의 스님에 대한 시를 번역할 때는 녹차에 대한 자료조사부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묻고 또 물어 자료 조사를 한 후 초의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는 것도 빼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허난설헌의 묘에도 갔고 묘비도 번역해 보고 그랬죠."

영어번역에 쏟는 그의 열정에는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허태영씨(전직 수학교사)도 두 손을 든다. 헤이트씨를 '진지한 번역가'라고 평한 허씨는 "헤이트씨는 자기 스스로 번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미국인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보여주고 읽게 해서 의견을 참조하고 다시 다듬기를 반복한다"고 했다. 영어로 통역을 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초역을 하던 처음과는 달리, 요즘은 한문에 토만 달아줘도 스스로 번역을 할 정도로 한문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좀 더 완벽한 번역을 하려는 헤이트씨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시창작 전문 고다르대학원까지 마친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실력은 번역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시를 썼던 사람의 느낌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원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번역을 하는 사람의 예의"라고 강조하는 헤이트씨.

그는, 한국문학번역원(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과 대산문화재단이 우수한 번역가에게 지원하는 번역 지원금을 받아 초의 선사의 '동다송'과 허균의 시 200수를 영역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번역한 초의선사의 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 작업을 끝내고 현재 미국에서 출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선화, 그림들과 함께 초의 선사의 시가 미국인들의 내면을 울리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묻는 질문에 '성철 스님'을 꼽기도 했을 정도로 헤이트는 깨달음의 세계를 시로 표현한 선시에 관심이 많다. 성철 스님의 시에서 말이 아닌 느낌과 이미지를 본다는 헤이트씨는 어린시절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그의 눈길 닿는 곳에 두었던 불교 서적에서 그는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한동안 참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해 방황도 겪었지만 이제는 그의 수행 또한 번역처럼 자연스런 일상이 됐다.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금식(禁食) 중이었다. 보름날을 전후해 한달에 두번 금식을 한다고 했다. 스스로 우주 에너지와 하나 되는 느낌을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 정한 규칙이며 철저하게 지킨다.

또 그는 채식주의자다. 그를 따라 그의 세 아이들도 다섯살까지는 자연스럽게 채식을 한다. 다섯살 이후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채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집에는 들고 오지 못한다.

하루 세 번 2~3시간가량 명상을 하는 그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인연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며 깨달음을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세 아이들 하늘이(Henry.11), 푸름이(Brennan), 햇님이(Henna) 이름도 모두 스님이 지었을 정도로 한국의 스님들과 교류하며 살고 있는 헤이트씨가 무의자(無衣子) 진각 국사의 시를 통해 고려시대를 살다간 스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코 별스럽지도 않은 '자연스런' 일이다.

요즘 헤이트씨는 무의자 진각 국사의 선시에 푹 빠져있다. 번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이안 헤이트. "시를 읽고 번역하는 일이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원작자의 마음을 잘 담아낸 번역이 나올 것이고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수행을 즐겨하면 깨달음도 선물처럼 찾아오겠지요"라고 말했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예·효 실천을 위한 현대불교 윤년 특별 기획

장락수(長樂壽)는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은 불자수의입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년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윤달에 준비한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수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제작한 수의함

품명	재질	특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직), 2004-8219 / 팩스 02)737-0696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onlymaum@buddhapia.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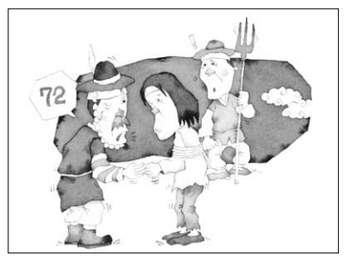
〈67〉 소동파 (중)

"이 산승이 질문을 하나 하겠소. 대답하면 앉게 해주겠지만 대답을 못하면 그 옥대를 풀어주시오."

법거량으로 내기를 하자는 것이다. 이미 나름대로 전 분야에 걸쳐 일가견을 갖춘 그였기에 자신있게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다.

"거사는 조금 전에 이 산승의 육신을 빌어서 앉겠다고 하셨는데, 육신이란 본래 공(空)이며, 오온(五蘊) 역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사는 도대체 어디에 앉겠다는 말이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옥대를 풀어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불인 선사가 좀 미안했던지 행각할 때 입던 누더기를 그에게 선물했다. 벼슬의 상징인 옥대를 버리고 수행을 의미하는 납의를 얻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람의 위치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소동파가 경구(京口)에 왔을 때 금산사 주지인 불인 선사가 강을 건너 찾아갔다. 이번에는 동파가 역공을 했다.

"조주 스님은 왕이 찾아와도 선상(禪床)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금산사 스님께서는 무슨 일로 강까지 건너면서 찾아 왔수?"

속마음을 들켰을 때는 에둘러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글쟁이에게는 글로 대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순발력은 필수.

"그 옛날 조주 스님은 겸손이 부족하여 선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두 임금을 맞았지만 이 모든 세계를 선상으로 여기고 있는 금산의 무량한 모습만 하겠는가?"

문맥으로 보건대 무슨 화주할 일이 생기신 것 같군. 손 벌리러 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니까요.

소동파가 1094년 가을 남화사(南華寺)를 지나게 되었다. 절에 간 김에 편안히 쉴 겸해서 관복을 벗어놓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변(辯)장로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공식손님이 찾아왔다. 다시 관복을 입고서 맞이해야만 하는 공무로 온 관리다. 하도 다급해서 승복을 속옷삼아 그 위에다가 그대로 관복을 걸쳤다.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변장로에게 사과하듯 변명하듯 말했다.

"속에는 승복을 입고 겉에는 관복을 걸쳤으니 마치 양민을 억눌러 천민을 만든 꼴입니다." 절에 와서 제대로 단월노릇도 못하고 도리어 관료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말이다. 자상한 변 장로는 오히려 위로를 해준다.

"외호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영축산에서의 부처님의 부촉을 잊지 마소서."

관리란 반드시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잘 나갈 때야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만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다. 동파라고 해서 유배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1097년 담이국(儋耳國)으로 귀양을 가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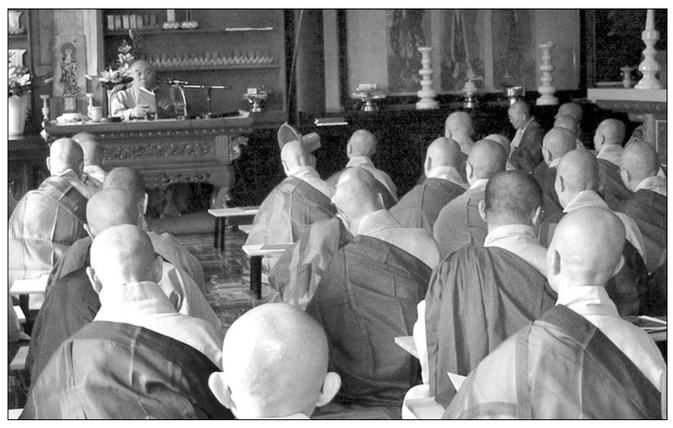
그에 앞서 1904년 사주(泗洲)대사 초상화에 찬(讚)을 써준 적이 있다. 그 찬의 마지막 구절이 죄금 '오버' 된 것 같다. "… 동파의 찬(讚)을 보는 수많은 사람이 모두 성불을 하리라."

법거량서 불인 선사에게 패한 동파
옥대 풀어주고 누더기납의 얻어가

그런데 유배갈 때 그 고을 수령이 직접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자기 아내의 꿈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아내 심씨가 정성껏 사주대사를 섬기는데 하루저녁 꿈에 사주대사가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72일 후에 소동파와 함께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72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어찌 정해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하는 건지 염장을 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미 마음을 비운 동파는 말했다. "세상일이란 어느 것 하나 정해진 인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덕을 지은 것이 없는 내가 사주화상과 동행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전생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계속)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서울 대승암에서 〈유식삼십송〉 강의를 하고 있다.

빈 마음으로 사물을 보라

혜거 스님에게 듣는 '유식삼십송'

유식(唯識). 초심자는 물론이고 불교를 웬만큼 공부한 불자라 하더라도 '유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흔든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사실 불교학 가운데 '유식' 만큼 어려운 분야도 없다. 특히 유식학의 요체인 〈유식삼십송〉은 명쾌한 해설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조계종 교육원의 서울불교전문강당 졸업생들의 모임인 '경전 연구회'가 6월 9일 서울 대승암에서 혜거 스님을 초청해 〈유식삼십송〉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유식삼십송〉은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혜거 스님 강의와 인터뷰를 종합해 정리했다.

● 〈유식삼십송〉은 무엇인가?

〈유식삼십송〉은 유식학의 모체다. 4세기 인도인 무착보살이 뼈대를 세우고 무착의 동생인 세친이 완성했다. 이것을 해석한 것이 〈성유식론(成唯識論)〉이다. 〈성유식론〉의 분량은 방대하다. 〈유식삼십송〉은 5언4구로 된 30개 송으로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유식학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세상이 생겨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주재자(主宰者)가 있는지, 또 주재자가 누구인지였다. 부처님께서는 주재자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셨다. 나를 잊게 하거나 또는 나를 유지시키는 실체는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주재자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불생불멸하는 절대 마음이자 근본마음, 인간의 모든 업이 저장되는 심왕(心王)이 있는데, 이것을 제8식(識)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둘째는 인간 생멸에 가장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잠재된 의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한다. 셋째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즉, 바깥경계를 사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제6식이라고 한다.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을 '3식'이라고 한다. '나'의 모든 주체는 오로지 이 3식 뿐인데, 그 이치를 밝힌 것이 바로 〈유식삼십송〉이다.

● '유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은 실체는 본래 아무 것도 없는 자리인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 내 마음이 된다. 즉, 경험과 지식이 '마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지금까지 체험하고 배웠던 것, 내가 쌓았던 관념과 지식을 빼고 빈 자리 그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만물을 천차만별로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관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관념을 모두 버리고 보면 똑같이 보일 것이다. 상황인식이 서로 같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관념대로 본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은 온전치 못하며, 행복과 불행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유식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생활과 밀접한 것이다. 우리는 제6식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산다. 하지만 어차피 사는 삶이라면 7식도 쓰고 8식도 쓰자고 작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발심이요, 수행자의 자세다.

●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요건

유식을 이해하려면 교학적 토대도 중요하지만 실참수행을 병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심소(心所 · 마음자리 또는 마음씀씀이) 때문에 그렇다. 사물을 분별하는 의식이 있는데, 수행한 사람의 의식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대부분 잊어버린다.

수행을 하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잊지 않는다.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의식은 이렇게 다르다. 수행을 하면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제7 말라식이라는 것은 잠재의식, 예지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오관(五官, 눈 입코피부귀)에 가려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수행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예지력이 있는데 이것을 꺼내지 못하는 것은 수행을 하지않기 때문이며, 이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유식이다. 유식은 이렇게 실참수행을 독려하는 가르침이며, 수행은 오관을 잠재우는 훈련이다.

● 보다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팔만대장경은 모두 유식을 가르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강경〉에서 갖가지 상(相)을 없애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념과 선입견을 벗으라는 가르침이다. 〈화엄경〉의 첫마디는 '일체유심조'다. 이처럼 모든 경전들이 마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경전을 보면서도 이런 가르침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착보살이 그것을 꺼내서 '이것이다' 하고 드러낸 것이 유식이다.

모든 불자들이 경전을 볼 때에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 조절하는 법이 경(經)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바뀐다.

이 개념을 갖지 않고 보기 때문에 경 따로, 마음 따로인 것이다. 유식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만 경을 읽을 때부터 인식하고 공부하면 어렵지 않다.

유식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수행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바람직한 것은 둘 다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수행적 측면에서의 유식을 하는 것이 낫다.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행을 위해서다. 수행을 하면서 유식을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문적 탐구로 이어질 것이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 세상 주재자는 나, 내 실체는 마음
>
> 경험 · 지식이 쌓여 '마음화' 하는 것
>
> 유식 이해하려면 실참수행해야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이화 청기와 공장
● KS S형 청기와
장당 3,500원 도착
(하차별도)
● 한식 검정 시멘트기와
장당 1,500원 도착
(하차별도)
문의 041)554-0112(천안)
011-9820-0112(직)

60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2006년 6월 25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정문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만해 스님의 기개를 잇는 청년불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1만전법단 결성해 미래의 주역 되자

부산 범어사서 열린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끼 발산

전야제 즐겁고 본대회는 장엄

"수행 힘으로 법 펴리라" 다짐

#첫째날

흥겹게 놀고 희망을 만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우암초등학교 5학년 5반 박서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모 삼촌들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6월 10일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 이하 대불청) 주최, 대불청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주관으로 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열린 부산 범어사는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1500여명의 청년 불자들의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했다. 지구별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흥을 한껏 돋우며 전야제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무대 위로 올라선 꼬마 숙녀는 좌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조명을 받으며 무대에 우뚝 선 서현이는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을 향해 야무진 다짐과 약속을 하고 있었다.

"청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너무 바쁜 아빠에게 불만도 많았지만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와 자리를 꽉 메운 이모 삼촌들을 보니 아빠가 자랑스럽다"며 "오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이모, 삼촌들 앞에서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불교청년회에 들어가고 또 멋진 불자가 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서현이는 대불청 부산지구 박상언 부회장의 딸로 이날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 불자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준 상징이 되었다.

'너는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말을 아빠에게서 자주 들었다는 서현이가 "아빠처럼 늘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르게 자란다면 아빠가 늘 말씀하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불교 운동의 방향성과 미래를 보여준 까닭이다.

흥에 겨워 서로 어깨에 어깨를 걸고 하나로 어우러졌던 전야제는 서현이의 편지와 함께 극에 달했고 대불청가(歌)가 금정산의 어둠을 헤치며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이에 앞서 펼쳐진 장애우들로 구성된 성우원 합주단 연주, 어린이 불무도 시연, 대불청 부산지구 특별 지회인 불자 남성중창단 청공 공연, 각 지구별 장기 자랑, 불자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진 참신하고 짬 진 공연들도 호응을 얻었다. 전야제는 '즐겁게' 본대회는 '장엄하게' 진행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젊은 불자들의 흥과 끼가 마음껏 발산된 전야제였다. 숙소인 안국선원으로 옮긴 청년 불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도반들과 담소를 나누며 모처럼의 소중한 만남을 재확인했다.

#둘째날

내달부터 희망전법순례단 가동

둘째 날 법당을 가득 메운 청년 불자들은 새벽예불로 엄숙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둘째 날에는 특별행사로 만해 스님 일대기, 기초 교리 등의 문제를 푸는 퀴즈대회인 '불청, 범종을 울려라'와 국제불광회 청년회장 혜전 스님의 조청 강연이 펼쳐졌다. '청년 조직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조직력을 자랑하는 국제불광회의 결집력을 한수 배우는 자리가 됐다.

오전 11시,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본대회가 봉행됐다. 지은아 대불청 부산지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대회에서 김익석 회장은 "전국의 도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다지고 함께 화합하는 오늘, 1만 청년 전법단을 결성하고 한국불교의 희망이 곧 청년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만 청년전법단 결성 선언문 채택. 창립 86주년을 맞은 대불청이 '청년!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면서 청년 스스로가 희망이 되고 미래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주역이 되고자 1만 전법단 결성에 나선 것이다.


전국불교청년대회 첫째날 열린 전야제에서 부산지구 회원들이 흥겨운 꼭짓점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안강수 대불청 부회장은 1만 청년전법단 선언문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과 같이 나만의 공부, 나만의 부처되기가 아니라 내 안의 부처님 마음을 밝게 밝히고, 나아가 중생제도의 큰 행원으로 보살도를 다하고자 서원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1만 청년전법단 결성'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대불청 부산지구의 경우, 빠르면 7월부터 희망전법순례단을 꾸려 13개 지구가 있는 지역을 순례하며 청년전법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재생산해나갈 방침이다. 1박 2일일정으로 사찰을 방문, 그 지역 청년 법우들과 합동 법회를 열고 전법단 활동에 불을 붙이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손정현 회장은 "청년 불교의 희망은 수행과 열정에 있다는 걸 재확인한 대회였다"며 "전법을 위해 인도의 흙길을 일평생 걷고 걸었던 부처님의 뒤를 따라 스스로 수행하는 청년, 그 수행의 힘으로 법을 펴는 청년으로 거듭난다면 분명 희망은 있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하심'

서울 선우어린이집 한창숙 원장

부처님과 어린이의 공통점 하나. 바로 깨끗하고 순수한 미소다.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을 품을 듯한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서울 강남 선우어린이집 한창숙(45 · 성불원) 원장의 미소 역시 부처님 · 어린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 말씀대로 아이들 한명 한명이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들을 닮아가나 봅니다. 하하하!"

한 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어린이들을 길러낸 불교계 대표적 유아교육 전문가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봉은사는 '삼고초려'끝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선우어린이집 원장으로 한창숙씨를 선임했다.

1~7세 어린이 167명과 19명의 교직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원장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려 있는 어린이집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기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집을 찾는 학부모들을 만나 각종 상담을 하다보면 하루 해가 짧다.

"당연히 힘들 때가 있지요. 아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아픈 경우도 많고, 또 선생님들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한 원장은 항상 하심(下心)을 생각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수행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는 다짐뿐입니다."

동덕여고 재학시절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왔지만, 아직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한 원장. 그래서 최근에는 불교기초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는 한창숙 원장.

또 유아교육분야의 전공을 살려 중앙신도회가 계획 중인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남편과 딸의 손을 이끌고 봉은사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다.

"불교계 유아교육 시설은 사찰이라는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어린이집이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한 원장은 앞으로 자연친화적 생태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원장은 강조한다. "논과 밭에서 자라는 미물들도 사랑을 받아야 잘 자랍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구요. 어린이집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공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6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상용영반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7월 6일(목) 오후 3시(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겸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겸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족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생에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 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안마음선원 덕봉 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6>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할 뿐이다

古德云 只貴子眼正 不貴汝行履處

옛 어른께서 이르시기를 "다만 자네의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할 뿐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옛 어른'은 중국 당 시대 위산(771~853) 스님이다. 열다섯에 출가해 스물셋에 백장(720~814) 선사 밑에 가서 공부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방장실에서 밥 늦도록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백장 스님이 "화로에 불이 있느냐?"라고 묻기에, 대강 화로 속을 뒤지다가 "없다"고 했다. 이에 백장 스님이 직접 화로 속을 뒤져서 작은 불씨 하나를 꺼내 들고 "이게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위산 스님이 여기서 크게 깨쳤다고 한다. 뒷날 위산 스님과 그의 법을 이은 앙산(803~887) 스님의 첫 머리 글자를 따와 위앙종이 만들어졌으니, 위산 스님은 중국 선종의 거대 산맥인 오가칠종(五家七宗)의 하나에 해당되는 위앙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안목이 바르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왜 행실보다 안목이 바른 것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 뜻은 선림(禪林)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殺佛殺祖]'라는 표현과도 연관이 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는 말뜻은 원래 부처님과 조사스님에 대한 집착을 떨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와 '조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를 말하는데, 자신의 공부가 무르익어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뛰어넘으라는 것이다. 이는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부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나'와 '부처님'이란 무명과 탐욕심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무명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자아의식이 없어져야 비로소 참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무명과 탐욕이 깃든 '부처님이란 경계'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런 근기야말로 참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이 경지에 들어가야 바른 안목이 열린다.

깨달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넘어야 참부처

이 안목이 열리면 모든 경계가 부처님의 모습 아닌 것이 없다. 이 안목이 열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야말로 중생의 시비 분별을 뛰어넘는 것이니, 멋모르고 행동하는 중생들의 거친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다.

'눈 푸른 납자'는 무심하게 모든 인연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성자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안목이 터지지 않고 나오는 행실은 중생의 행실에 그칠 것이니, 중생의 행실을 따져본들 부처님 공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두를 챙겨 근본 마음자리를 바로 알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세상을 바로보는 '바른 안목'이 우선이요 공부의 핵심이다.

'행실'로 번역한 행리(行履)는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살아온 과정을 말하니, 오가며 않고 눕는 모든 일상적 삶을 가리킨다. 우리는 보통 이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의 공부를 가늠할 수 있다.

옛날 총림에서는 2월 9일, 8월 9일 매년 봄가을 두 번에 걸쳐 안거에 동참한 스님들의 숫자와 해제 뒤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을 '행리(行履)조사'라고 하였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을 '행리장(行履帳)'이라고 하였다. 스님들의 행실이 올바른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평상시 점검하여 수행 생활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책하려는 뜻이 아니었겠는가.

위산 스님도 당시 수행자들이 자꾸 나태해져 품위 없이 사는 것을 지켜보다 못해 <위산경책>을 저술하여 그들이 '도'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도록 촉구했다. 이 책은 산문(散文)과 운문(韻文)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 산문에서는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경책하는 뜻을 상세하게 밝혔다. 첫째 단락에서는 중생의 몸 자체가 큰 우환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둘째 단락에서는 출가자들의 병폐를 크게 꾸짖었으며, 셋째 단락에서는 출가한 사람의 바른 안목을 밝혔고, 넷째 단락에서는 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을 보여 주었으며, 다섯째 단락에서는 간절하게 공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선종에서는 이 책과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과 <불유교경(佛遺敎經)>을 합하여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 하는데 초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우리나라 강원에서 초심자 교재로 쓰이는 치문(緇門)에도 이 책이 포함되어 있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옛날 앙산 스님이 위산 스님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열반경> 40권이 다 마군의 이야기들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앙산 스님의 바른 안목이다. 앙산 스님이 자신이 살아온 모습에 대하여 묻자 위산이 '다만 자네의 안목이 바른 것만 귀할 뿐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른 안목을 먼저 연 뒤에 행실을 말해야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수행을 하고자 하면 근본자리를 먼저 단숨에 깨쳐야 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행복동 사람들

진정한 지혜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이판사판' '야단법석'

'이판사판인데, 해볼 대로 해보라지.'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야단법석 떨지 말고 있어!'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쓰는 '이판사판(理判事判)', 떠들석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때 사용되는 '야단법석(野壇法席)'. 그럼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판사판은 불교의 이판승(理判僧)과 사판승(事判僧)에서 나온 말이지요. 이판승은 불교 교리를 연구하거나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을 말하고, 사판승은 사찰의 산림(山林), 즉 재산관리를 맡아서 원활한 사중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스님을 말합니다.

야단법석의 의미도 짚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야외에 법단을 차려놓고 하는 설법장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들판이나 넓은 공간에 마련되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뜻 깊은 불교용어가 왜 변질이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불교가 배척당했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죠. 때문에 불자들은 과거 불교가 탄압받던 시기에 곡해된 이 용어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있겠지요?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7강 자심여래(自心如來)의 자오자각(自悟自覺)

책에 쓰인 글이 곧 너는 아니다

지난 강의에서, 혜능의 '또 다른 사상(四相)론' 가운데 첫번째 '자아의 환상이 없음(無我相)'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두번째는 '내 몸이 없음(無人相)'이다. 이 신체란 흙과 물, 불과 바람의 사대(四大)로부터 온 것이며, 이것은 이윽고 다시 본래 온 곳으로 흩어질 것들 아닌가. "아하, 어리석구나 내 몸 아닌 것을 그토록 애면글면했다니..." 그 연기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번째는 '중생의 징표가 없음(無衆生相)'이다. 혜능은 이를 "생멸심(生滅心)이 없다"로 정리했다. 이 말은 섬세한 유의를 요한다. 마음은 식은 재, 썩은 고목이 아니라서, 계기에 따라 정황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한다. 살아있다면 그 '일어나고 멸하는 과정'은 당연하고 자연하다. 장자는 이를 숲속의 바람소리, 그에 응해 일어나는 수많은 구멍과 악기들의 연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혜능이 말하는 '생멸심'은 이 자연의 반응과는 십만팔천리, 전혀 다른 것이다.

생멸심이란 무엇인가

요컨대 생멸심이란, 자아에 토대(住)를 두고 추동된(生) 상념과 정념(念)의 출몰을 가리킨다! 그것은 이기적이면서 인위적이기에, 부자연스러우며, 결국 타자와 교감 없이 냉담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 이해관계를 고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몰라라 한다. 빚진 것은 기억하고, 받은 것은 까맣게 잊는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사전에 까마득히 없다.

수도인은 생멸심의 출몰이 더디고, 성인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언필칭 '고요하다'고 일컫는다. 수행과 더불어 상념이 줄고, 말은 느려지고, 행동에는 여유가 있다. 혹, 어지러운 상념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금강경>의 표현대로 일래(一來)라, 한번 왔다가 그만 스러질 뿐, 악착같이 들러붙어 있거나, 반복 강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뇌파 실험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보통의 관찰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생멸심은 '중생'의 징표이고, 수행과 더불어 이 출몰과 번잡이 점점 가라앉다가, 마침내 이 부글대는 거품이 영원히 멈추는 경지가 온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에서 '큰 바다'로 비유한 것이 이것이다.

네번째는 '나이란 없음(無壽者相)'이다. 내 몸이 없다면, 이땅에서 영위하는 생명의 길고 짧음이란 도무지 우스울 것이다. 전광석화(電光石火), 있는 것은 순간의 영원뿐이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 "꿈같고, 환영같고, 물거품같고, 그림자같고, 이슬같고, 번개같고(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가 알리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삶에는, 그렇다, 시간이 없다.

불공(不空)의 반야바라밀

혜능은 덧붙인다. 사상(四相), 즉 이들 네 가지 '이미지'를 꿰뚫고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자아의 환상이요 그림자였음을 깨닫는다.' 지혜의 눈 법안(法眼)은 이미지와 소문, 매스컴과 선전,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통찰력이다. 불교는 이 곡절을 휘몰아 공(空)이라는 한 마디말로 압축했다!

공(空)이란, 혜능의 표현을 빌리면, '유(有)와 무(無) 사이에서의 오랜 방황'을 끝내는 일이다. 공(空)은 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오랜 습관을 넘어서는 작업이지만, 또 한편 불공(不空)이라, 가득차 있기도 하다. <대승기신론>이 이 두 측면을 동시에 다루는 것을 기억할 것인데, 혜능은 이 불공의 반야바라밀을 특유한 돈교 어법으로 표현했다. "자심여래(自心如來)는 자오자각(自悟自覺)이라, 번뇌와 망념을 여읜 이 마음에서, 복락이 스스로를 무한히 펼쳐간다."

혜능의 설법은 이어진다.

법상도 비법상도 없다니

"무법상(無法相), 즉 '법상(法相)이 없다'는 말은 이명절상(離名絶相)이라, 진리와 그림이 명칭을 떠나 있고, 이미지와 절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무비법상(無非法相), 즉 '비법상도 없다'고 말한 것은 '반야바라밀의 진리가 그럼 없네!'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반야바라밀의 진리가 없다는 말은 진리를 비방 훼손하는 짓이다."

– 이 반야바라밀의 축복에는 이름이 없다! 이 '대승법'에 이름을 붙이거나 이러쿵저러쿵 따지다보면, 그 축복은 자신을 떠나 껍데기만 남는다. 이는 흡사 생화와 조화의 차이와 같다. 맞선에 끌려나온 남녀와, 사랑에 빠진 남녀의 차이같은 것이라고 하면 비슷할래나. 제발 책에 쓰인 글을 자기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금강경> 5절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則爲着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則着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卽着我人衆生壽者. 是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어째서냐, 만약 이들 중생들이 사물에서 이미지(相)를 취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편견과 고착에 빠질 것이다. 진리의 이미지(法相)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것에 고착되는 사람 또한 모종의 자의식의 착각과 편견에 빠진다. 그렇다고 진리가 없다는 판단(非法相)에 빠지는 것도 또한 또 다른 허무의 자의식이니라. 그래서 말하노니, 진리에도 빠지지 말고, 진리 없다는 데도 빠지지 말라."

(혜능의 해설)

六祖: 此三相, 竝著邪見, 盡是迷人, 不悟經意, 故修行人不得愛著如來三十二相, 不得言我解般若波羅蜜法, 亦不得言不行般若波羅蜜行, 而得成佛.

"이 셋, 즉 사물의 이미지(相), 진리의 이미지(法相), 그리고 '진리란 없다'는 판단(非法相)은 삿된 견해이다. 거기 빠진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메며, 경전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수행인들은 1) 여래의 삼십이상 종호에 애착 악착하지 않으며, 2) 내가 반야바라밀의 진리를 잘 안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3) 반야바라밀 법을 행치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고는 더더욱 말하지 않는다!"

<금강경> 6절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이런 뜻에서, 여래는 늘 말하지 않더냐. '너희들, 비구들이여, 내 말은 다만 뗏목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진리(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 아닌 것임에야…"

(혜능의 해설)

六祖: 法者是般若波羅蜜法, 非法者生天等法. 般若波羅蜜法, 能令一切衆生過生死大海, 旣得過已, 尙不應住, 況生天等法而得樂著.

"여기 '법(法)'이란 반야바라밀의 법이다. '비법(非法)'이란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일을 가리킨다. 반야바라밀의 법은 능히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생사(生死)의 대해(大海)를 건너게 한다. 건넌 다음에는 그 법에 주(住)하지도 않는데, 하물며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즐거움에 악착하랴."

– 혜능은 말한다. 진리의 수행이 '다음 윤회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적금이나 보험'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 마주친 생사, 그 큰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이다. 한사코 부여잡되, 저 언덕 기슭에 닿았다 싶거든, 그만 버려라. 그래야 계속 길을 갈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 민화 850여 컷에 담아


결혼식을 올리고 신행때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민속도감
신현득 지음 | 김만희 그림
현암사 | 3만8000원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모락모락 굴뚝으로 연기 피어오르는 초가집에서 가마솥에 한가득 밥을 지어먹고, 해가 져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등잔불에 아주까리기름을 넣어 불을 밝혔다.

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곡식을 찧고 빻을 때에는 방아, 연자매, 절구, 맷돌등을 이용했다. 우리 조상들은 물레로 실을 자아 베틀로 옷감을 짜 입었는데 그 옷이 한복이다. 혼례식 때에는 신부가 오색 술이 달린 족두리를 쓰고 고운 가마를 타고 말을 탄 신랑을 뒤따랐다. 자자손손 복을 빌기 위해 서낭당에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절기에는 여러 가지 놀이와 춤으로 흥을 즐겼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사람살이 모습 속에서 찬란한 우리 민속 문화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민속도감>이 나왔다.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민속도감>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오랜 역사와 자손대대로 이어 온 조상의 자취들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또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정말 알아야 할 민속품을 소개하고 그 쓰임을 알아볼 수 있게하고 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민속 문화를 민화기법으로 고증한 우리 민속 문화의 길잡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책에 소개된 민속화(민화)는 김만희 화가(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가 30년 동안 그린 그림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우리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꼭 알아야 할 민속문화까지 고증을 거쳐 망라되어 있는 이 책에는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가구와 생활소품' '군사장비와 형구' '신앙과 놀이'의 여섯 마당으로 골고루 구성하고, 그림도 아주 세밀하게 그렸다.

책에는 장독대, 뒷간, 자물쇠, 외양간, 목어, 가마, 우마차, 화로, 다식판, 뒤주, 찬합, 관모, 북, 신, 노리개, 승복, 먹통, 벼루, 등잔, 문갑, 장롱, 경대, 갑옷, 투구, 부적, 굿, 국악기등 옛날의 생활 요모조모와 사람살이를 생생히 보여주는 민속화 850여 컷이 수록돼 있다.

책속의 민속자료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전통미술자료, 디자인, 교육관광분야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로 손색없다.

더 나아가 자료들이 워낙 생생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나누는 넉넉함을 저절로 배울 수 있게 된다.

민속 문화를 통해 저절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민속도감>이 나오기까지 김만희 화가는 30년 동안 산간벽지와 오지마을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사진을 수집했다. 고생 끝에 찍은 사진과 실물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을 그린만큼 사실과 틀림없고 고증도 정확히 했다. 여기에다 아동작가인 신현득씨가 글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민속자료의 완성도를 높였다.

저자인 신현득씨는 "우리 민속 문화 속에 숨쉬는 찬란한 문화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통해 민속 공부가 곧 '역사 공부'임을 깨닫도록 남들었다"며 "이 책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나누는 넉넉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특성을 키워 전문가로 쑥쑥 커가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을 그린 김만희씨는 한국전통미술인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민속화자료 개인전을 국내외에서 수십회 개최했다. 저서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풍속화 백가지>가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 동네사람들이 모여 집집마다 초가에 헌 이엉을 걷어내고 새 이엉을 이었다.




복두


벼루


디딜방아


갑옷


반닫이


한약틀


조바위


목화


태을천사대장군


족두리


형구


북

네티즌 강추

나를 알고 남을 알게 되니 관계가 풀린다



소설처럼 읽는 멋진 인간관계 만들기 대경북스, 최준호 지음

책을 받고 나서 표지의 딱딱함에 놀랐다. 표지에서 느껴지는 지루하고 무거움에 책이 신간이 맞는지 뒷면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책은 펴자마자 나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10페이지를 넘기자 웃음을 유발시켰으며 30페이지가 넘는 순간부터는 내게 연필과 메모지를 손에서 놓치 못했다.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 이상으로 이 책은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혀진다.

이 책은 나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형도 파악하여 인간관계를 멋지게 만들어나가라는 목적하에 출간된 것 같다.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타인이 나의 진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혹은 내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원망할 수 있을까? 책은 우선 나를 제대로 알게 해주고 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직장관계, 친구관계, 애인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거기에 군 장병을 위한 에니어그램까지 저자의 세심한 배려에 놀랍다. 인간을 9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기에는 씁쓸한 면이 없진 않지만 인간관계가 힘든이에게 나를 알고 타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기에는 충분한 책이라고 본다.

(티티새 님, yes24.com/Goods)

주변의 경험과 의학적 이론 근거로 삼은 주장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중앙생활사 ,후나세 순스케 지음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암에 걸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없애는 것 등 기존의 치료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은이의 주변에서 겪은 실제 일들과 의학적 이론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목적으로 투여되는 것인데, 이 항암제가 정상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환자의 80%가 이로 인해 죽는 다는 것이다. 방사선 치료 또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어떤 잘못된 사실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므로 읽으면서 흥미롭기는 했으나, 다 읽고 나서는 뭔가 기분이 찜찜했다. 비싼 치료비를 빚을 져서라도 다 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의사의 치료만 바라보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마음이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는 지은이처럼 자연의학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은이도 항암제가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하는 것 일 수도 있다. 항암제와 그 외 병원에서의 암치료 방법이 안 좋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충분히 알게 되었고 조심해야겠다.

(백혜영, aladdin.co.kr)

책속의 밑줄긋기



○…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은 양쪽 다 없었다.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고 넓적다리뼈에 발이 달려 있었다. 병명은 짧은 팔과 다리에 손과 발이 붙어 있는 바다표범의 물갈퀴를 의미하는 해표지증이었다. 나는 중증의 '불구자'로 간주되었다. 어릴 때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쉽게 뛰어다닐 수 있었고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보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두 살 무렵부터 자의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바깥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나는 십대 소녀였고 바깥세상의 일부가 되기를 절실히 바랐지만,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장애가 없는 또래 아이들처럼 될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이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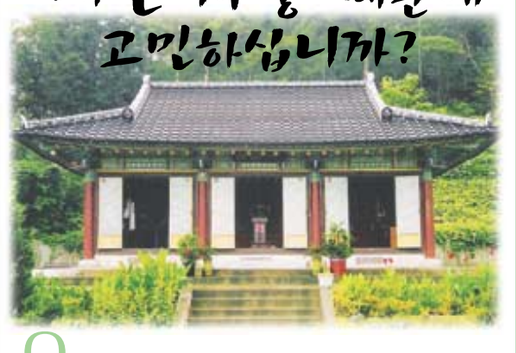
-<앨리슨 래퍼 이야기> 본문 21 · 104쪽에서, 황금나침반, 앨리슨 래퍼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계현 선사님 역저 / 저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계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묵체로 세상을 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 >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계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법회
선가귀감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6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조립식 방가로 No-1210 7000×4000×3300(mm) 가격(평)800,000
◆이중창 이중벽 쉼토롱 방가로 No-1270 9960×4700×3300(mm) 가격(평) 900,000
물,홍속에서도 썩지 않는 기둥,창상은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어 주말농장,휴양림,별선,수련원,사찰에서 많이 사용함 (원하는 사이즈 주문 생산가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한 좋 벽돌
◆로로 청소하는 침상 No-1540 1600×1030×350(mm) 가격:190,000
견고, 이중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쉽지가 간단한 침상
갈라지거나 뒤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화재 축산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천두락.kr/평상.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곽영호

하와이 무량사 종무원 모집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신심이 깊고 성실한 불자를 종무원으로 모집합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하와이주 수도 호놀룰루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사는 미주포교의 활성화와 종무행정의 효율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분야 : 종무행정
2. 자격요건
• 연령 : 30~50세(남/여)
• 컴퓨터 사용 가능, 영어 능통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1종 이상)
3. 인원 : 1명(가족동반 가능)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5. 제출기간 : 불기 2550(2006)년 6월 5(월) - 6월 20일 (금) 오후 5시
6. 근무조건 : 숙식제공
7. 혜택 : 미국 종교비자 제공 (2년후 영주권 취득 가능)
8. 서류접수 E-mail: muryangsa@empal.com
9. 문의 :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주지 白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흔들리는 가정, 불교에서 답 구하다



21세기 신가정 만들기
김종서 외 지음
도피안사
1만2000원

본사-도피안사 주최로 열린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구국구세법회 강연 내용 엮어

"반야를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야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불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에 밝음과 기쁨을 줄 것이다."

흔들리는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이 더 이상 개개인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공존과 상생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 이에 대한 생각과 고민으로 지난해 본사와 도피안사가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를 주제로 10회에 걸쳐 진행한 제1차 구국구세법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묶은 책이 발간됐다.

<21세기 신가정 만들기>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을 불교에서 찾도록 해준다.

이 책에서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숙명임을 알려준다.

그런다음 인류가 현재 싫든 좋든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을 인식시켜준다. 또 시대상황이 개인들에게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것은 여태껏 살아온 삶의 형태나 관습을 떠나,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시작하자는 것이다. 즉 인간 삶의 근본인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는 것.

여기에서는 행복한 가정만들기의 일환으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가정에 대해 살펴본다.

책에서 중앙승가대 미산 스님은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 <잡아함경>의 구절을 먼저 소개한다. 그런다음 남편과 아내의 도리 또한 명시하고 있는 <선생경>의 내용을 설명한다,

스님은 "남편은 처자식을 어여삐 생각해야 한다. 처자식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집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아내의 친족을 생각해주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재산을 감추어 빼돌리지 말고, 남편이 휴식을 취할 때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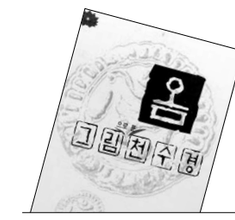


지난해 5월 22일, 중앙건강센터장 조희금씨가 도피안사 법당에서 '오늘날 한국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강의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밖에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의 '불자 가정의 자녀교육', 서강대 서명원 신부의 '서양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가정', 이화여대 최혜경 교수의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서울대 옥선화 교수의 '모두가 행복할 권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고성혜 위원의 '결혼과 부부관계', 방송통신대 김외숙 교수의 '불자 가족의 가정 관리', 한별정신과 최훈동 원장의 '구국구세의 무아적 의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대명 스님 지음
대유학당 | 1만2000원

우리가 수지독송하는 범어로 되어있는 '대다라니'에 대한 풀이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달리 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번역을 거듭하였으며, 만들어진지가 이미 2600여년이 지났으므로 그 본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들의 진실된 행적을 살핌으로써, 그 진실된 힘에 의해 수지하는 사람이 응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불보살들이 이룬 선과의 힘을 빌리는 것.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준비가 된 여러 신들의 이름과 업적을 칭송하며 배우고 존경하며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힘과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라니의 영험이고 수지독송하는 이유다.

80여 불보살 위신력 손모양 등 그림으로

대다라니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80여 불보살의 진실한 수행과 위신력을 표현한 <천수경>. <천수경>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풀이한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은 당나라때 서역으로부터 온 고승 불공 삼장 스님의 <불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 다라니경>을 저본으로 삼아 3년간 고증을 거쳐 국내 최초로 완역하고 그림으로 복원한 책이다.

이 책을 보면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과 준제진언, 42개의 명호를 가진 관세음보살의 42개의 손모양과 진언을 그림과 더불어 풀이하고 있다.

또 진언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옴'을 활용한 호신부를 복원하여 각기 석가여래화압부, 해원가부, 호신명부의 세 호신부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들의 행적과 역할이 그림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불보살을 친견하듯 다가온다.

저자인 대명 스님(미국 대명선원장)은 "3년간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한 뒤 풍부한 사례를 첨가하여 이야식으로 꾸몄다"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천수경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읽기쉬운 독송용 경전시리즈 출간

불자들이 읽기 쉬울뿐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독송용 경전시리즈를 출간됐다.

도서출판 일흥미디어가 출간한 경전시리즈 1차분은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천지팔양신주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는 경전 5권이다.



끊어 읽기에 주안점 휴대용 판형 함께 내

이번에 발간된 경전시리즈는 과거의 독송용 경전들이 한문본 또는 번역본이 끊어짐이 없이 줄달아 읽게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큰 애로를 해결했다. 이를위해 끊어 읽기에 주안점을 두고 단락 단락을 한문본과 번역본을 간추려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읽을 수 있고 한 단락마다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했다.

또 현대에 맞고 가로쓰기, 가로읽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로로 편집했으며, 묻고 대답하고 하는 회화체를 그대로 살려서 마치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 다듬었다.

이밖에도 책 뒷편에 용어 해설편을 실어 난해한 불교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독송용 경전시리즈를 비롯해 사경용 경전도 출간할 예정인 일흥미디어에서는 언제어디서나 휴대하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판형(32절)도 함께 출간했다. (02)392-0920

성철 스님과의 인연 그리고 그 후

나: 스님 저 언제 죽어요?

성철 스님: 오늘 저녁 죽어라.

나: 엄마 큰 스님이 나보고 오늘 죽으래.

엄마: 그럼 어디가서 죽어야 하는지 다시 가서 물어 보아라.

나: 스님 저 어디가서 죽을까요?

성철 스님: 너거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 어차피 우리집에 돈도 없고 절에서 49재 지낼텐데 여기서 죽을랍니다.

성철 스님: 너거 엄마 돈(頓) 많다.

<경혜의 인연이야기>는 위의 예처럼 성철 큰스님과 한경혜씨 엄마가 죽음을 놓고 선어로써 거래하는 문답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다.

이 책은 23년간 매일 천 배의 절 수행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한 동양화가 한경혜씨가 '선'이라는 꽃의 아름다움을 승화한 베일에 싸여있던 '선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 거지 스님과 비룡 스님을 비롯한 무소유의 마음자리와 연계된 살림살이, 그리고 가족들의 삶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다.



경혜의 인연이야기
한경혜 지음
작가의 집 | 1만원

저자인 한경혜씨는 돌이 갓 지나 뇌성마비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녀는 23년간 만 배 백일기도를 세 번이나 성취했으며 2년전에는 15박 16일간의 히말라야 등정에도 성공했다.

올해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한씨는 현재 경남 진영에서 '작가의 집'을 운영하며 외국인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 입문하려는 당신에게

<법구경>은 부처님이 305번동안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한 423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구경>의 요지는 출가수행자나 재가불자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일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모든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밝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팔리어로 되어있는 <법구경>은 처음 불교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내서이며, 동시에 오래된 불자들과 구참 수행자들에게는 초발심을 일깨우고 끊임없는 경책을 불러 일으키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엮은 등하 스님은 1989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현재 토굴에서 안거 수행중이다.



법구경(불타의 게송)
등하 엮음
법공양 | 9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대산출판사, 장영섭, 1만5000원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민족사, 성법스님, 9500원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고즈윈, 서화동, 1만2800원
· 큰 스님 큰 가르침	문예출판사, 윤청광,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 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갯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종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가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kyo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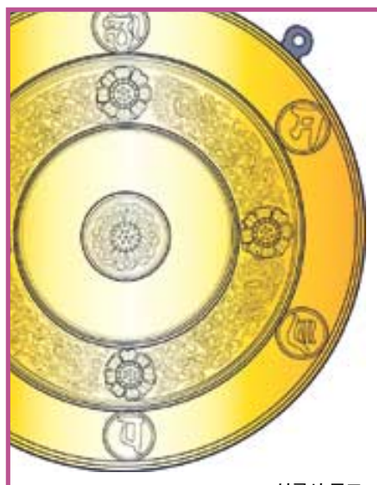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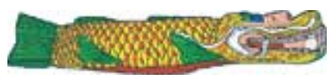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신륵사 금고


내소사 운판


국립부여박물관의 '개태사 금고'


전등사 목어

범종·법고·목어·운판 디지털로 환생

전국 94곳 사찰 소장 170여점 선정
이미지 450여점·음원 120여개 제작
문화상품·패션디자인 등 활용도 높아

범종(梵鐘) 법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 그 성스럽고 화려하며 깊은 울림을 간직한 불전사물(佛殿四物)이 디지털콘텐츠로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 디지털 2D 3D이미지로 변신한 불교 콘텐츠는 전국 94곳의 사찰 및 박물관에 있는 170여점의 불전사물이다.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의 불전사물과 금고는 디지털 이미지화와 함께 5.1채널 디지털 음원으로 변신을 끝마쳤다. 범종이나 법고 등에 포함된 문양들도 단독 이미지로 뽑아졌다.

▲ 사찰설화 10편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디지털 콘텐츠화가 완료된 불교문화재는 성덕대왕신종 등 범종 60점, 용틀임을 자랑하는 미래사 법고 등 법고 33점, 붉은색이 화려한 용주사 목어 등 목어 34점, 운판 25점, 황금빛 신륵사 금고 등 금고 11점 등이다.

450여개 이미지와 120여개 음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들은 시범운영 중인 사이트 '산사의 소리(sansa.culturecontent.com)'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이 끝나는 대로 '산사의 소리'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개발 이미지들을 담은 CD '산사의 소리-불전사물 디지털 콘텐츠'도 1000개가 만들어져 배포된다.


불교방송 뉴미디어팀 박시하 팀장이 '산사의 소리' CD를 시연해 범종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다.


수덕사 운판


미래사 법고


내소사 동종



불전사물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은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맡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공모에 '범종을 중심으로 한 불전사물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산업적 활용' 사업이 선정돼 1년 동안 불전사물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이번 콘텐츠 개발은 불교방송이 개국 이래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콘텐츠 작업이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문위원은 범종 운판 금고 주조법 관련해서 원광식 대표(성종사·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가, 2D·3D·텍스트는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사학과)가, 조각·문양은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이, 2D·3D·웹 구축은 송필순 교수(한국디지털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가, 불교설화·플래시 애니는 고운기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가 각각 맡아 첨저한 고증을 거쳤다.

불교방송은 가려뽑은 사찰설화 10편을 '마음을 울리는 소리' '부처님 되기' '은혜를 갚은 꿩' 등 누구나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 해당사찰서 사용시 무상 제공

박시하 팀장(불교방송 뉴미디어팀)은 "각 사찰에 해당 불전사물 이미지 및 소리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며 "불전사물의 이미지와 소리를 해당사찰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불전사물 콘텐츠 가운데 전통문양들은 문화상품 패션디자인 출판 인테리어 웹 콘텐츠 등 한국적인 이미지 재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불전사물의 음원과 동영상 설화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방송 광고 영화의 소재 및 모바일 리소스에 대한 활용도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방송은 전통사찰 관련 제2차 문화원형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02)705-5401

글=강지연 기자 · 사진제공=불교방송

소리 이용해 땅·하늘·바다·지옥에 부처님의 진리 전파 기원

불전사물이란?

불전사물은 사찰에서 조·석 예불 때 치는 법고 목어 운판 범종을 말한다.

법고는 축생의 무리를, 운판은 하늘을 나는 생명을, 목어는 수중의 생명에게 소리를 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두 소리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가 중생에게 전해져 해탈성불을 염원하는 의미이다.

사물의 법음을 예불 전에 행하는 이유는 땅위의 중생, 하늘을 나는 중생, 물 속의 중생, 저 지옥의 죄 많은 중생과 천인(天人)들까지,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다같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의 울림 속에는 나 한 몸만의 수행이 아닌 모든 중생의 수행, 나 하나의 성불이 아닌 일체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지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

금고는 불전사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금구(金口) 또는 반자(飯子)라고도 불리는 쇠북을 가리킨다. 사찰의 종루나 처마 밑에 걸어두고 공양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집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릴 때 종송과 함께 의식에 사용된다.

금고를 치면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짐승이 정각을 얻는다고 한다.


오롯이 서 있는 '비파나무 잎새'에서도 한기늠 작가는 명상을 말한다.

돌에 새긴 명상

'한기늠 조각전'

세종문화회관 신관 2전시실
6월 28일~7월 4일

돌을 통해 명상하는 조각가 한기늠씨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신관 2전시실에서 6월 28일~7월 4일 '조각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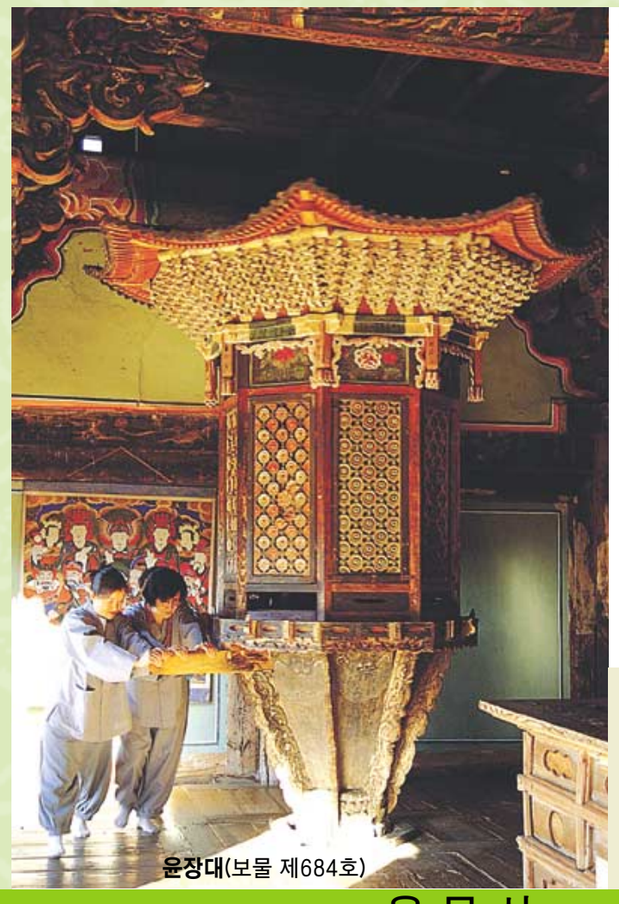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가 사용하던 스타투아리오 대리석으로 계곡에 서있는 여인의 모습, 대나무와 연꽃을 형상화했다. '비파나무 잎새' '기다림' '내심의 향기' '자연 속에서' 등의 작품은 자연과 교감해온 작가가 그 속에서 명상으로 표현해내는 몇 가지 도상을 상징화시킨 것들이다. 한기늠 작가의 조각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서의 체험을 다룬다고 평가받는다. 일상이 조각으로 체화된 작품인 것이다.

한기늠 작가는 15년 동안 이탈리아 중서부 도시의 지중해와 알프스 산맥이 있는 휴양지에 머물면서 그곳의 대리석을 통해 자신의 단상들을 하나씩 둘씩 쪼아내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 대리석과 함께 참선에 들어 자기 일상을 그 안에 조금씩 밀어 넣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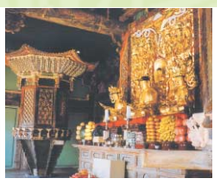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경기대)는 "한기늠 작가는 돌 안에 인간과 자연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한 편의 시를 써넣듯 조각을 한다"며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휴지(休止)케 하는 한 작가의 조각은 명상 수행의 자세를 연상시키기에 불상을 닮아있다"고 평한다. (02)399-1154

강지연 기자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법문 요청 들어오면 '원근 불문'



"염불은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효란 스님은 "염불은 부처님이 공덕을 주시는 것이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며 염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딱 딱 딱…"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인 목탁을 치기 시작한다. 곧이어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 때 덕망이 높은 큰 비구 대중 천 이백 오십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한글 불설 아미타경'이 끝나자 '예불문'으로 이어진다. '한글 불설 무량수경 동방게'가 시작되자 오른손으로는 목탁을, 왼손으로는 북을 치며 "나무아미타불"을 연이어 왼다. 그리고 '발원문'을 낭독한다.

"…예토의 중생들은 아미타부처님의 사십팔원의 맹세를 신봉하고 지금 본원염불도량에서 일념으로 염불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평화에 의한 국태민안과 한국의 남북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염원하오며…."

'반야심경'을 마지막으로 연천 오봉사 조실 효란(曉鸞 · 88) 스님의 저녁 예불이 끝난다. 스님은 매일 오전 5시, 10시, 오후 5시 세 차례 대웅전인 '무량수전'에서 예불을 드린다.

올해 미수(米壽)를 맞은 효란 스님. 오봉사 무애원(無碍院)에서 뵌 스님은 예상보다 정정했다.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으며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 열정이 느껴졌다.

카랑카랑한 목소리 '염불'의 힘 느껴져
예불시간 외엔 집필 몰두, 토론도 즐겨

스님의 주요 일과는 강의와 집필활동과 토론. 스님은 부처님의 감로법문을 목말라하는 곳은 어디든 간다. 〈무량수경〉을 비롯해 정토신앙과 관련한 강의를 주로 하신다.

스님을 뵙던 날 스님의 손가락에 빨간 물이 들어 있었다. 원고를 교정하느라 빨간 사인펜을 장시간 들고 있다보니 물이 든 것이다.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다. 이제는 노환으로 인해 보청기가 없으면 잘 들리지도 않지만, 점점 더 침침해지는 눈을 치켜뜨며 새벽부터 집무실인 영현각에서 원고를 다듬는다.

스님은 토론하기를 즐긴다. 정법을 찾는데 나이나 지위 고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절에 찾아온 젊은 스님과 며칠 동안 계속해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이처럼 스님을 열정적인 구도의 길로 나서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스님은 집안의 도움을 받아 제2고보(현재 경복고)에 다닐 때 첫 번째 운명적인 사건에 부딪친다. 평소 '조센징'이라며 한국학생들을 차별하는 일본인 선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당연히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스님은 한국 유학생들의 모임인 '자숙회(自肅會)' 회장을 맡으며 독립운동을 했다. 결국 일본경찰에 체포된 스님은 3년 3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이 때 스님은 두 번째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한다.

형무소에 있을 때였다. 다른 책은 반입이 금지됐지만 불교서적만은 예외였다. 당시 형무소 교무과장이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 스님은 300여권의 불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불법의 바탕을 다지게 된다.

해방 후 지적인 탐구를 계속했지만 당시 한국불교 현실과 비교할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불교라는 것은 결국 깨닫는 것이지만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구제받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것이다. 구제가 곧 성불이고 이것이 대승불교다. 또 한국은 참선을 위주로 하지만 염불을 해야 육도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

스님은 이러한 생각으로 구도의 길로 나섰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日서 법문할 때는 태극기 게양할 것 요구

저서 '정토삼부경 강설' 등 50만부 법보시

타이완.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청담 스님 재일 때 만난 일본스님으로부터 〈정토삼부경〉을 얻고 '왜 염불을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염불은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중생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중생들에게 가는 것이다. 결국 염불은 부처님이 공덕을 주시는 것이고 그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스님은 1979년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 이후 1년 중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일본에서 생활을 하며 구도의 길을 계속 걸었다. 스님의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구도열에 일본스님들도 감복해 400여 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청했다.

일본사찰에서 법문했던 초기, 스님은 법문하는 절에 태극기를 게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스님이 일본 사찰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981년 오봉사를 건립한 후 스님이 주력했던 것은 법보시. 스님의 저서 〈정토삼부경 강설〉 〈관무량수경 의역과 해설〉 〈불교의 전통신앙〉 등을 출간해 현재까지 50만부를 법보시했다. 이러한 스님의 열정은 어디에서 솟아나는 걸까.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 오봉사 무량수전 주련이 스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極重惡人唯称佛(극중악인유칭불)
我亦在彼攝取中(아역재피섭취중)
煩惱障眼雖不見(번뇌장안수불견)
大悲無倦常照我(대비무권상조아)

'죄가 무거운 악인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함으로써 죄업을 소멸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나 역시 그대와 같이 염불로써 구제받고 있으니, 번뇌의 장애로 인해 보이지는 않으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쉴 새 없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日 와세다대학 문학부 나와

효란 스님은 | 1919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했다. 1931년 수덕사 만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40년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46~65년 경성대 법문학부 및 보성전문학교에서 문화사를 강의하기도 했다. 68년 동헌 스님을 은사로 건당한 스님은 78~83년 조계종 반야회 회장, 83~4년 군법사단 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창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 서원사 • 연천 오봉사 조실이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효란 스님 (연천 오봉사 조실)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일체중생 구제가 '본원'의 핵심
'나무아미타불' 할때 업장 소멸
"늘 보은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각종 도서로 가득한 효란 스님의 서재 영현각. 스님은 저서 <정토삼부경 강설>을 비롯해 50만부 이상을 법보시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효란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마음' 믿고 일념으로 염불을

중국불교의 〈선정쌍수집요(禪淨雙修集要)〉에 보면 임제종의 육조이신 혜능 대사 제자들이 혜능 스님에게 "염불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일구의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칭명염불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설합니다. 첫 번째 집착의 괴로움을 떨어버리는 묘도(妙道)요, 두 번째 성불을 이루고 조사되는 정인(正因)이요, 세 번째 삼계인천(三界人天)의 안목이요, 네 번째 마음을 밝히고 불성을 보는 혜등(慧燈)이요, 다섯 번째 지옥을 깨트리는 맹장이요, 여섯 번째 많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베는 보검이요, 일곱 번째 오천대장(五千大藏)의 골수요, 여덟 번째 팔만총지(八萬總持)의 중요한 길이요, 아홉 번째 흑암(黑暗)을 여의는 명등(明燈)이요, 열 번째 생사를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요, 열한 번째 고해(苦海)를 건너 늘 타고 갈 배요, 열두 번째 삼계(三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열세 번째 최존최상(最尊最上)의 묘문(妙門)이며 무량무변의 공덕이니라.

그러나 이 일구를 기억해 염불하는데, 일이 없어도 일이 있어도 안락할 때도 병고가 있을 때도 살아서나 죽어서라도 일관해 염불하는 것에 대한 일념이 분명하면 또 다시 무엇을 누구에게 물어서 길을 찾으랴. 이른바 일구미타무별념(一句彌陀無別念)하면 불노탄지도서방(不勞彈指到西方)이라.

이것을 번역하면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불하면 손가락을 튕기는 힘을 내지 않아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선을 해서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선은 상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번뇌덩어리임을 앎으로써 화두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근기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따라서 참선보다 염불을 통해 성불도에 입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토문을 가는데 저어하는 것은 두터운 업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경〉 '제불찬탄권유(諸佛贊嘆勸誘)'에 보면 업장이 두터워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염불수행은 너무나 쉬운 행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출·재가 모두 제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방편이 바로 염불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은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연기(緣起)와 삼법인(三法印), 팔정도(八正道)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육바라밀인데, 염불이 바로 연기와 삼법인, 팔정도, 육바라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애입니다. 진리는 물과 같아서 물이 흐르다가 둥근 것을 만나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것을 만나면 네모가 됩니다.

원효 스님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할 때 염불신앙을 권장했습니다.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무애고(無碍鼓)라는 바가지를 두드리며 돌아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를 전했고, 자장 율사를 위시해 의상 대사 등 여러 후학들이 정토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원효 대사의 무애 염불은 스님이 입적하신 후 한반도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효 스님의 염불법과 염불관을 스님 입적 후 500년이 지난 일본에서 성립된 '신란(親鸞, 일본 정토진종의 개조) 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신란 스님의 염불신앙은 원효 스님이 주장하는 '왕생(往生)의 정인(正因)은 발보리심이요 조인(助因)은 염불'이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란 내가 원하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구제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은 수없이 많으나 제일 쉬운 길은



'본원'을 믿고 '염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원'이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즉 모든 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제하고야 말겠다는 맹세이자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자 명호인데, '나무'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몸체입니다. 즉 염불은 부처님께서 마음과 몸을 내던져 결사적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는 동안 나의 과거 80억겁의 업장이 소멸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큰 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염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중생들도 공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고승 선도 대사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계행을 지켜야지 하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차차 악습이 소멸돼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되고 무계(無戒)가 유계(有戒)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오직 당신의 힘에 의해 이 몸이 부처가 되는, 환희와 늘 보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0>



머슴노릇하는 CEO가 주지 소임

그날 제가 찾아간 절은 마침 여러 법회가 봉행 중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절에 사람들의 왕래가 이어졌고 전각마다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웅전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선원에서는 한참 안거중인 스님들이 점심 공양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느라 묵묵히 경내 이곳저곳을 포행 중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절은 수행하는 스님들과 법문 들으러 온 신자들로 북닥북닥해야 절 맛이 납니다.

한바탕 야단법석이라도 치른 듯 회오리바람 일으키며 사람들이 떠나가자 후원 수돗가에는 설거지감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대중들 점심 공양 챙겨주느라 정작 공양주보살과 도와주러온 신도들은 아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저 태산같은 설거지를 어찌 해결하나 망연하게 손놓고 있는데 누군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용감하게 설거지통 속에 두 손을 쏙 집어넣습니다. 주지스님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만 두십시오."

"제발 저리 좀 가 계십시오."

신도들이 놀라서 황급히 달려들어 주지스님을 설거지통에서 떼어놓으려 하지만 스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후딱 해치우세, 후딱."

보다 못해 공양주보살은 와락 신경질까지 부릴 정도였습니다.

"저리 좀 가시라구요. 옷 버리시잖아요!"

그래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도와줄 테니 어서 끝내고 공양들 드시게."

맥 놓고 있던 보살님들은 주지스님 손에 그릇이 닿기 전에 얼른 얼른 빼앗아 일사천리로 설거지를 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정말로 눈깜짝할 사이에 그 많던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긴 뒤 가지런히 엎어졌습니다.

주지스님이 체통도 없이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공양주보살의 짜증을 받아주는 모습은 평소 '주지스님은 친견하기 어렵다'는 재가불자의 선입견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계다가 선원에서 정진중인 젊은 스님들이 모습을 보일 때마다 행여 불편한 구석은 없는지 근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오가는 불자들에게 일일이 차를 대접하며 근황을 물어가면서도, 때맞춰 열리는 법회마다 가사 장삼 다 갖추고 여법하게 봉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지? 아이고… 그건 머슴 노릇하는 자리야'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스님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 소임엔 어짊 총명 용기 필요
재정 관리나 허드렛일 처리 떠나
총림 키우는 경영자 자질 갖춰야

이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끌어안는 자리이다 보니 <선림보훈>에서는 아예 주지 노릇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령을 일러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지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일이 번거로워도 두려워 말고, 일이 없다 해서 굳이 찾지도 말며, 시비분별을 말아야 한다."

"주지 소임을 사는 데에는 어짊 · 총명 · 용기의 세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어진 자는 도덕을 행하여 교화를 일으키고 상하를 편안하게 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총명한 사람은 예의를 지키고 안위(安危)를 식별하며 흘륭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살피고 시비를 분별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한번 했으면 의심치 않으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이를 반드시 제거한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총림이 일어나고 하나가 모자라면 기울 것이며, 두 가지가 부족하면 위태롭고, 세 가지를 하나도 갖추지 못하면 주지의 도는 폐지될 것이다."

"훌륭한 주지는 덕을 길러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풂으로써 덕을 지닌다. 덕스러우면서도 은혜를 기를 수 있으면 굴욕스럽지 않고, 은혜로우면서도 덕을 실천하면 은택(恩澤)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덕과 은혜가 함께 쌓여가며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옛 성인께서 수행자들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총림을 세워 그들을 머물게 한 뒤에 주지를 뽑아 통괄하게 한 것"이 주지 소임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지 소임은 사리사욕을 떠나 사찰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허드렛일에 종일 힘을 쏘는 머슴노릇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조(佛祖)의 맥이 청정하게 그 절속에 살아숨 쉬도록 납자들을 맞아들이고 키우는 데에도 일가견을 지닌 CEO(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즘 불교계 신문에 연일 오르내리는 사찰의 주지 선출과 관련한 기사를 보자니 자못 기대가 커집니다. 묵묵하게 머슴 노릇할 청정하고 유능한 CEO인 '주지'-과연 어느 분이 제격일까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자원봉사로 신바람난 가족! 여름휴가 계획 끝!!

2006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부모와 자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가족의 화합과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청정한 산속에서 알찬 여름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모집합니다. 우리 가족의 참여로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나눔과 감동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 활동기간 : ◦1차 (7월 17일 - 7월 19일) ◦2차 (7월 24일 - 7월 26일)
  ◦3차 (7월 31일 - 8월 2일) ◦4차 (8월 7일 - 8월 9일) ◦5차 (8월14일 - 8월 16일)
- 활동일수 : 2박 3일 자원봉사활동 및 여름 휴가 (참가비: 가족당 3만원)
- 신청자격 :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자녀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 (신청서는 연꽃피는집 홈피 www.yeongbulwon.or.kr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활동내용 : 자원봉사, 등산/산책, 가족간대화, 야간영화관람, 명상음악감상, 물놀이
  참나를 찾아가는 자유로운 종교활동
- 인센티브 : 가족자원봉사 참여 가족에게는 자녀 소속학교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통지하고
  연말평가시에는 우수 가족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 가족자원 봉사의 장점 및 긍정적 효과

•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가족이 함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가족간의 유대가 돈독해짐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 다른 가족구성원과도 친밀감이 형성되어 이웃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일찌기 자원봉사 경험을 함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 가족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

2006 여름 불교학교 시설 무료개방안내

여름불교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사찰에 시설을 개방합니다.

- 숙박 200평, 대강당 150평 (음향, 조명, 노래방, 영화관람 대형스크린)완비
- 주최 측 요청 시 그룹사운드 로터스 무료공연 • 맑은 냇가 넓은 운동장 유
- 중앙고속도로 가산 IC에서 10분거리 (자원봉사기회제공) • 식단 및 불교학교프로그램은 주최 측 계획 및 운영

◆ 신청 및 문의 : 사회복지법인 迎佛院 법인사무실 ☎ 054)971-2815
노인전문요양원 연꽃피는집 ☎ 054)971-6063~4, FAX 054)971-0355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 3번지 연꽃피는집
(연꽃피는집은 경북에서 제일 큰 무료치매중풍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연꽃피는집

혜거스님과 함께하는 하계 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혜거스님의 참선지도로 수련회가 진행 됩니다.
특히 혜거스님의 참선법문과 개인 면담이 계획되어 있는 하계수련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대학생이상 남 · 녀 일반인 35명씩(선착순)
- 일 정 : 3박 4일

1차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2차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3차	7월 28일(금) ~ 7월 31일(월)

- 장 소 :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장(강원도 홍천 소재)
- 참가비 : 7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3040-51-017583 예금주:손수열)
- 준비물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 접수 및 문의 : 홍천 선문장
  (TEL : 033)433-5845~6 / FAX : 033)433-5847)
- 교통편 : [승용차] 서울 - 88도로 - 양평 - 홍천(44번국도) - 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향남,현리방향) - 451번지방도로
  (7km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팻말 보임)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 표 구입
  - 1번홈에서 내촌혹은현리行 버스 승차
  -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대한불교 조계종 金 剛 禪 院

춘원이 음미하던 차향기 그대로…

봉선사, '다경향실' 맥 이은 무료다실 열어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무료다실. 6월 1일 문을 연 이곳에는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고영배 기자



운허 스님이 춘원 이광수에게 내어준 거처의 이름인 '다경향실'. 춘원이 5년간 머물렀던 다경향실은 한국전쟁 당시 무너졌고 봉선사 마당 한켠에 세워진 지석에서만 그 향취를 찾을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운악산 봉선사. 근대 불경(佛經) 한글화를 이끈 운허 스님(1892~1980)과 한국근대문학사의 선구적 작가였던 춘원 이광수(1892~1950)의 차 인연이 서린 이곳에 무료 다실이 문을 열어 차향을 이어가고 있다.

봉선사를 찾은 6월 13일. 사찰 초입에 세워진 '춘원 이광수 기념비'가 먼저 객(客)을 맞이한다. 1975년 건립된 이 기념비에는 춘원과 운허 스님의 인연이 새겨져 있다.

1917년 장편소설 <무정(無情)>을 발표하며 근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춘원.

1919년 일본 도쿄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임시정부 설립 활동에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결국 친일로 발길을 돌리고 만다. 해방 후 친일 변절자로 낙인찍히고 문필권에서조차 소외된 그는 지친 심신을 달래줄 곳을 찾아 나섰다.

그때 춘원을 받아 준 곳이 바로 봉선사다. 당시 봉선사에는 춘원의 육촌 동생 운허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허 스님은 춘원에게 '다경향실(茶經香室)'이라 이름 지은 방을 내어주고, 춘원은 5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차와 불교 인연을 맺었다.

춘원이 남긴 다시(茶詩)에는 조용한 산사에서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며 느꼈을 그의 회환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화로에 불 붙어라 차 그릇도 닦았으라 / 바위샘 길어다가 차 달일 물 끓일 때다 / 산중에 외로이 있으니 차맛인가 하노라."

한국전쟁 기간 무너진 다경향실은 이후 1978년 애월재(愛月齋)가 있던 자리에 '다경실'이란 이름으로 다시 지어졌고, 이후 역대 조실스님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다경실 뜰 앞에 세워진 '다경향실' 지석에서만 느낄 수 있던 운허 스님과 춘원의 차 인연은 봉선사 다실로 옮겨왔다.

올 6월 1일 문을 연 다실은 봉선사를 찾는 사람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이다. 드넓은 연밭이 내려다보이는 다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차호에는 햇차가 담겨 있고 다실 곳곳에는 물이 끓고 있다. 다구를 다룰 줄 안다면 직접 차를 우려 마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실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좋다. 다구를 정리하고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은 요일을 정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선사 다도반 회원들이다. 다실에서 제공되는 차 역시 회원들과 다도반 지도법사 혜종 스님의 보시로 마련 된 것.

쾌적한 실내·창 밖의 넓은 연밭 보며
직접 차 우려 마시면 몸도 마음도 '休~'

다도반 지도를 맡고 있는 김미려 다예랑 회장은 "아직 다실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표지판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봉선사 교무국장 도암 스님은 "절을 찾는 사람 누구나 편히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실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선사를 찾는 사람이라면 부담 없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다실을 찾아볼 일이다. (031)527-1915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김정희 등 차인 50명 삶 조명
정찬주씨 <다인기행> 펴내



차인의 삶을 뒤좇아보는 일은 우리네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보는 일과 다름 아니다.

소설가 정찬주씨가 우리나라 차문화 중흥조 초의선사와 서산대사, 보조국사, 원효대사, 추사 김정희 등 차인 50명의 차 인연을 담은 <다인기행>을 펴냈다. '그들에게 차 한 잔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화두삼아 다인들의 체취가 남겨져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다산 정약용이 차로 심신을 추스르며 <목민심서>를 완성한 강진 다산초당이나 신라 구산선문의 사자산문 개산조인 철감선사의 차향이 스민 화순 쌍봉사, <송자대전>에 차를 권장하는 글을 남긴 우암 송시열의 남간정사 등을 따라가다 보면 차인들의 삶과 그들의 차 생활을 만날 수 있다. 정씨는 "거친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몫을 다하고 간 옛사람의 차 한 잔, 마음 한 잔까지 전해져 삶의 위안과 지침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차문화대전, 25일까지

우리나라 차 문화·산업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차문화대전(Tea World Festival)이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국제차문화대전에는 7개국 100여 개 차 관련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차 생산지인 하동과 보성 구례 제주 등의 차 업체들이 올해의 햇차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영국 중국 대만 일본 스리랑카 등지의 명차(名茶)들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사단법인 차인회가 마련한 '찻자리의 미학적 접근'에서는 돌잔치, 폐백, 개업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찻자리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입장료 3천원. www.tewnews.com (02)6000-8000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9. 정보화 사회의 허식 ④

녹차의 품질은 녹차가공 중 첫 번째의 공정인 살청에서 결정된다. 살청공정에서 산화효소를 얼마나 잘 파괴했느냐에 따라 녹차의 질이 달라진다. 보이차가 녹차와 등식이 될 수 없는 것은 살청공정에서부터 그 개념이 다르게 쓰이기 때문이다.

사실 보이차의 원료로 쓰인 찻잎은 살청공정을 하기 전에 이미 산화된 것이 보통이다.

찻잎은 차나무에서 채취한 후에도 호흡을 계속한다.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찻잎을 두껍게 쌓아 놓을 경우 무산소호흡으로 인한 산소의 결핍과 호흡으로 통해 생산된 열량에 의해 찻잎이 산화된다. 도 즉 엽온(葉溫)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면 산화효소는 단시간 내에 활성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된다.

또한 단시간 내의 고온쾌속건조방법인 초청(炒靑) 또는 홍청(烘靑)의 건조온도는 대체로 120~140℃이므로 산화효소는 더 많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 녹차의 수분 함수량이 4~6% 사이기에 추후의 산화작용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화효소의 철저한 소멸공정은 녹차가 묵힐수록 맛이 없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반대로 고열과정에서 실활 또는 혼미상태에 놓인 산화효소 중 특히 폴리페놀 옥시다젠은 햇볕에 쬐여 말리는 과정에서 산소와 수분의 참여 그리고 저온환경에서 산화효소의 회생은 추후

보이차, 살청하기전 대부분 잎 산화
쇄청법 의한 강한 냄새 진위 판별 잣대

심할 경우 암모니아 냄새 같은 악취마저 풍긴다. 그래서 찻잎의 시들이기 작업을 할 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일정한 두께로 찻잎을 쌓아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보이차는 어떤가? 차 소작농들은 찻잎을 쌓아 놓는 두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마음에 가는대로 찻잎을 쌓아둔다. 그래서 살청공정을 하기 전 대부분의 잎은 이미 산화 변질된다. 녹차의 경우 산화효소를 파괴하는 것이 살청의 목적이라면 보이차의 경우 산화효소와 관계없이 찻잎을 보다 쉽게 비비기 위해 숨을 죽기는 것이 살청의 목적이다. 이것이 보이차의 살청 개념이 녹차의 살청과는 다른 까닭이다. 또한 산화효소 파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과정에 과연 '살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타당한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분분하다.

보이차는 산화를 좋아한다. 산화효소가 살아있어야 훗날 후발효작용에 의한 바른 보이차의 맛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보이차를 햇볕에 쬐어 건조시켜 마무리하는 것도 산화효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롯된 작업이다. 보이차의 살청이 비록 녹차의 살청과 다르더라도 고열을 통한 숨죽기기 공정에서 상당한 산화효소가 실활(失活) 또는 혼미상태에 놓이게 된다. 녹차의 경우 살청공정에서 찻잎의 온보이차의 후발효공정에서 결정적 산화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화학반응은 보이생차 뿐만 아니라 소위 미생물발효이라 불리는 보이숙차에도 적용된다. '악퇴발효(渥堆醱酵)' 공정이란 폴리페놀 물질들이 미생물의 작용 아래 발생되는 극렬 복잡한 생물들의 전화(轉化)와 촉매작용에 의한 일련적인 화학반응이기 때문이다.

햇볕을 통해 말린 찻잎 즉 쇄청법의 찻잎에는 강한 햇빛 냄새(日晒味)가 배어난다. 이는 햇빛 속의 자외선이 공기 중의 일부 산소를 악취로 변환시키는 작용과 이러한 악취가 찻잎속의 일부 물질들과 산화작용을 일으켜 발생되는 냄새다.

이러한 휘발성 냄새들이 녹차에 적용되면 녹차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이차일 경우 보이차의 진위를 판별하는 잣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 홍청법으로 말린 녹차가 보이차로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한서대학교



찻잎을 햇볕에 말리는 쇄청법.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 서는 포교잡지

클리어마인드는,
수행이 살아있는 한국불교와 미려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여 국외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국내 불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고자 국내외에 배포되는 클리어마인드는
한글·영문 혼용으로 발간되는 고품격 격월간 포교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동양의 문화, 불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 입니다.
클리어마인드는 그 시작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클리어마인드를 펼쳐 보는 일,
진리를 펴는 귀하고 귀한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CLEARMIND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국내외 사찰, 지인知人, 학교, 병원, 불교 대학, 단체, 군부대, 교도소 등에 보내고자 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 가능합니다.
- 국내 : 30,000원(1년) - 국외 : $48.00(1year) - 법보시 : 한구좌당 3만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TEL.(02)2198-5152 FAX.(02)2198-5153 clearminds@daum.net / cmind@naver.com



눅눅하니 우울하고 짜증나죠?

장마철 미리 대비하세요

올 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3일 정도 빠른 6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는 한달간 지속되며 많은 비를 뿌리다가 7월 하순쯤 물러날 것으로 관측됐다. 장마철 동안 흐린 날과 지루한 장맛비가 이어지다보면 자칫 건강에도 먹구름이 끼기 쉽다.

김동일 교수(동국대 한의과대학,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장)는 "장마철에는 각종 식중독을 비롯해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이 많아지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음식물은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평소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조개, 굴 등의 어패류와 생선회를 날로 먹는 것을 삼가야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장마철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집안 곳곳 살피기

 # 집안 습기, 숯과 보일러로

장마철 눅눅한 습기를 잡는 데는 숯이 특효. 집안 곳곳에 숯을 놓아두면 습기를 조절해준다. 많이 습한 날은 실내에 에어컨보다 보일러를 틀어 건조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 빨래 쉰내엔 식초 한 방울

장마철 가장 골칫거리는 빨래다. 장마가 오기 전 햇볕에 이불이나 베개 등의 침구류를 햇볕에 말려둔다. 장마철에는 금방 세탁한 옷에서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살균제가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거나 헹굴 때 식초나 섬유린스를 넣으면 쉰 냄새를 막을 수 있다. 섬유린스의 경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세균 냄새와 섞여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약간만 넣는다. 세탁 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 빨래를 말릴 때는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발 말려 보관하고 신문지 활용

비에 젖은 신발은 신발장 전체에 습기를 증가시키고 신발 자체에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신발장의 먼지를 털어 낸 뒤 드라이기로 1~2분간 말려 습기를 제거한다. 젖은 신발에는 신문지를 넣어 두면 습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습기제거제나 숯을 넣어두는 것도 곰팡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 빗물 스며들 땐 문틈에 양초칠

장마철 빗물이 유리창 틈이나 창틀 사이로 스며들 땐 창틀에 페인트칠을 하고 창틀과 창살, 문지방 등에 양초 칠을 해두면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또 창틀에 양초를 칠해 두면 먼지가 쌓여도 달라붙지 않아서 청소하기 쉽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행주를 수시로 삶아 소독해야 한다.

 # 칼 · 도마 · 행주 소독은 필수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과 도마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칼과 도마는 사용 후 뜨거운 물로 헹궈 세워서 물기를 말린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행주도 수시로 살균해 준다.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8분 이상 가열해야 충분히 살균된다.

 # 가정 불단은 마른 걸레로 청소

가정 불단을 마련해 놓은 집이라면 장마가 오기 전 불단을 말끔히 청소해 두는 것이 좋다. 장마철에는 물기가 잘 마르지 않아 불단 청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젖은 걸레로 불단을 닦은 후에는 꼭 마른 걸레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불단이 있는 곳의 환기를 자주 시키거나 선풍기를 틀어 내부습기를 말리는 것도 필요하다.

불구(佛具) 중 금속류는 습기가 차면 부식이 되기 쉬우므로 수시로 마른 걸레로 닦아준다. 불단 주변에 습기제거제를 놓아두는 것도 좋다.

▷ 장마철 건강관리

 # 물 꼭 끓여 마셔야

장마철에는 음식과 물을 반드시 끓여 먹는다. 찬 아이스크림이나 맥주 대신 몸의 습기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율무차나 보리차, 오미자차, 맥문동 우린 물 등을 자주 마신다.

 # 관절염 환자 특히 주의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올라가 인체가 느끼는 공기는 무덥지만 몸의 열을 빼앗겨 찬 기운이 맴돌기 마련이다. 이 때 몸에 습한 기운이 차게 되면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다.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은 관절 질환에 매우 해로우므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다.

 # 우울증엔 햇살 쬐는 게 약

장마철에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울감을 자주 느끼고 체중이 줄어들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햇빛이 많은 드는 창가에서 생활하고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 보일러를 가동해 집안 습기를 제거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가나 맨손체조 등의 실내운동을 꾸준히 하면 마음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 수련회 참가시 우산, 비옷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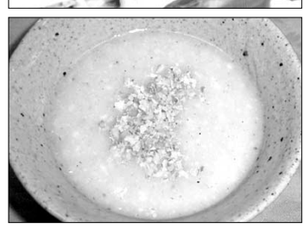
전국의 사찰에서 개최하는 수련회나 템플스테이는 장마철에도 많이 열린다. 갑자기 계곡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장마 기간 동안은 무리한 산행을 피한다. 사찰수련회, 템플스테이 등에 참가하게 될 경우 우산과 비옷을 꼭 챙겨간다. 자녀가 사찰에 머물게 될 경우 안전 수칙을 일러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2>

감자피자와 감자두유





제가 어릴 때와 달리 요즘엔 일요법회에 어린 법우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찰에서는 유치부, 초등학생부, 중 · 고등학생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법회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게 됨으로써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은 좀 더 많은 어린 법우님들을 사찰에 오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 간식을 사기도 합니다. 그 스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불교를 이끌어나갈 원동력은 바로 이 어린 법우님들입니다. 어린 법우님들이 이렇게 자주 사찰을 찾아오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많은 대중들에게 전해준다면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이겠지요. 나라의 기둥이 어린이듯이 어린 법우님들이 일찍부터 부처님 교리를 배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기간 힙합 스타일로 만들어진 <반야심경>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어린 법우님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그 <반야심경>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불교문화도 대중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사찰음식도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요법회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간식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법우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피자입니다. 가끔 스님들께서 피자를 사주시기도 하지만, 사찰음식 조리법으로 만든 피자는 칼로리도 낮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정성이 듬뿍 담긴 사찰식 피자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만드는 법



<사찰식 피자> 재료: 감자 5개, 청피망 1개, 양송이 3개, 노랑 파프리카 1개, 깻잎 2장, 밀가루 1큰술, 물 3큰술, 모짜렐라 치즈 1봉, 포도씨유 5큰술, 죽염 약간, 사찰식 토마토 케첩 1/2컵

① 감자는 찜솥에 쪄서 뜨거울 때 곱게 가루를 내 밀가루를 섞은 후 반죽하고 깻잎은 채썬다. ② 청피망과 노랑 파프리카는 원형으로 자르고, 양송이는 얇게 썰어 포도씨유에 볶는다. ③ 감자에 죽염을 넣어 반죽한 후 프라이팬에 얇게 펴준다. ④ 원형으로 만든 감자에 사찰식 토마토 케첩을 바른다. ⑤ 양송이와 청피망, 노랑 파프리카를 얹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 뚜껑을 덮고 팬에 지진다. 깻잎 채를 올려 마무리한다.



<감자두유> 재료: 감자 1개, 우유 2컵, 두부 1/4모, 죽염 약간, 호두가루 1작은술

① 감자는 껍질째 쪄서 준비한다. ② 두부는 물기를 꼭 짠다. ③ 믹서에 두부와 감자를 넣고 우유와 함께 갈아준다. ④ 죽염으로 간을 한 뒤 호두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사찰식 백김치와 배추우거지볶음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로봇이 해탈을?

영화 '인류멸망보고서' 크랭크 인
김지운 감독 '천상의 피조물' 눈길


김강우(박도원 역)


김민선(혜주보살 역)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 로봇이 해탈할 수 있을까? 과감하게 로봇의 해탈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영역의 SF영화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옴니버스 SF영화 '인류멸망보고서(가제)'의 '천상의 피조물(가제)'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절에서 일하는 로봇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천상의 피조물'은 박성환씨의 단편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2004년 과학기술 창작문예 공모전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레디메이드 보살'은 깨달은 로봇이 자신의 회로를 끊으며 열반(?)에 들기까지 스님들의 혼란과 깨달음 인정에 대한 논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천상의 피조물'에는 깨달음을 얻은 로봇과 감정이나 생각이 금지된 로봇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로봇 수리요원 박도원, 로봇을 지키기 위해 수리요원과 감정적 대립을 이루는 혜주보살 등이 등장한다.

깨달은 로봇과 인간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박도원 역에는 김강우가, 로봇 제조사와 대립하는 의지 강한 여성 혜주보살에는 김민선이 각각 캐스팅됐다.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이 원작
깨달음 인정 논란 고스란히 담아
SF 옴니버스, 2007년 개봉 예정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달콤한 인생' 등 현실적 공간에 뿌리를 둔 판타지 영화의 대가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김지운 감독의 영화는 비현실적인 공간이 주는 '공간의 판타지' 연출이 뛰어나다는 평단의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런 그가 연출을 맡았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사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의상, 공간, 소품 모두가 미래 시대에 맞춰 제작될 '천상의 피조물'이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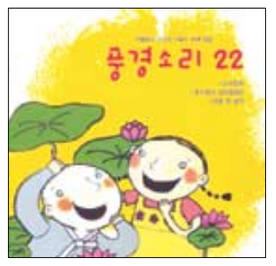
한국형 SF의 새 장르를 개척하고자 만들어지는 '인류멸망보고서'는 세 편의 단편들을 모은 SF 옴니버스 작품이다. 근 미래 지구의 멸망 시점을 전후로 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았다.

'인류멸망보고서'는 '천상의 피조물' 외에 좀비가 된 순수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임필성 감독의 '멋진 신세계',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비틀어 지구멸망을 목도한 연인들의 뮤지컬을 담은 한재림 감독의 '크리스마스의 선물' 등으로 구성된다.

편 당 15억원씩 총 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할 '인류멸망보고서'는 2007년 초 개봉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풍경소리' 찬불동요 22집 발표



자연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자연에서 만나는 부처님'을 주제로 아름다운 숲 속의 하루를 노래한 풍경소리의 스물두 번째 찬불동요집이 나왔다.

신나는 여름불교학교를 겨냥한 이번 앨범은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 목탁소리 등과 함께 흥겨운 소리잔치를 표현해냈다.

22집에는 '소리잔치' '웃으면서 살아갈래요' '연꽃 한 송이' '여름밤 이야기' '내 마음의 연꽃' '연꽃자리' 등의 노래들이 담겼다.

한편 풍경소리는 찬불가 듣기 코너와 자료실을 확대한 풍경소리 홈페이지(www.budsori.or.kr) 개편을 단행했다. 6월 한 달간 베타테스터로 오픈한 풍경소리 홈페이지는 기간동안 도움말씀이나 개편의 견을 수렴해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생명평화 백배서원 음반 제작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밝힌 생명평화의 등불로 인해 온 누리의 뭇 생명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하며 백 번째 절을 올립니다."

온 누리 생명평화를 기원하며 첫 번째 절에서부터 마지막 백 번째 절에 이르기까지 나와 이웃을 이해하자고 외치는 '백배 서원문'을 곱게 담아 생명평화결사가 CD를 만들었다. '온 숨'은 100번의 절이자, 생명의 근원인 모두의 호흡으로 간절한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음반이기도 하다.

도법 스님, 김경일 신부, 노혜레나 수녀 등이 낭송하는 백배 서원문은 1배~32배, 33배~70배, 71배~100배의 세 곡으로 나눠 수록됐다. 이외에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음악이 어울린 산들바람, 흙 위의 기도, 풀잎의 아리아, 참회, 물위의 햇살 등의 배경음악이 '온 숨'에 담겨있다.

2006년 3월 탁발순례단의 첫 걸음과 함께 꼬박 3개월만에 생명평화 100배 서원음반 '온 숨'이 제작 완료된 것이다.

생명평화결사 최명진 문화위원(광주 미래에서 온 교회 목사)은 "음반을 들으면서 100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4분 43초, 전라북도를 걷고 있는 순례단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평화 백배를 올린다"며 "25명의 평화결사 등불들은 서원문 낭송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왔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생명평화의 마음으로 기획, 작·편곡, 연주, 디자인을 위해서 정성껏 재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063)636-1950

강지연 기자

중앙일간지

종교담당 기자들 '전문화'

사회적 관심 반영, 현장 복귀도
지식 안목 경험 두루두루 겸비

중앙일보 이헌익(55) 기자. 중앙일보 스포츠문화담당 부국장과 편집국 문화담당 부국장 등을 거친 이 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윤정국(49) 기자 역시 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과 문화부장을 거친 후 지난해 5월부터 문화전문기자로 현장에 복귀했다.

최근 중앙·동아일보가 논설위원이나 보직부장 등을 지낸 '고참 기자'를 취재 일선으로 보내는 '선임기자제'를 도입함으로써 40~50대의 기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종교 분야 출입 기자들이 예전보다 더욱 '전문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취재 분야와 달리 종교분야에는 유독 '전문기자'가 많다. 종교가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방증이다. 한국지식재단은 2004년 6월부터 전문기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1월부터 한겨레 종교면을 담당해 온 조연현(43) 기자는 지난해 10월 전문기자 심사를 통과해 '종교전문기자' 타이틀을 달았다.

한국경제신문의 서화동(43) 기자는 1991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종교 담당을 자원한 이후 지금까지 종교분야 취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신문 문화부장 김성호(46) 기자도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도재기(42) 기자와 문화일보 김종락(45) 기자 역시 종교계에선 친숙한 이름이다. 수년간 문화부에 몸담으며 종교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연현 기자와 서화동 기자는 종교담당 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각각 <영혼의 순례자>(한겨레신문사),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은행나무) 등의 책을 펴내 대중적인 인기도 함께 누리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재기 성공, 우승 감격



불자골퍼 박세리 선수(사진)가 2년간의 기나긴 슬럼프에서 벗어나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두 번째 메이저인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6월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의 블록골프장(파72·6596야드)에서 열린 맥도널드LPGA챔피언십 마지막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캐리 웹(호주)과 연장에 돌입한 뒤 첫 홀에서 극적인 버디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지난 2004년 5월 미켈롭울트라오픈 우승 이후 슬럼프에 빠진 박세리는 이로써 2년1개월 만에 통산 23번째 우승컵을 안으며 부활의 나래를 폈다.

우승 상금 27만 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12위가 된 박세리는 경기 후 "다시 우승하게 돼 매우 행복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강지연 기자

천축사, 1000여점 만다라 전시

전 세계에서 제작된 1000여점의 진품 만다라가 국내에서 선보이고 있다.

6월 18~24일까지 홍천 만다라보궁 천축사에서 열리는 '2006 홍천 해미만다라 산사 대축제'에서는 '칼라챠크라(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 만다라를 비롯해 '21 관음의 눈동자(21 Magic Eye)' 등이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홍천 천축사에 새워진 만다라보궁은 2년전 착공해 이번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만다라는 서울 만다라문화원 원장 동휘 스님을 비롯해 인도 네팔 부탄 티베트 유럽 등 세계 10개국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려낸 만다라들이다.

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만다라보궁 개관식과 함께 만다라 전통혼례, 청소년 우리쌀사랑 프로그램 등이 개최돼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동휘 스님은 "만다라 밑그림을 쌀로 선을 그으면서 시작하는데 쌀이 우주를 상징하고 그 우주를 중심으로 만다라 세상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쌀과 우주, 인간, 만다라가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02)432-0821

강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총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6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어 있는
함초
함초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든 바닷물을 한껏 빨아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은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아주 좋은 효능을 고루 얻게한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혈액순환이 좋아 저혈압, 고혈압, 증혈작용에 효과.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
▶비만치료에 좋은 효과 부인병에 효과.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치료에 효과.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추어 낫는다.
▶갑상선 기능에 효과가 크다.
※ 먹기좋게 손으로 직접(환,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약값은 절을 짓는데 불사에 쓰여짐
※ 비구니 스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함초를 복용후 완치
함초구입 문의
054)638-4796
010-4591-4796 백련정사 백련스님
입금계좌 : 농협 751025-51-024864 백련정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아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3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6월 21일(음력 5월 26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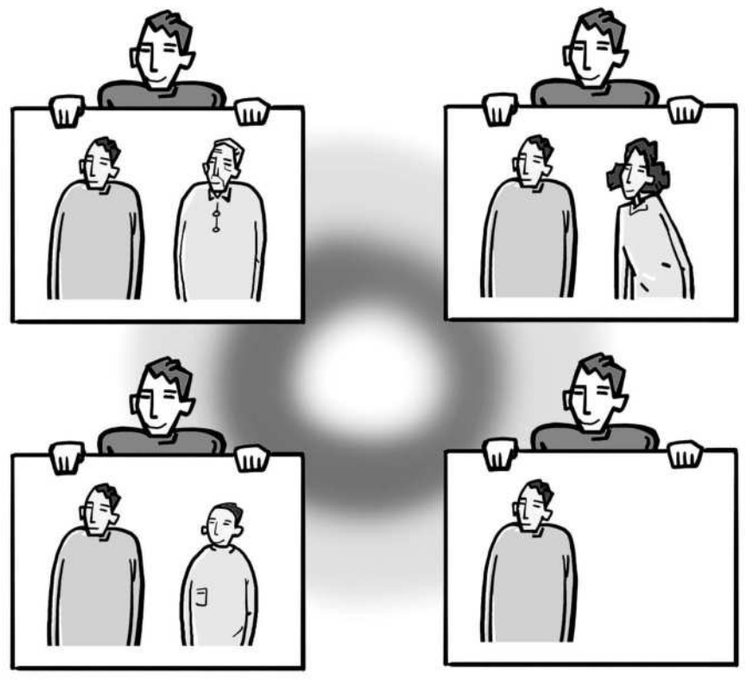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한생각 잘 돌리면 밝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대구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우리 삶을 떠나서는 부처님 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가 없이는 부처님도 없을 것입니다.

'불(佛)'이라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또 통신과 통신으로 통신을 하면서,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佛敎)라는 그 단어는 전체 삼천대천세계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명이 있는 것 움쭉거리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생명이 있으니만큼 불이요, 지수화풍도 불이요, 모두가 불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 달리 종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불자로 하여금 광대무변하며 더하고 덜 함도 없는 이 진리 자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고정됨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고정되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은 것은 이 세상만사가 천차만별로 고정됨이 없이 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무명초라고 해서, 그릇을 비운다는 뜻에서 다 깎아 버린 겁니다. 승복이라는 것은 순색을 표현한 것으로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귀중한 옷인지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고, 과일나무도 10리 안팎으로, 아니 20리 30리라도 서로 말 없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말로만 그르니 옳으니 시비를 해서야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과 마음의 전달로써 자녀들과 부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 자식이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나쁜 일만 저지르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일러 줬습니다. "말로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하고 몸으로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붙잡아지지 않는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바로 이 세상만사가 다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게 같이 상응하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라. 아들이라고 알고, 부모라고 아는 생각이 바로 가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설이 돼 있으니 내 주인공에 맡기면 함께 돌아가게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있음으로써 바로 불이 들어올 수 있고, 불이 켜질 수 있고 불이 꺼질 수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근본이 둘이 아니듯이, 전력이 둘이 아니듯이, 금속이 둘이 아니듯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전력이나 금속을 끌어 쓰는 데에 달렸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할 때 비로소 아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서 밝게 살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 드렸죠. 그랬더니 마음으로 그대로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모든 거를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으로 놓고 굴리고 하니까 너무 착해졌답니다.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살림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신이 움쭉거리는 그 자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항상 우리들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재료로 주어져 있으니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이든 삼천 년 후든 언제든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8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어떤 분들은 4월 8일에만 부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그 마음속에는 항시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네 가지 재료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전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한 바구니에 담긴 꽃다발 하나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다 꿰뚫어서 맛을 알고 보고 감촉하고 그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합쳐 여러분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나투면서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 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듯이, 중생들은 마음을 널리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널리 내시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모습 하나 부처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부처 자리 아닌 게 없고, 어느 생명 하나 부처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생각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을 다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는 데 대하여, 내 몸 바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부처님 법인 줄 아시고 철성 찾고 독성 찾고, 또 약사 찾고 지장 찾고 이렇게 갈갈이 나누어서 찾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나 한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자동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뜻과 말과 행이 화해서 바꿔지면서 생활을 여여하게 해 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 부적을 안 하면 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린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자유스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책을 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생각을 해 뒀다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이 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릇이 무조건 어느 거든지 다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고 내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둘 아닌 도리를 가져야만이 아주 마음과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나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의 그릇을 텅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서로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절에서 예불을 모실 때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염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꽃을 공양 올릴 때도, 여북하면 꽃공양입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꽃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를 켜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기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향을 피우는데, 악한 것은 다 스리면서 선하고 아주 똑바른 마음을 내서 글리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며 마음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부처님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상대성 원리가 모두 생긴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과 같으니 바깥으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모든 것을 둥글려서 내 주인공에 놓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내 친구여! 나를 관리인으로, 시자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삼아 이렇게 몸뚱이를 끌고 다니니 모든 것은 다 당신이 하는 거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집이 헐어지면 집에 들어 있는 주인이 고칩니까, 헐어진 집이 고칩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집을 고칩니다. 그렇듯이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끊어 낼 수 없고 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자성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제도해야 여러분이 제도가 되고 깨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첫째 '계향' 할 때 말입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계율도 생겼고, 또 스님 노릇도 하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릴 깎고 안 깎고 이걸 떠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놨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 남의 탓으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화목이 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바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계향이지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계향이 아닙니다. 250계든 280계든 일일이 개수로 따져서 어떻게 계를 지킵니까?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향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주인공 선을 세워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잘못 일어나게 한 것도 너니까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너지.' 하고 잘못되는 거는 한생각 잘 내서 돌려놓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하찮게 듣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줄 때에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재수도 있을 수 있고, 공덕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바로 여여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혜향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봄이 없이 관찰하고 둘로 보지 않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그러니 스님네들만 '정향 혜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사랑,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 부드러운 말, 이것을 떠나서는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나 자체를 물질계로 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둘 아니게 글리면서 참다운 삶을 보람 있게 누릴 것입니다.

해탈향이니, 만물만생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 모두가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항상 밝아서 여여하니 바로 그것이 해탈향입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이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전달이 되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서 여여하니, 항상 밝아서 안팎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중생들을 둘로 보지 않고 제도하게 돼서 가고 오면서도 그대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해탈지견향이니,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생각하고 보살피되 밝게 보살핌이 항상 걸림 없이 구족한 까닭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여여함을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너는 해탈지견향까지 이루었다 하더라도 첫째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다 버려서 다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너는 누가 보시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줄 수 있는

☞30면으로 계속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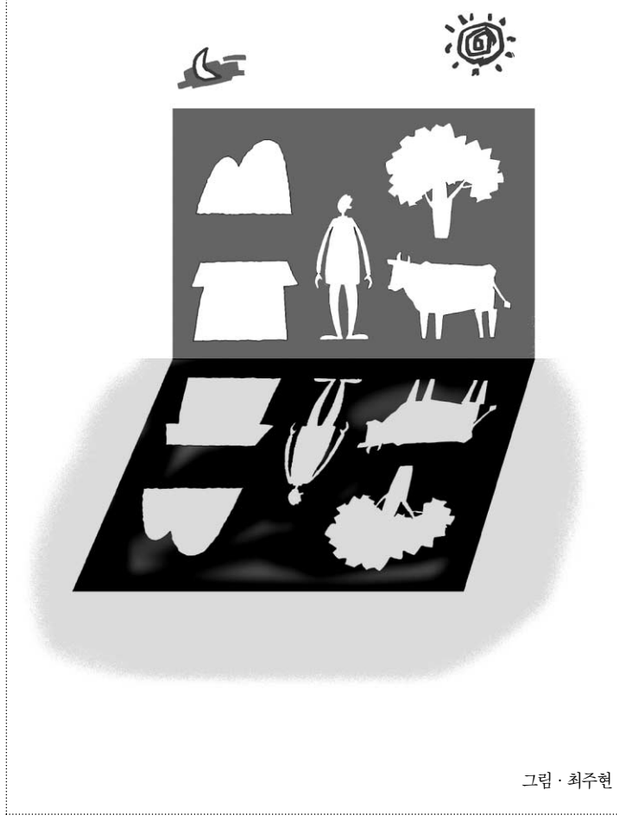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그릇을 텅 비워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천당도 바로 현실에,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화풍이 대두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마음과 마음,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뛰듯이 말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제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안팎으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도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뵀을 때, 형님이 뵀을 때, 남편이 뵀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려야만이 맛있게 집어 잡술는지….

우리 마음은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뭐가 놓여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것도 다 캐치해 가지고 지금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크고 작음이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지 못하시고 항상 물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요것은 못한다, 요것은 한다, 요것이 간다 온다…, 이러는 관습에 의해서만 살아나가고 계십니다. 좀 껑충 뛰어넘어 보십시오. 내 한생각에 의해 내 몸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즉 말하자면 일체 생명들,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바깥으로는 바로 마음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 내 안에 놨을 때
>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져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선행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마음에는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높지 않고 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깊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고 통하니까 그 속을 통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은산철벽이다 할지라도 마음은 통하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고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게 쓰십시오. 둘로 보지 않는 눈으로 보고, 둘로 보지 않는 귀로 듣고 마음을 넓혀서 모두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옹졸하게 '요거는 요거고 조거는 조거다' 하고 적대시하게 되면 그 크나큰 진리를 타파하지 못하며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구에 붙어 있는 생물인데 이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시기나 합니까? 지구가 버스라면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네 집 내 집, 내 걸상 네 걸상,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온통 네 것 내 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가요. 돈이 들어오다가도 '아이구, 이 집에 들어가 봤자 괴로움만 가져올 거야.' 하고 나간다고요.

또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가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내부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은 내 몸뚱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디로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줄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가 잘못 가면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당기듯이 하나하나 다스리면서 거기다가 다시 놓아야 합니다. 나왔던 구멍에다 자꾸자꾸 다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전에 한 말을 그냥 되합니다만,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온다고요. 물질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입력을 해 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나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지 누가 입력을 해 넣고 안 해 넣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팔자 운명과 고통,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말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게 됩니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지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나오는 데다가 놓는다면,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 한 구멍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현실의 그릇이 비었다가 찼다가 비었다가 찼다가 하면서 항상 밝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여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밖엔 없겠죠. 그리고 자생중생들이 다, 내가 마음먹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됨으로써 한마음으로 뭉쳐 준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잘 안다면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어째 이 말을 좀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군요. 아마 여러분이 이러고저러고 이러고저러고 하니까 나 역시 그런가 봅니다. 하하하…. (대중 박수) 할 말은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할까요? 여러분한테 커다란 드럼통으로 기름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으로 받는다면 그냥 밖으로 쏟아질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의 그릇에 채워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스스로 받아질 겁니다, 아마.

※위 법문은 1993년 6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9면에서 계속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나투어 줄 수도 있거니와 내 도량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응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은 자에게는 칠성이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신이 돼 주시고, 관청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독성이 돼 주시고….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하나 아니 돼 주시는 게 없고, 아니 나투시는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요, 천백억응신이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요 응신이라. 마음 하나가 이렇게 구족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이면서도 활궁공법이고 활궁공법이면서도 수레공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누구나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컵도 흙을 물에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운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컴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살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합성체로서 등장이 됐다가, 흩어지면 물로 갈 거는 물로 가고 불로 갈 거는 불로 가고, 바람으로 갈 거는 바람으로 가고 흙으로 갈 거는 흙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모이게 되면 또 모습을 바꿔 가지고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미래가 주어지는 자체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미래가 따로 있고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신이 돼서,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 아니게 어떠한 문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나무들도 무정물들도 생물 전체가 다, 어떠한 문제를 생각했다 하면 같이 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항시 어디에나 아니 나투는 데가 없어서 금속과도 같고 전력과도 같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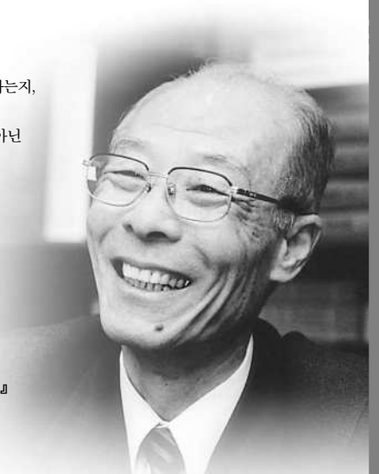
부처님이란 뭘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는가. 내가 어느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에 여러분이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엄마가 뵀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내가 뵀을 때에 나라고 원망 안 하고 돌아간다면, 바로 상대방에서도 불이 켜지고 자기한테도 불이 켜져서 다 밝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길 것입니다.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저자와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성지순례를 꿈꾸는 이에게!

불교의 성지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일생의 발자취이다.
성지순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전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경전을 근거로 새로 쓴 부처님 일대기이다.



●저자 | 이상규
●일시 | 6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 불광교육원 대륜당(3층)
●인원 | 150명(선착순 접수)
●교재 | 『경전과 함께 보는 붓다의 발자취』
●접수 및 문의전화 | 월간 『불광』
불광출판사 02-420-3200

불광출판부

李尙圭 | 19살 우연히 『반야심경 강의』로 인해 불교와 인연한 이상규 변호사는 1952년 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미국과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법제처 법제관과 문교부 차관, 고려대 법학과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환태평양 변호사협회(IPBA)회장 등을 역임. 『신행정법론』 『환경법론』 『영미 행정법』 『행정쟁송법』등 13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회갑을 넘기며 불교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금강경의 세상』을, 최근에는 아함경 전권을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7권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아직은 세속의 끈을 놓지 못해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하루 중 반은 뚝 떼내어 불교수행과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회)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학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봉축화보 | 불기 2550(2006)년 부처님 오신 날
성전 스님의 산사의 풍경소리 |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다
고산 스님의 자심법문 | "계첩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법회 "행복의 종자를 심어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2006 창정운동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보현 보살 10대 행원 해설 – "보현행원 실천하여 우리가 부처임을 깨닫자"
특집 | 마음 치료, 이제는 문화로 한다 – 문화예술과 대안치료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간의 내면을 움직여 치료하는 이른바, 대안치료의 세계를 알아보았다. 문화 치유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마음 치료란 무엇인가
- 미술치료 – 미술은 마음의 표현이다
- 음악치료 – 한방음악치료의 합용
- 무용치료 – 춤과 명상을 응용한 몸 깨어나기
- 서구에서 심리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불교수행법

종범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선(禪)의 실질적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2)
자상증계 | 미얀마 파욱 사야도가 지도하는 부처님의 호흡관 수행법 (2)
열린불교, 열린경영 | 신개념의 도심 총림(叢林), 불교타운 건립하는 영남불교대학
한호흠 쉬고 떠나는 여행 | 지리산 칠백고지 고운동 이창석 씨 가족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Waking The Cobra」
문화기획 | 소설가 김종록이 쓰는 바이칼을 시원으로 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고판화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미국 백인천교의 양면성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사찰요리법으로 만드는 소풍 도시락
건강에세이 | 당신의 허리는 튼튼합니까?
2006년 여름(6월~8월) 주요 사찰 템플 스테이 일정표
억불시대 수행열전 | 금강산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린 서산 대사의 후예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혼침의 노예, 봄날 오후가 나른해지는 진짜 이유
(별지) 하루에 들이보는 테마여행 | 서울의 석비(石碑)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향상일구’ 이룰때까지 (하)

(向上一句)

이만덕 (서울 은평구 대조동)

9월 말이 되었을 때 선원에 계신 회장 보살님께서 부산에서 초보자 반이 열린다고 말해 주어서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안국사에는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날 스님께서 저에게 “이번에도 답을 찾지 못하면 화두 공부를 포기한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미 두달이나 먼저 화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설마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늦게 답을 찾지는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부산에서의 공부는 무미건조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두 의심은 지속되었고 괴로운 기운들도 잦아들었습니다. 또한 몸도 가벼워져서 식사량만 늘어났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종일 참구하였지만 답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초심자 반이 중반으로 넘어갈 즈음 뉴질랜드에서 온 보살님은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였는데, 한참을 통곡한 후에는 혼절해서 벽에 기대어 있다가 다시 통곡을 하곤 쓰러졌습니다. 2일간은 공양도 거의 하지 못했고 공양하러 가서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점검을 받기 위해 스님께 삼배를 드리는 데 그 보살님처럼 가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예를 올리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밤에 잠깐씩 와서 공부한 거사님도 모두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아리에 자라 한 마리가 있는데 무럭무럭 자라면 어느 순간에 항아리가 깨질 것이니 그 때까지 정진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다시 초보자 반이 열려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6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초보자 반도 소득 없이 지나갔습니다. 스님께서는 “팽이가 빨리 돌면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져보면 엄청나게 빨리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도록 풀무질을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들고 있었던 화두 의심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칠었던 화두 의심이 순일해지고 흐름도 아주 커져서 이제는 어느 쪽을 향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작용만 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초보자 반이 끝날 무렵 저는 선원 사무실에 이야기 하고 또 밤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참하는 인원이 적어 선원에서 하지는 못하고 안국동에 있는 스님 처소로 장소를 옮겨 밤샘을 하였습니다.

화두·경전공부·선지식의 가르침 간절하니
야생마 길들이듯 날뛰는 기운 다스리는 힘 생겨

그러던 중 지장재일 법회날 회장 보살님이 저를 보더니 “이젠 작은 문제들은 일상생활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후에 스님 처소로 저와 같이 공부하시던 무업 거사를 불렀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경전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보셨고 이후에 꾸준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사법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성철스님 시봉이야기>를 다시 읽었는데, 책의 구절 중에서 ‘동정일여’ ‘화두’ ‘의심덩어리’라는 낱말의 뜻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두 참구하기 전에는 없었으나 화두 참구 과정에서 생긴 맑고 차분하며 신령스러운 기운들이 ‘화두 의심덩어리’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두 의심이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의 경지를 넘어 은산철벽을 투과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두의심이 들리면서 선지식들의 법문을 듣는 귀가 열려, 체험을 바탕으로 법문하는 스님과 경전 공부를 통해 법문하는 스님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두의심이 성성하게 들렸지만 잠만 자면 화두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두 의심이 꿈속에서도 들릴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폭죽이 터지듯이 흰색 기운들이 온 몸을 휘감고 돌아다니면서 빛을 내다가 사라지는 현상이 몇 차례 왔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선원 상담란에 글을 올리자 “화두 공부중에 나타나는 좋은 현상의 하나이나 그것에 매달리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치자 그 뒤론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선원장 초청법회를 통해 저는 제 공부가 어느 단계에 왔는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붓다뉴스, 용화선원, 해운정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선지식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수행법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화선 수행법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맑고 차분하며 신령스러운 기운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게 되자 웬만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마음이 외부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설사 뛰쳐나가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절과 경전공부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먼저 긴 고삐를 만들어 나무 말뚝에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질이 순해집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안장을 얹고 말 등에 올라타서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또한 멀리까지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참선도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사람의 심성도 거칠고 날뛰는 기운 역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결이 잦아들어야 물속의 달을 볼 수 있듯이 이런 날뛰는 기운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만 비로소 내 안의 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조사 스님들이 왜 ‘이 뭣고’ ‘무’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사 스님들이 왜 저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되면서 마음공부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선지식이란 비를 만나면서 비로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화두 공부 경험을 통해 지식과 생각의 양만큼 번뇌 망상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화두 참구 중에 제가 제 꾀에 속아서 귀신굴에서 허우적거리는 때, 저 스스로는 그런 사실을 도저히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약 석달간에 걸쳐 화두 참구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면 스님께 물어보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무리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스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공부는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결국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법이 얼마나 심오한지 알아야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임을 알아야 부처님, 조사스님,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형성된 믿음은 화두 공부 중에 부딪치는 경계들을 헤치고 나갈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화두공부는 불교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737-0695(직), 2004-8219(현대불교 영업1팀)

禪宗首寺刹 奉恩寺 90일 修行結社 백중에서 생전예수재까지

기도하고 공덕 짓는 제 3차 참살림 수행결사

봉은사에서는 불기 2550년 우란분절과 윤달을 맞이하여 "기도하고 공덕짓는 제 3차 참살림 수행결사를 봉행합니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원묘 요세 스님의 백련결사(白蓮結社), 그리고 지난 60년대의 봉암사 결사 등 한국불교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불교를 정법불교와 수행불교로 바로 세웠던 결사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실시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식적이고 기복적으로 흐르기 쉬운 재가불자의 신행을 바로 세우는 운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재가 수행운동입니다. 이 참살림 수행결사에 관심있는 불자 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봉은사는 지난 2004년 생전예수재와 우란분절을 계기로 이 불사의 참다운 의미를 살리고 새로운 신행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참살림 수행결사'를 2차에 걸쳐 진행해 왔습니다. 참살림이란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웰빙(wellbeing)의 열풍이 상업주의에 물들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사치와 개인주의 성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참되게 잘 사는 길에 대한 불교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참살림은 참됨, 진실, 거짓 없음을 말하는 참과 살리다, 살려낸다는 의미의 살림을 합한 말로 모든 생명을 참되게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림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 산림(山林)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불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살림 수행결사'는 자신을 정화하는 수행과 이웃을 위한 이타행을 통해 내 삶을 맑게 하는 '참살이', 사회를 밝게 하는 '참살림'을 구현하여 '참살림살이'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은사의 참살림 수행결사는 생전예수재와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이 법식의 진정한 의미에 따라 신행을 닦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49일에 걸쳐 동참 불자 스스로가 서원한 청규를 지키며 우리 불교를 지켜온 결사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차 참살림 수행결사는 2004년 윤달 생전예수재를 맞아 생전에 선근공덕을 쌓는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복신앙의 대명사처럼 호도된 생전예수재의 본래 의미를 살려 '참회하고 공덕짓는 생전예수재'라는 주제로 수행결사가 진행되었으며, 제2차 참살림 수행결사는 2004년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효순과 기도로 여는 생명해방의 날 우란분절'이라는 주제로 각각 49일간 16가지의 청규를 스스로 택하여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2006년을 맞아 우란분절과 윤달 생전예수재가 연이어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참살림 수행결사를 더욱 강화하여 우란분절 입재에서 생전예수재 회향까지 모두 90일간 '기도하고 공덕짓는 제 3차 참살림 수행결사'를 진행하여 봉은사의 수행결사의 전통을 잇는 한편 신행과 수행, 공덕행와 보살행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90일간의 수행결사는 지금껏 우리나라 어느 사찰에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시도로 재가불자의 신행을 바로 세우는 한편 우리 불교의 수행풍토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 결사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은 이와 같은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여 자부심과 원력으로 이 결사를 원만성취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행결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재가불자의 신행을 혁신하기 위해 청규를 제정하여 이를 스스로 지키도록 합니다. 청규는 모두 16개 항목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우란분절과 생전예수재의 취지에 맞추어 기도와 공덕행을 쌓는 것에 주안을 두면서도 재가불자의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수행법을 배치하여 다양한 수행법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청규는 각 항목 모두를 지키도록 권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정하여 입재 시에 서원을 세우고 회향 때까지 지켜나가며 매일 이를 점검하는 신행점검표를 기록하고, 매주 지도법사의 지도를 받아 그동안의 신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규를 배려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스로 지킬 것을 서원한 청규를 90일에 걸쳐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봉은사 사중에서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시설과 시간을 배정하여 결사 수행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봉은사는 불교계 어느 사찰보다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조직 역시 다른 어느 사찰보다 튼튼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보다 다양한 수행과 신행활동을 운영하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웰빙의 열풍과 함께 신도의 수행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에 대하여 불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이런 과제에 대한 봉은사의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봉은사 참살림 수행결사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살림 수행결사는 봉은사만의 특색과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참살림은 웰빙의 분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불교적 대안으로 제시된 이념이며 봉은사가 최초로 불교계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봉은사는 이 참살림 수행결사를 봉은사만의 특색과 강점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타 사찰과 타 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거, 결사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켜 다양하고 분명한 강점을 지닌 프로그램으로서 교계에 제시할 것입니다.

2. 참살림 수행결사는 봉은사가 불교계에 제시하는 재가수행의 대안입니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신도들의 생활수행법으로 봉은사가 불교계에 제시하는 대안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 불교계의 신도 수행체계에 대한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시에 현대 사회의 웰빙 열풍에 대한 불교적 대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봉은사는 이 참살림 수행결사를 우리 사회의 웰빙 문화에 대한 대안, 한국불교의 재가 신행을 전환시키는 대안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봉은사가 종단 포교와 재가 신행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3. 참살림 수행결사는 한국불교사의 수행전통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우리 불교 역사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결사의 이념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봉은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만일염불회의 전통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례화되고 강화된 수행결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연 2회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 동안의 재가수행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참살림 수행결사는 신도의 교육과 수행, 조직을 체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종단의 신도 교육과 수행 체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현재 종단 신도 교육 체계와 연계되는 적절한 신도 수행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살림 수행결사는 신도 교육 과정과 함께 연계되는 수행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를 통해 신심깊은 신도를 양성하고 확보하여 조직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신도조직을 보다 체계화하고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봉은사는 결사 이후의 수행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이를 신도의 교육과 수행, 위계 및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신도 조직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수행 결사 청규(淸規)와 실참(實參) 수칙

1. 기도-매일 지장기도 동참하기, 남을 위해 기도하기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기도에 동참합니다.
   -사찰에 오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기도를 행합니다.
2. 참회-매일 108배 참회하기, 1080배로 회향하기
   -매일 법회나 기도회에 참석하여 참회 108배를 합니다.
   -사찰에 오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참회 108배를 합니다.
   -결사 회향식에 반드시 참여하여 1080배로 회향합니다.
3. 염불-매일 지장염불 또는 원불에 대한 염불하기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사분정근에 참석하여 염불을 합니다.
   -사찰에 오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자신의 원불에 대한 염불을 108독 이상 합니다.
4. 천도-선망부모와 인연영가를 천도하는 천도재에 동참하기
   -수행결사 기간동안 열리는 각 재에 동참합니다.
   -선망부모는 물론 인연있는 영가와 수자령의 천도를 위해 영가등을 밝힙니다.
5. 지계-결사 기간 중 5계지키기, 보살계 수계하기
   -어른은 재가불자 5계, 어린이는 어린이 오계를 준수합니다.
   -매일 신행점검표에 계율 준수 여부를 표시합니다.
   -5계를 모두 지킨 날은 ○표, 하나라도 어긴 날은 ×표를 합니다.
   -결사기간에 실시되는 보살계 수계식에 동참하여 보살계를 수계합니다.
6. 감사-식사 때마다 공양게 하기, 음식남기지 않기
   -식사 때마다 합장하고 음식에 깃든 모든 이의 노고를 생각하며 공양게를 암송합니다.
   -가족과의 식사에서는 모든 가족이 함께 공양게를 암송합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며 만물의 노고가 깃든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7. 선정-매일 참선하기, 가족 참선하기
   -매일 오후 1시~5시까지 미륵전에서 참선 수행을 실시합니다.
   -사찰에 오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참선을 실시합니다.
   -가족 참선은 화두선 보다는 수식관으로 20분 내외로 실시합니다.
8. 보시-매일 일정액의 보시금 모으기
   -매일 자신이 정한 액수의 지폐나 동전을 저금통이나 보시금 봉투에 모읍니다.
   -모아진 보시금은 수행결사 회향일에 사중에 제출합니다.
   -사중에서는 이 보시금을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회에 회향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것입니다.
9. 발원-매일 저녁 발원문 낭독하기
   - 스스로 발원문을 작성하거나 수행결사 발원문을 수지합니다.
   - 매일 잠자기 전에 예수재 발원문을 낭독한 후 잠자리에 듭니다.
10. 정진-매일 신행점검표 작성하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행점검표에 청규 준수 사항을 표시합니다.
    -자신이 정한 청규 가운데 잘 지킨 것에는 ○표, 잘 지키지 못한 것에는 x표를 합니다.
    -오늘하루의 신행 생활을 돌이켜보며 삼보전에 참회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11. 독경-매일 경전 읽기, 경전 49독
    -결사기간동안 사중에서 추천하는 불서를 3권이상 읽습니다.
    -지장경을 비롯하여 자신이 정한 경전을 매일 7독 이상 수지 독송합니다.
    -49독을 마친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천도재를 지냅니다.
12. 사경-사경하기
    -결사기간동안 금강경, 지장경, 부모은중경을 매일 사경합니다.
    -매주 각 재가 끝난 후 법왕루에서 대중사경을 실시합니다.
    -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집에서 사경을 실시합니다.
13. 효순-결사기간 중 부모님을 공경하고 매일 대화하기
    -결사기간 중 매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멀리계신 경우 매일 안부 전화 합니다.
    -부모님께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즉시 보살펴 드립니다.
14. 공덕-결사 기간 중 1회 이상 봉사활동 하기
    -결사 기간 중 3회 이상 봉은사 부설기관인 강북장애인 복지관 또는 역삼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15. 만행-결사 기간 중 삼사순례 하기
    -결사 기간 중 9월12일 실시되는 삼사순례에 동참하여 공덕을 쌓습니다.
16. 보살행-헌혈, 화장 서약, 장기 기증 서약, 사후 시신기증 등의 보살행 하기
    -9월17일 결사회향식에 맞추어 헌혈, 화장 서약, 장기 기증 서약, 사후 시신 기증 등의 보살행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합니다.

참살림 수행결사 동참 안내

봉은사에서는 참살림 수행결사에 동참할 대중을 모집합니다. 재가불자로서 자신을 삶을 청정하게 닦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비는 없습니다. 접수는 봉은사 종무소 또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 후 신행점검표를 비롯한 준비물을 배부 받아 결사에 동참하면 됩니다. 결사 입재 후에도 7월 말일까지 접수와 동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 봉은사 홈페이지 : www.bongeunsa.org

제3차 참살림 수행결사 일정 및 동참 안내

우란분절 입재	초재	2재	3재	4재	5재	6재	7재	보살계 수계식	생전예수재 입재	초재	중재	삼사순례	예수재 회향
													
6월 21일(음 5. 26) 수요일, 10시 법왕루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6월 27일(음 6. 3) 화요일, 10시 법왕루	7월 4일(음 6. 10) 화요일, 10시 법왕루 묘허 큰스님	7월 11일(음 6. 17) 화요일, 10시 법왕루	7월 18일(음 6. 24) 화요일, 10시 법왕루 정락 큰스님	7월 25일(음 7. 1) 화요일, 10시 법왕루 주지 원혜 스님	8월 1일(음 7. 8) 화요일, 10시 법왕루 정무 큰스님	8월 8일(음 7. 15) 화요일, 10시 법왕루 회주 종범 큰스님	8월 20일(음 7. 27) 일요일, 10시 법왕루	8월 28일(음 윤7. 5) 월요일, 10시 법왕루 교육원장 청화 큰스님	9월 3일(음 윤7. 11) 일요일, 9시 법왕루 혜인 큰스님	9월 10일(음 윤7. 18) 일요일, 9시 법왕루 성타 큰스님	9월 12일(음 윤7. 20) 화요일, 오전 6시 추후공지	9월 17일(음 윤7. 25) 일요일, 10시 법왕루

■우란분절(백중)천도재 봉행
일정 : 6월21일~8월8일(49일간 매주 화요일 기재 봉행)
영가등 접수(영가 등/ 부부영가 등…)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 불기2550년 8월 28일(월)~9월 17일
(21일간 일요일 기재 봉행)

■보살계 수계대법회
일시 : 불기2550년 8월 20일 일요일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윤달삼사순례
일시 : 불기2550년 9월12일 화요일
(추후공지)

문의 · 접수
3218-4801~5

여름안거 수행산림-각성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

공부하는 도량 봉은사에서는 매회 특별기획으로 일요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일)부터 봉행되고 있는 일요법회는 7월 30일(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각성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불교 논서의 백미인 "대승기신론"강좌를 봉행합니다.
모든 경(經)과 논(論)을 회통하고 있는 대승의 입문서로서 널리 전송(傳誦)되어온 중요한 논서 가운데 하나인 대승기신론 강좌를 통해 현대 불교인의 참다운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정 : 불기 2550년 5월 21일(일)~7월 30일(일)
■시 간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지도법사 : 각성스님(부산 화엄사 회주/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장 소 : 법왕루

봉은사 수요야간법회-혜거스님의 <유식 30송> 강의

<유식30 송>은 인도의 무착보살이 초안하고 세친보살이 완성한 것으로 유심(唯心)의 법을 밝혀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불교사상의 핵심작인 저서입니다. 혜거스님의 <유식30 송>강의는 너무나 많이들어 익숙해져버린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의미를 심오한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승경전과 초기불전을 지나 유식으로 가는 수요야간법회의 여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 정 : 2006년 6월14일~8월30일(총 12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장 소 : 법왕루
■법 사 : 혜거스님(금강선원장)
■문 의 : 02)3218-4821~8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 주 성암 종범
주 지 설담 원혜
신도회장 대원 김경남
사부대중 일동
www.bongeunsa.org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 02)3218-4801~5
FAX : 02)544-2141